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박 현 중

'86, '88올림픽 경기를 대비한동계 강화훈련이 오후 2시 노태우 대한 체육회장님과 체육회 많은 관계자 분을 모시고 태능선수촌 승리관에서 태권도를 비롯해 26개 종목이 입소식을 가지고 보다 내실화 있는 훈련에 최선을 다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입소식이 끝 난후 우리 국가대표팀은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데 국가대표팀의 임원과 선수의 구성을 보면 단장: 정관삼, 감독: 김봉기, 코치박현중 트레이너에 주신규, 편금: 김지태(연세대)플라이급: 김준태(경희대) 밴텀급: 권기문(한국체대) 패더급: 장명삼(경희대) 라이트급: 한재구(청주대) 웰터급: 이준명(한국체대) L.미들급: 정국현(전남협회) 미들급: 박상식(한국체대) L.헤비급: 김종석(상무) 헤비급: 고영철(유도대) 회의대표: 김용희(협회사무국장) 이상구성된 15명,

우리 대표팀은 국기원에서 Interval training 과 전문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짧은 기간이지만 임원과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주국으로서의 team work 과 game manner에 주력 하면서 아침 6시~7시30분, 오후 3시~5시까지 유연성운동과 부분기술 전문기술 훈련과 겨루기에 강도를 높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실시 하였다. 11월 2일 오후 2시 임원과 선수일동은 김용웅 총재님을 모시고 태권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성대한 결단식을 가졌다.

김용웅 총재님은 환송사에서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86아시아 게임을 대비한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기 기술은 물론 중주국으로서의 게임에서도 정정당당하게 탁월한 기량으로 조국의 명예를 드높여 줄것이고 '88올림픽을 향하여 전진하는 종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 하였다.

마침내 11월 6일 임원 선수단은 김포 국제공항 출국에 앞서 대한태권도 협회 엄윤규 부회장님과 황춘성 전무이사님을 비롯해 태권도 관

계자 여러분들과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선수들의 환송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엄윤규 부회장님께서 이번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86아시아 게임 채택 종목으로 선수들의 기량은 물론 경기내용의 충실로서 중주국 선수다운 기술로 한게임 한게임에 면모를 과시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하셨다.

우리 대표팀은 고영철 선수를 기수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기필코 6연패를 달성 한다는 각오로 8시40분 KE. 621편으트랙에 올랐다.

우리 선수들은 기내에서도 항상 명랑 하고 밝은 얼굴로 기쁨에 가득차 있었다. 참으로 든든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MANILA 국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도중 시내의 교통질서 길거리의 노점상이며 거친 거리질서를 보았을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후진 국가임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 대한의 건아로 태

어남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약 30분 후에 University of Life 기숙사에 여장을 풀었다. 먼저 도착한 각국 대표팀이 종주국 선수단에 우수성을 느끼면서 인사들을 했다. 우리 선수중에는 외국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교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언어와 풍습과 인종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 기숙사에 한국 팀을 비롯해 25개국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대비하여 간단한 Warming-up과 체중조절에 신경을 쓰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 대표팀은 한국에서 동일한 훈련계획대로 매일 매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 하였다. 또한 외국 선수들의 준비운동과 타겟 차는 동작과 원동한 신체조건을 가진 선수들이 맞추어 겨루기를 할때 우리 팀과 흡사한 동작들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자유중국,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선수들은 우리 팀을 능가하는 차기 동작과 몸돌림을 볼 수가 있었다.

11월 8일 University of Life 회의실에서 대전 추첨이 오후 2시에 시작 되었는데 각국 대표자들은 추첨에 앞서 한국 선수단을 피하면 메달권에 진입 한다는 등 한마디로 경기장 밖의 신경전이 계속 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경기에 앞서 종주국의 태권도가 국위 선양은 물론 스포츠 외교에 얼마나 큰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아시아 연맹의 29개 회원국 중 25개국(출전23개국) 임원 130명 명수 270명여이 참가하는 예년에 볼 수 없는 각국 대표팀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은 우리 종주국의 태권도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한국의 열이 심

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할때 이번 대회 코치로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섭시 29℃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서 마침내 3,00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RIZAL MEMORIAL 체육관에서 성대한 경기가 막을 올렸다.

특히 마닐라 국영 TV방송국에서 첫날 경기부터 폐회식 까지 계속 실황 중계로 방영 하였으며 다시 한번 외국에서 태권도 경기의 관련인식도가 얼마나 대단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11월 9일 핀급, 라이트, L.헤비급

11월 10일 플라이급, 페터급, 웰터급, L.미들급

11월 11일 밴텀급, 미들급, 헤비급 순으로 경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급별 대전번호에 따라 경기가 진행 되었다.

●11월 9일 핀급 대전에서 경기에서 한국대표선수 김지태는 첫 경기에서 자유중국 선수(Chang Jung San)에게 심판전원 일치 판정패를 했다. 이 선수는 다양한 기량과 투지력이 넘치는 경기내용 이었고 김지태 선수는 동작의 단조로움이 여실이 나타났다. 우리팀의 선수들과 임원들은 초조한 분위기 속에 한동안 망서리기도 했다.

- 1위 ARNOLD BARDI (필리핀)
- 2위 CHANG JUNG SAN (자유중국)
- 3위 VISALI NGAM (싱가폴)
- KALID ABDULLA (바레인)

●라이트급 대전에서 경기에서 한국선수 한재구는 첫경기에 일본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부전승으로 올라온 싱가포르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전에서 피지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필리핀 선수를 2회전30초만에 오른 발등 차기로 얼굴을 강타해서 한국 선수중 첫 K.O 승을 안겨 주었다. 준결승전에서는 요르단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자유중국 선수를 360° 발등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걸었다.

- 1위 한 제 구 (한국)
- 2위 LIN TSUNG YUNG (자유중국)
- 3위 KHALIL KAMAL (요르단)

●L. 해비급 대전에서 경기에서 한국팀 김종석 선수는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전에서진출해서 바레인 을 이기고 올라온 요르단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전에서 쿠웨이트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 결승전에서 이란 선수를 KO 로 누르고 올라온 자유중국 선수를

2 회14초만에 왼 발등차기로 몸통과 얼굴을 강타해 KO 로 두번째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 1위 김 종 석 (한국)
- 2위 CHAO WEN KAN (자유중국)
- 2위 MOTLAO SAEQ (쿠웨이트)
- 3위 ALBERT PUZON (필리핀)

●11월 10일 플라이급

경기에서 김준태 선수는 첫 경기에서 네팔 선수를 오른발등 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가볍게 누르고 태국선수와 필리핀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 결승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를 좌우 발등 차기와 뒤돌아 후려차기로 판정승을 거두고 한국에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 1위 김 준 태 (한국)
- 2위 ABDULA JAMAN ALYNE (사우디)

- 3위 MIKE VENTOSA (필리핀)
- RA. AD MANSUR (요르단)

●페터급

경기에서 장명삼 선수는 필리핀 선수와 대전에서 홈 그라운드인 원속에서 KO 만을 의식하다 체력안배에 실패를 해 어려운 첫 경기를 판정승 준준결승에 쿠웨이트선수를 360°몸돌려 뛰어차기등 다양성 있는 공격으로 얼굴을 강타 준결승 바레인 선수에 기권승 결승전에 자유중국 선수를 특기인 뒤돌아 후려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 1위 장 명 삼 (한국)
- 2위 LEE WEI KANG (자유중국)
- 3위 MAROOZO MOHAMED (바레인)
- ALFIE DELL ORSO (오스트리아)

●웰터급

경기에서 이준명 선수는 쿠웨이트 선수를 오른발등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전에 요르단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자유중국 선수를 맞아 좌우 발등 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바레인 선수를 몸통공격과 얼굴공격을 퍼부어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한국팀에 다섯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1위 이 준 명 (한국)
- 2위 RASHID MUBARAO (바레인) ✓
- 3위 CHARLES RAWILINS (오스트리아)
- WU TSUNG HUI (자유중국)

●L.미들급

경기에서 정국현은 첫 경기에서 인디아 선수를 1회 10초만에 뒤돌아 옆차기로 KO, 준준결승전에 자유중국 선수를 원사기 없는 공격으로 2회 30초만에 오른 발등차기로KO 승을 거두고 결승전에서 한국에서 이만간 조판선 선수를 압도적인 공

격으로 얼굴에 뒤희려차기로 심한 상처를 입자 2회 2분경에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특히 재미있는 얘기는 경기후 형조금만 때려주지 이꼴이 무엇이요. 라는 에피소드가 꽤 재미 스러웠고 여섯 번째의 태극기를 게양 하였다.

- 1위 정 국 현 (한국)
- 2위 KWAN SUN JO (오스트리아)
- 3위 GHANIM KHALAF (쿠웨이트)

HUSSENIN MOHD (카타르)

● 11월 11일, 밴텀급 경기에서

권기문 선수는 자유중국 선수를 맞이 원 발등차기와 뒤희려차기로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브레네이 선수의 기권승으로 준결승전에 홈팀인 필리핀 선수와의 대전에서 열광적인 응원속에서도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원 발등연속 포인드와 얼굴을 발등으로차 판정승 결승전에 요르단 장신 선수를 맞아 2회전과 3회전 중반에 뒤희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해서 카운트 아웃 직전까지 몰고 간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해 관중들의 환호속에 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 1위 권 기 문 (한국)
- 2위 TAREQ ABDALRAHMAN (요르단) ✓
- 3위 AMELITO AGREGADO (필리핀)

NASER MUBARAK (쿠웨이트)

● 미들급

경기에서 박상식은 카타르 선수와 대전에서 오른발등 부상으로 원발등과 뒤돌아 열차기로 공격을 퍼부어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 준준결승에 브레네이 선수를 2회30초만에 원발 뒤희려차기로 KO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사우디 선수를 경기도 중 맹렬한 공격으로 2분 10초만에 심판의 물수게임 결승전에서 태국 선수를 맞아 발등 돌려차기로 상대의 얼굴을 강타해 다운직전에 경기



종료가 되어 여덟번째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 헤비급

경기에서 고영철 선수는 뉴질랜드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준준결승에 자유중국 선수와의 대전에서 오른 발등차기와 내려찍기등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필리핀 선수와 1회전의 심한 공격으로 인해 2회전 10초만에 경기를 포기해 결승전에 카타르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아홉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일동안 체육관이 떠나갈듯한 함성과 박수갈채도 열전의 결과는 중주국인 한국팀이 아홉번이라는 태극기를 펼친 국민앞에 25개국이라는 각국 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방부 소속인 밴드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게양될때 마다 태권도에 종사하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대회에 선전분투하는 우리 대표팀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축전에 감사를 드리오며 현지에 계신 대사를 비롯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사법님들과 그리고 김운용 총재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 1위 고 영 철 (한국)
- 2위 AIED KIDIR (카타르) ✓
- 3위 DANIEL YAD (필리핀) P

VICTOR BATEMAN (오스트리아)

※ 종합순위 :

- 1위 금 9개 (한국)
- 2위 금 1개, 동 4개 (필리핀)
- 3위 은 4개, 동 1개 (자유중국)

순으로 당당히 한국대표팀이 6년 6패를 달성했고 홈팀인 필리핀이 2위 한국 선수들과 흡사한 경기운영을 가진 자유중국이 3위를 차지했다.

제 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느낀대로 약술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대회때보다 많은 임원 선수들이 참가 했다는 것은 86아시아인 게임에 우리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되었다는 큰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된다. 이번 경기에서는 각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기량면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경기운영을 이룰어 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표팀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어느대회까지든 종합우승을 한다지만 신장과 체격조건이 우수한 외국선수들을 대비해서 중주국 선수로서 좀더 과학적인 토대위에서 보다더 다양성 있는 기술개발이 육성 되어야 겠고 체력면에서도 전문체력을 육성해서 체력을 바탕으로한 탁월한 기술을 발휘 할 수 있는 체력조건이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겠다고 생각된다.

제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간담회



감독 김봉기



단장 정관섭



코치 주신규

11월 6일 서울을 출발한 임원선수단이 11월 14일 9 계급우승으로, 6년째의 위업을 달성하고 개선하였다. 이어 선수단은 19일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태권도가 스포츠화하여 경기를 시작한후 처음으로 태능선수촌에 입촌하였다. '86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후의 발전이라,

코칭스텝과 선수는 훈련일제가 되어, 합숙 훈련하는 모든 종목의 경기자들과 건주어 모든면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태능입구 태능장의 합숙훈련장을 찾았다.

필리핀 대회에 코치로 참석한 박종현, 주신규트레이너와 10명의 선수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단장 정관섭(메스무역회장)사장은, 감독을 비롯한 코치, 선수들이 모두 종주국의 태권도인 다음에 모든일에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일이 없었으며, 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민간외교관으로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저절로 신이 날 정도였다고 술회하시며, 국내경기를 여러번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실력도 대단하여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여야 하겠다고.....

아울러 잘 따르고 협조해준 임원, 선수들에게 고맙

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봉기(협회경기위원장) 감독은 기후, 음식 등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볍게 전제하고,

첫째, 시급한 것은 경기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못 박고, 득점기준이 차등제가 되어서 선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관객과 선수가 일치감을 느끼는 활기찬 경기가 되어야 겠다.

둘째, 세계연맹에서는 국제심판교육(최소한 국내 2 급정도의 실기보유토록)으로 심판의 자질을 높여야 겠으며,

셋째, 경기운영위원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대만선수는 5계급, 요르단선수 3계급, 필리핀 3계급, 싱가포르 3계급, 태국 2계급, 바레인 2계급 등의 선수들은 조금만 기회를 주면 복병으로 우승을 거둘 실력자들이라고 말하며, 신장면에서도 열세였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복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은 물론 체력보강에 박차를 가하여야 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鄭團長님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화끈하게 매사를 처리하여 임원, 선수 모두가 불편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치, 박헌종(전남체육중교사) 선생은 국내의 경기에서 발생하는 득점과 차이가 심한 득점으로 국내에서 몸통공격이나 받아먹기식의 선수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얼굴공격은 스치기만해도 득점을 인정하고 (관중의 호응도도 높으며) 국내에서는 충분히 득점일 수 있는 몸통공격은 인정치 않았다며, 다양한 상단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트레이너 주신규(동대문상고 코치) 사범은, 현재까지는 모든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세하다. 특히 유리한 것은 경기운영(게임운영) 면에서의 이점(利点)이 있다고 보겠다.

국내에서는 고교시에 장학금혜택 및 대학진학등으로 우선 승리에 집착하다 보니 임기응변적 지도가 많았음에, 기초체력에서부터 무한한 기술개발에의 잠재력을 키움에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경기장에서의 기술에 따른 체력도 중요하지만 人性을 갖춘 지도자나 선수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느꼈다고, 폭넓은 느낌을 말했다.

고생스러웠다면, 필리핀은 하루에 한번씩(12~2시 사이에) 비가 왔으며, 비가오기 직전에 습도가 많아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이 많았고, 숙소에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않아 잠자리가 불편스러웠

다. 그러나 선수모두가 강한 정신력으로 잘 견뎌내어 오늘의 영광을 안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출전한 선수들의 프로필과 대회참가에서 느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국현 (주장, 62.3.15일생) 체급 : 라이트미들급
선수경력 13년(전남태권도 협회소속)

전적 : 1982. 2.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1위
83. 10.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1위
84. 11.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세계대회는 유럽과 구미지역의 선수들은 좋은 체력과 체력조건등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아시아대회도 대만, 요르단의 선수들은 충분히 우리 팀을 위협할 만 하였다.

큰 비중의 느낌은 국내의 시합내용과 아시아대회의 시합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동작보다는 단순하고 빠른 동

작을 하여야 관중들에게의 호응은 물론, 확실하게 이길수 있었으며, 국내식으로 시합을 뛰면 관중의 야우는 물론 채점면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생각되었다.

요컨대 국내의 경기규칙에 변화가 왔으면 한다.

(특기: 뒤후리기(오른발))

✱한재구 (62. 12. 20일생) 체급:라이트급
선수경력: 10년(청주대학교재학중) : : :

전적: 60, 61, 63, 전국체전우승

82. 제 5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83.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84.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제 5 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때는 나의 발차기 기술이 거의 적중을 하였었는데 6회대회는 달랐다. 두 계임정도 높은 고전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런대로 잘 풀려서 금 메달을 확보하였다.

기본체력육성과 기본발차기 숙련에 주력을 하여야 했다. (특기: 왼발앞차기, 점프 연발 앞차기)

✱장명삼 (63. 5. 16일생) 체급:페터급
선수경력: 13년 (경희대학교 재학중)

전적: 82. 2.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1위

82. 12. 제 5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84. 11.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첫 경기가 홈팀의 필리핀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국제경험이 풍부했었고 잘 뛰었다.

나는 1회전에서 많은 공격을 하였다. 이것이 생각 외로 체력을 많이 소비를 하여 2, 3회에

서는 발 한번 제대로 차지를 못하고 졸전을 하였다.

하루에 몇 게임을 소화하려면 체력의 안배를 잘하여야 함을 절감하였다.

나머지 게임은 시범을 보이듯 기술발차기가 잘 먹혀들어가 보편적으로 잘 뛰었다.

(특기: 오른발 점프 앞차기, 앞발주고 점프 뒤차기)

✱권기문 (64. 4. 10일생) 체급:밴텀급
선수경력: 8년 (한국체육대학 재학중)

전적: 81. 8. 제 1 회 월드컵게임 1위

82. 12. 제 5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84. 11.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제 5 회 대회보다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졌음을 느꼈다.

우리선수보다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보였다(게임운영이 우리보다 미숙하였을 뿐) 특히 요르단 선수들의 힘 차고

빠른 동작은 대단하였다.

단순하고 빠른공격보다는 다양한 공격 (관중들이 보고 멋있고 화이팅한 모습)을 보여 줄수 있도록 기량을 개발하여야 하였음을 느꼈다.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술외에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여야 하였다.

(특기: 돌려차기, 찍기)

✱고영철 (62. 9. 4일생) 체급:헤비급
선수경력: 6년 (유도대학 재학중)

전적: 83. 국가대표 최종전 2위

84. 국가대표 최종전 1위

84.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국제대회의 처녀출전이라 긴장도 하였고 체력안배에 배런스를 잘 못마춘것 같았다. 기술과 게임방식에서는 우리가 앞서나, 체력면에서는 우리가 뒤지는듯 했다. 그러나 가슴 뿌듯한 것은

필리핀 국민들의 태권도의 열이 대단하였음이다.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를 앞둔 우리는 새로운 작으

로 체력훈련은 물론 다양한 기술개발을 하여야 겠다.
(특기: 원, 오른발 돌려차기)

- ❖ 김중석 (63. 6. 30일생) 체급: 라이트헤비급
선수경력: 10년 (상무)
전적: 제61, 64회 전국체전 1위
84. 제19회 대통령기대회 1위
84.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국제시합이 처음이라 약간 긴장은 하였으나 첫 날 시합이라 오히려 담담한 기분이었다. 첫 경기에서 득점에서는 우세였으나 체력에서는 뒤짐을 느꼈다.

결승전에서는 1회전에서 득점에서 확실히 앞심을 느끼고 2회전에서는 기술 발차기를 시도 쉽게 승부가 났다.

그러나, 모든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게 발전을 하여 조금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기: 원발상단 앞돌려차기)

- ❖ 이준명 (64. 3. 19일생) 체급: 웰터급
선수경력: 7년 (한국체육대학 재학중)
전적: 83 국가대표 최종전 2위
83. 우수선수 선발 2위 83.
84. 국가대표 1차선발 1위
84.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본인의 게임은 2일째 첫 게임이 있었다. 다른 선수들은 금 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하여 첫 시합에는 마음을 가라 앉히는데 무엇보다 신경을 쓰며 차분히 한

게임 한 게임씩 풀어 나갔다.

날씨가 더워 체력 걱정을 했는데 별로 부족함을 못 느꼈으나, 신장면에서는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났다.

(특기: 뒷발들어찍기)

- ❖ 김지태 (66. 1. 14일생) 체급: 원급
선수경력: 10년 (연세대학교 재학중)
전적: 83. 대통령기대회 1위
83. 추계중고연맹 1위
84. 최우수선수권대회 1위



선수들이 시합에 쓰는 발차기가 다양하였다.

국제대회에 첫 출전에 첫 게임이라 부담이 갔고 체력이 달렸다.

본인도 이번기회를 태권도 인생의 첫 시련으로 꼭 딛고 일어서겠다.

체력훈련은 물론 다양한 기술 발차기를 개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꼭 실용하겠다.

(특기: 앞발 앞차기)

- ❖ 김준태 (66. 8. 15일생) 체급: 플라이급
선수경력: 10년 (경기대학교 재학중)
전적: 83. 전국체전 1위
84. 국가대표 최종전 1위
84.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국내에서 아시아지역 선수들은 약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투지와 적극성은 우리선수들이 배워야 되겠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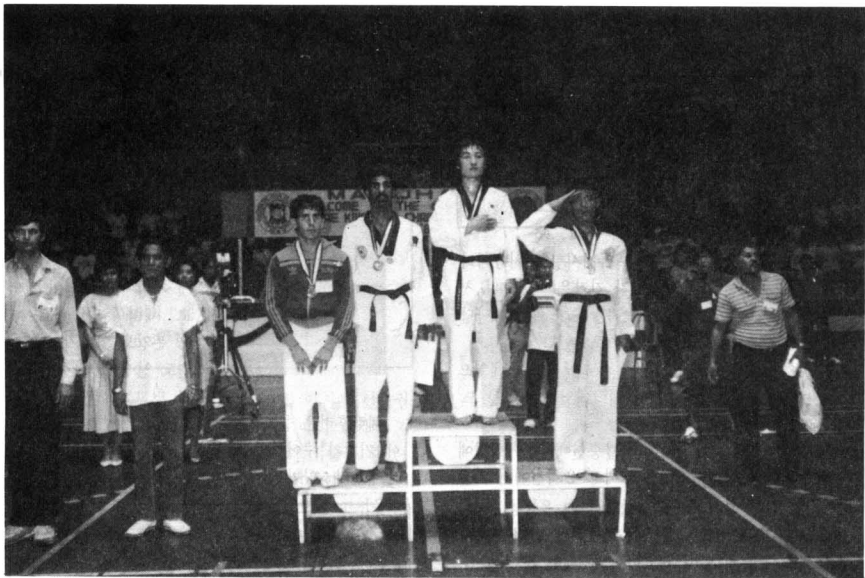
다만, 요르단 선수들의 다양한 발기술은 기초가

든 든하였다. 경기운영(게임운영)의 묘만 터득 한다면 무서운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국내시합에서 다양한 발차기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득점제도가 개선 되어야 겠다고 생각된다. (특기: 돌려차기, 킷트, 발)

●이런일 저런일●

●박상석선수는 첫 게임인 카타르선수와의 대전에서 1회전에 팔꿈치에 발등을 다쳐 왼발로 게임을 치



루느냐 고전을 하였다고……

●이준명선수는 대만선수와의 대전에서 평균적으로 실력이 워대한 대만이라서 긴장을 하였는데, 주심이 대만선수의 형으로 주의를 두번씩(잡지도 않았는데 잡았다고) 이나 주어 게임을 소화시키는데 어려웠다고……

●장명삼선수는 필리핀은 아키노 사건으로 무척 어수선 스러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온하고 빈부의 차가 눈에 보이게 심함을 느꼈고 습기가 많아서 몸푸는듯이 운동을 했는데 3kg이나 몸무게가 빠지더라고……

●정국현 선수의 시합은 끝까지 가서 판정으로 승부를 가린것이 하나도 없다고, K. O가 아니면TK.O승이라고……

모든 선수들이 입을모아 평소에 꾸준히 쉬지않고 운동을 하는 모범된 생활과 자세에서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한재구 선수는 제5회 아시아 대회에서 느낀바가 있어 상단공격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이 시합에

잘 먹혀들어서 게임을 잘 풀렸던 것 같다고…… 이

●선수들 중에 기초가 잘 갖춘 선수가 장병삼이라고 박현종 코치는 말하며, 지구력만 좀더 보장을 하면 좋은 재목이라고……

●김지태 선수는 시합 첫 게임에서 탈락 유일한 노메달선수, 감독(김봉기)님 “완” 한국식 득점으로 보면 김 선수가 이겼으나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습을 따르라」고, 했듯이…… 헛

패장이 무슨 할말이 있으르오,
더욱 더 분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름이 으뜸이 아니겠으니까!／

선수들 모두가 이제 아시아지역이라고 깔보았다간 큰코다치겠다는 애기, 늘 문제가 되는 기초체력부족, 향시 입만 열면 고쳐쳐야 되겠다는 경기규칙, 심판 규정등은 누가 고쳐야 하는지……?

국내시합과 국제시합의 득점의 기준이달려서 승패가 엇갈린다면…….

종주국답게 모든것을 이끌고 나가도록 조속한 처방이 요망된다. (한)

제 6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경원고등학교체육관)
1984. 10. 11~16



김 봉 기
(보통경기부과위원장)



전국체육대회는 모든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방과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대회운영으로써 '88 서울올림픽 및 '86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군센 체력, 알찬단결, 빛나는 전진을 체전의 '표어'로

태권도 경기는 10월11일 오후4시 대구체육회 2층 강당에서 대표자회의(각 시도협회 전무이사급)를 시작으로 태권도 경기는 시작되었다.

金昌洪(대구지검부장검사)대구협회장의 환영인사와 중앙협회 황 춘성전무이사의 경기일정, 경기운영, 태권도의 현재의 동향등의 설명에 이어 김 봉기경기위원장은 계체및

코치의 임무를, 안 영택심판 위원장은 공정한 심판을 약속하며 초청및 채점표 관리에 대하여, 박 해만 기술심의회회장은 경기장 질서대책에 관해「질서는 모두의 참여로만 이루어질수 있음을 강조하고 화기에 애한 만남을 헤어질때까지 유지하도록 화합과 질서를 당부하였다.」

대표자 회의에 재미, 재일, 재홍 공동포도 참석하였다.

저녁 7시에는 뉴영남호텔 3층에서 전국체전 태권도 참가임원 환영회를 대구협회주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창홍 대구협회장의 환영사와 김 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은후 차려놓은 음식을 들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10월12일.

대구직할시 남구 송현동에 자리한 경원고등학교체육관, 계체량에서 대항부 1명이 실격되었고 대전번호 115번 게임을 소화하였다.

경기는 A코트와 B코트두개의 코트를 사용, 심판은 5심제로 실시했다.

첫게임은 A코트에서고등부 1번게임, 편급 경기로 경기도 대표선수 청코너 박 창국 대 경북 대표선수 이 진봉의 대전으로 박 창국의 판정승



B코트, 서울 대표선수 강철우 대 부산 대표선수 김 태형의 대전에서 청코너 김 태형의 승리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번호 19번 게임의 고등부 페터급 전북 임 근남대 전남 임 내락의 대전에서 2 회 20초에 임내락의 뒤돌려차기가 임근남의 얼굴을 강타 KO 승을 거두었다.

대전번호 43번 게임 고등부 라이트급 전남 임영훈 대 황 진철의 경기를 마친후 경남의 판정이의 소청으로 소청심사회를 소집하여 심의 결과 심판의 판정대로 청코너 임영훈의 판정승을 재확인하는등 경기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A코트 고등부 해비급 48번 게임에서 충북 추교일 대 강원 강명국의 대전에서 1 회24초에 추교일의 앞돌려차기로 추교일의 얼굴을 공격 가범게 KO 승을 거두었다.

첫날은 일반부 밴텀급 경기로 경남 정철우 대 부산 박태웅의 경기로, 정철우의 판정승으로 17시50분에 경기를 마쳤다.

8월13일

경기의 열기는 고조되어 갔다.

116번 게임인 일반부 페터급 전북 서재현 대 전남 최낙문의 경기로 시

작되었다.

12일에는 체전 주최인 대구가 부전승으로 예선전을 통과하였고 서울 1 위 전남2 위, 경기, 충남, 강원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대전번호 139번게임, 일반부 미들급 전남 유효경 대 황태진의 판정에 불만 경남웅원석에서 소란을 피워 5분간 경기가 중단되었고, 대전번호 213번 대학부 웰터급 강원 이재기와 경남 양민수의 대전에서 판정에 불복 경기장을 쫓겨 퇴장을 하

지 않음으로 4분여 경기가 중단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

대전번호 145번 게임 일반 해비급 강원 최천수와 경남 조영민의 경기 1 회 1분40초에 최천수의 돌려차기가 조선수의 머리를 강타 KO 승을 거두었다.

대전번호 229번 끝게임인 대학부 해비급 조준걸 충남의 권용주대 전남 박형대의 대전 종료후 충남선수의 부형이 강한 어필이 있었다.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의 고지를 향한 세계인의 스포츠이다.

승패에 집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는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각하여야 하겠다.

경기종료후 황춘선 전무의 주재로 경기장질서확립을 강화키위한 임원 회의가 있었다.

8월14일

준준결, 여기에서 승리하면 최소한 동메달을 확보하는 중요한 게임이다.





경기의 열기가 더해감에 따라 각 시도의 경기장에서의 제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황춘성(중앙협회) 전무이사 주재로 경기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각 시도협회전무이사 와 중앙협회 임원등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본부석에는 각 시도협회 회장단과 전무이사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구에는 중앙협회임원이 경찰과 협조하여 출입을 선별하기로 하고 심판의 채점표는 각협회의 전무이사가 요구할시에는 심판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공개할 것등을 협의하고 10시에 회의를 마치고 경기에 들어갔다.

경기는 대전번호 230번게임인 일반부 핀급의 대구 정수택 대 서울 장경수의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247번게임인 일반부 라이트급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국가대표를 역임한 서울의 이재봉 선수와 충남의 고동환의 경기에서 고동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앞돌려차기로 다운을 뺏는등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여 판정승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규정의 득점문제에서, 강한 발차기로 상대방이 다운되어도 채점상 1점이고, 받아차기나 빗차기등으로 배를 차도 1점으로 채점을 하여 타 라운드가 우열을 가리기 어

려울때에 판정이 다운당한 쪽이 판정승으로 판정이 날때 판중으로서의 불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채점기준의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경기 3일째의 판도는 서울이 고등부·대학부의 우세로 1위를 고수하고, 전남은 일반부 우세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고른 입상으로 3위, 대구는 대학부의 우세로 4위를 고수하는 판도로 굳혀가며 309번의 게임을 마쳤다.

10월15일

일반부 핀급 준결승전으로 경남 김명구 대 충남의 이창석선수의 경기로 시작되었다. 11시15분 준결승을 마치고 11시20분부터 결승을 시작 A코트 고등부 핀급 박태형의 판정승으로 부산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B코트에는 플라이급 대구의 석종우대 전남의 김우창의 대전에서 석종우의 판정승으로 대구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결승전에서 눈길을 모는 경기는 경북의 오일남, 충북의 이동준, 제주의 장승화등의 쟁쟁한 국가대표를 역임한 선수들이 일반부의 결승에 올라 노익장의 노련함을 과시하였다.

특히 일반부 라이트헤비급 충북의 이동준대 서울의 이재현의 경기에서는 2회전에서 이동준이 오른발 들어찍기로 KO승을 거두었고 헤비급에서는 백건노장 장승화선수가 전북의 최호성을 맞아 선전, 판정승으로 제주도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명하는 태권도 선수 비판을 일축하는 본보기였다.

'86아시아 게임에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규칙보강, 심판판정의 문제등이 산재해 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



거의가 자기주장에만 급급한 私心을 객관적인 公心으로 전환하여야 하겠다.

심판은 심판의 관정이 무조건 옳으니 따르라는 식이고, 코치는 무조건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생각하여 불만을 토론했음은 피차 자숙하고 양보하여야 할 일이며, 무도인의 측면에서 불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들은 스포츠맨십의 역행이라고 할까.....

옳은 일이라면 강자, 약자 구분없이 강하여야 하겠으며 오히려 약자에게 겸허한 미덕을 보임이 태권도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5일 결승전은 14일의 여세를 몰아 서울의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1위, 전남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1개로 2위. 충남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3위에 입장하

였다.

종합 점수에 따른 순위와 각부의 각급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65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점수표

구분 시도별	종 합 득 점					메 달 득 점				총득점	순 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계	종합득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메달득점		
서울	99	121	91	1035	311	420	620	220	1,260	2,295	1
부산	62	60.5	44.5	556	167	80	60		140	696	11
대구	84	99	94.5	923	277.5	120	120	120	420	1,343	4
인천	52	55.5	45	507	152.5	80	80	20	120	627	13
경기	83	70	58.5	704	211.5	100	100	80	240	944	5
강원	47	69.5	79	650	195.5		60	180	240	890	7
충북	38	75	80	642	193		60	120	180	822	8
충남	84.5	67	95.5	822	247	140	160	240	540	1,362	3
전북	65.5	48	71	614	184.5	40		60	120	734	10
전남	92.5	85.5	104.5	940	282.5	260	260	340	960	1,800	2
경북	76	46.5	59	604	181.5	160	20	120	300	904	6
경남	66.5	57	54.5	592	178	140	40	20	200	792	9
제주	42	50	62	512	154	40	60	80	180	692	12
총 계	892	904.5	939	90101	2735.5	1600	1600	1600	4800	13,901	

●입상자 명단 (고등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시·도
핀	1위	김태형	부산체육고교	부산
	2위	서재강	학다리고등학교	전남
	3위	박창국	풍생고등학교	경기
	3위	이선장	남대전고등학교	충남
플라이	1위	석종우	협성상업고교	대구
	2위	김우창	학다리고등학교	전남
	3위	한용식	오현고등학교	제주
	3위	한명수	동대문상업고	서울
밴텀	1위	왕광연	전남체육고교	전남
	2위	진만식	성동상업고교	서울
	3위	오명식	군산중학교	전북
	3위	김인호	남대전고등학교	충남
페터	1위	김상곤	삼천포고등학교	경남
	2위	서정현	동성고등학교	서울
	3위	하계수	경북체육고교	경북
	3위	임내락	전남체육고교	전남
라이트	1위	김경환	서울체육고교	서울
	2위	김영철	자인고등학교	경북
	3위	김장휘	만경고등학교	전북
	3위	최장조	대동기계공고	경남
웰터	1위	양대승	서울체육고교	서울
	2위	이상호	대구공업고교	대구
	3위	이종학	경북체육고교	경북
	3위	이섭주	시운고등학교	경기
라미들	1위	박용웅	남대전고등학교	충남
	2위	장봉재	전남체육고교	전남
	3위	강성학	남주고등학교	제주
	3위	박성휘	삼천포고등학교	경남
미들	1위	이병찬	향도실업고교	인천
	2위	강수광	풍생고등학교	경기
	3위	김진호	전남체육고교	전남
	3위	신용욱	삼천포고등학교	경남
라헤비	1위	조신	동대문상업고	서울
	2위	조영호	경북체육고교	경북
	3위	임영훈	목포고등학교	전남
	3위	최진성	전북체육고교	전북
헤비	1위	김광섭	동성고등학교	서울
	2위	여준기	경주상업고교	경북
	3위	원중철	풍생고등학교	경기
	3위	정정기	부여고등학교	충남

●입상자 명단 (대학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시·도
핀	1위	최용덕	성균관대학교	서울
	2위	서동현	경상대학교	경남
	3위	김태룡	대구보건전문대	대구
	3위	신재동	조선대학교	전남
플라이	1위	인해진	한국체육대학	서울
	2위	이정희	조선대학교	전남
	3위	장순천	관동대학	강원
	3위	윤희석	제주대학	제주
밴텀	1위	박기승	한국체육대학	서울
	2위	손재열	한국체육대학	충남
	3위	신진철	계명대학	대구
	3위	김재호	동아대학	부산
페터	1위	정해준	공주사대	충남
	2위	장태원	계명대학	대구
	3위	오승재	인천전문대학	인천
	3위	이재호	경희대학	경기
라이트	1위	김찬구	대한유도대학	서울
	2위	이종호	한국체육대학	충남
	3위	이종목	대구교육대학	대구
	3위	조성담	청주대학	충북
웰터	1위	최광근	한국체육대학	서울
	2위	이재기	관동대학	강원
	3위	최공집	성대대학	경기
	3위	나일환	경희대학	경기
라미들	1위	곽병호	조선대학교	전남
	2위	최찬웅	대한유도대학	서울
	3위	김홍진	계명대학	대구
	3위	김구환	청주대학	충북
미들	1위	문원재	한국체육대학	서울
	2위	김병삼	동아대학	부산
	3위	문종국	한국체육대학	경기
	3위	이세도	명지대학	경기
라헤비	1위	이제행	조선대학교	전남
	2위	최원국	제주대학	제주
	3위	윤을균	계명대학	대구
	3위	황신수	대한유도대학	서울
헤비	1위	김재영	한국체육대학	서울
	2위	장정휘	계명대학	대구
	3위	임재억	청주대학	충북
	3위	박형대	조선대학교	전남



●입상지자 명단 (일반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시·도
핀 급	1위	장경수	국군체육부대	서울
	2위	김영화	성남체육관	경기
	3위	육정렬	구례체육관	전남
	3위	이창석	상무체육관	충남
플라 이 급	1위	김현배	구례체육관	전남
	2위	김영식	지현체육관	경북
	3위	박재성	상무체육관	충남
	3위	장해상	전북선발	전북
벤 텀 급	1위	윤웅철	전남체육관	전남
	2위	윤준철	한국스포츠타	울천
	3위	김석찬	간석도장	인천
	3위	허영배	강원선발	강원
페 터 급	1위	이용준	공군제2695부대	충남
	2위	박범수	경기도협회	경기
	3위	최낙문	광양체육관	전남
	3위	임관인	상무체육관	충북
라이 트 급	1위	박춘식	강원선발	강원
	2위	고동환	충남태권도협회	충남
	3위	황영태	제일체육관	대구
	3위	김성원	고흥체육관	전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시·도
웰 터 급	1위	양희석	강원선발	강원
	2위	이상현	육군체육부대	서울
	3위	윤기영	창릉체육관	대구
	3위	김형중	상무체육관	충남
라· 미 들 급	1위	오일남	경천체육관	경북
	2위	황갑복	정우체육관	대구
	3위	안선준	화랑체육관	경남
	3위	민관식	무송체육관	전남
미 들 급	1위	유호경	대한체육관	전남
	2위	김재명	공군제2695부대	충남
	3위	정재석	장풍체육관	대구
	3위	김승환	국군체육부대	서울
라· 헤비 급	1위	이동준	청도체육관	충북
	2위	이재현	한국스포츠타	서울
	3위	김대의	소림체육관	전남
	3위	송응관	충일체육관	충남
헤비 급	1위	장승화	서귀중앙체육관	제주
	2위	최호성	상무체육관	전북
	3위	최재용	제777관리대	대구
	3위	송종화	2695부대	충북

'84

우수선수 선발대회



본회에서는 '84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를 84년 11월 1일~2일 (2일간)까지 국기원에서 거행하였다.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84년도에 본회 및 각 연맹이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1, 2, 3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범위는 고등부 이상의 남자 선수에 한하며 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구분없이 10체급으로 구분하여 각 체급별 토나먼트식 개인전으로 실시하였다.

개회식에서 김운용회장은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여러선수들을 태권도의 핵심멤버로서 어느

대회보다도 모범된 경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태권도의 현황과 미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첫개임은 플라이급 이종창 (성동상고)대 서운석 (동아문상고)의 대전에서 이종창선수의 승리로 시작, 전국대회의 패자들답게 질서정연한 가운데 열전을 벌렸다. 48번 경기인 성동상고 강문섭대 유도대학 김찬규의 대전에서 1회 1분10초에 강문섭선수의 오른쪽중지골이 탈골되어 경기불능으로 판정패를 당한것 외에는 모두가 관정으로 61개임을 치루었다.

62번째임부터 시작된 2일째 경기에서는 페더급 준결승전에서 이희우 (동성고)대 이우선 (동아대)의 경



기에서 경기초반인 1회50초에 이우선 선수의 후려치기가 이희우선수의 얼굴을 강타 K.O 승을 거두었다.

서로가 잘하는 선수들이라 기량이 백중하여 K.O 가 나오기란 그리 쉽지않은 상황에서 K.O 패는 한치의 방심이 빚어낸 표본이랄까?

국가대표선수 진입의 등용문이었던 우수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이여, '86아시안 게임을 위해 더욱 분발하시라.'

본 대회의 지도상은 풍생고교의 강선장 선생이 최우수상 한국체대의 문종국선수가 수상하였다. (한



●입상선수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김철호	동승	고성실고
		2	최우선	동대문	상고
		3	박창국	풍생	고
플라이	급	1	박노식	풍생	고
		2	배홍수	풍생	고
		3	이해진	동아	대
밴텀	급	3	오상훈	성동	고
		1	손재열	한국체대	
		2	임종환	한국체대	
페터	급	3	조성철	동성상고	
		3	오도경	풍생	
		1	이우선	동아대	
라이트	급	2	서정현	동성고	
		3	이희우	동성고	
		3	김민한	동아대	
라이트	급	1	이계웅	한국체대	
		2	김정진	한성고	
		3	김찬구	유도대	
라이트	급	3	박대성	동대문상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웰터	급	1	김용수	동승	고성실고
		2	오정광	풍생	고
		3	최광근	한국체대	
L-미들	급	3	현동수	한국체대	
		1	김윤태	한국체대	
		2	임용택	동성고	
미들	급	3	한권희	한체대	
		3	신상원	풍생	
		1	문종국	한체대	
미들	급	2	강수광	풍생	
		3	이병찬	항도실고	
		3	이경구	동성고	
L-헤비	급	1	김정태	풍생	고
		2	권용주	한국체대	
		3	윤동진	동대문상고	
헤비	급	3	윤계	명대	
		1	장정회	계명대	
		2	정택주	한국체대	
헤비	급	3	김영구	유도대	
		3	안병덕	성동상고	



제 7 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
태권도대회

본연맹에서는 1984년 11월 8일~9일까지(2일간) 국기원에서 19개 대학에 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그동안 본연맹에 회장직을 수행하시던 이 상주(강원대총장)박사께서 아시아연맹회장직만 보임하시고 본연맹 회장직을 사임케되어 새 회장에 김 한주(경기대학장)박사님이 추대되었다.

취임후 바로 갖게된 대회라 여러 가지로 연맹임원들의 노고가 많았다.

8일 11시에 거행한 개회식에서 김한주대회장은 대학은 한국민족의 지성을 대표하고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적 인재를 배양하는 배움의 전당임을 전제하시고, 태권도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여

러분들은 민족무술이며 현대스포츠로서 발전한 태권도를 연구하고, 기량을 개발하여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하시며,

본 연맹이 창설된지 12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시며 대학인의 분발을 촉구하셨다. 작년12월 제1회 국제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것은 세계 대학의 태권도인들의 우의증진과 서로간의 이해를 심화시켜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함이 컸다고 치하하고 본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도 갖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이 곧 구도(求道)의 길임을 인지하고 선전분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대회는 남자부를 A조, B조로

나누어, A조는 각종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로, B조는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로 나누어 선수로서의 등용의 문을 넓혔다.

A조의 대진번호 23번의 한 홍식(제6회 세계대회우승)선수는 한국체대 박영진선수를 맞아 2회 초 뒤처리기로 통쾌한 K.O승을 거두는등 A조경기는 A조대로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였고 B조는 B조대로의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좋은 대회였다.

경기 이틀째에는 인 해진(한국체대)선수는 전 세계태권도 선수권자인 노련한 전 웅환(성균관대) 선수에게 훌륭한 기량을 발휘하여 판정승을 하였다.

본대회에는 매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코치나 감독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였으며, 심판의 판정에 절대

전국대학대항



최영철
(본연맹실행이사
경희대학교교수)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하시며...
본 연맹이 창설된지
12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시며
대학인의 분발을 촉구하셨다.

승복하는등 분위기가 훌륭하였다.

또한 경기중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본연맹 박 병인(태능외과병원장) 이사께서 직접 간호원 1명과 경기시작부터 끝까지 선수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심은 경기자나 임원모두가 마음놓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큰 활역소가 되었음을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대회에 아쉬운점이 있다면 B조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리라는 예상과 반대로 출전선수가 적었습니다.

경기개최일자가 늦었음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대회에는 일반 각대학의 태권도부의 많은 참가있기를 바라며 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신 임원과 심판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대회의 종합성적과 개인성적은 다음과 같다.





A조 남대부 입상자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급	1	최천덕	경기기대대	웰 터 급	1	현동수	한국체육대학
	2	최용덕	성균관대		2	양만수	경상대학교
	3	정명호	인천전문대		3	명규춘	유도대학
	3	안덕기	유도대학		3	전정우	경희대학교
플라 이 급	1	인해진	한국체육대학	라· 미들 급	1	허런	경희대학교
	2	이종도	유도대학		2	김정형	동아대학
	3	전용환	성균관대		3	김대명	대대학
밴 팀 급	3	강호중	경상대		3	임병구	유도대학
	1	김용성	경기희대	미 들 급	1	이기훈	유도대학
	2	한홍식	경기희대		2	문종국	한국체육대
	3	이정호	경기기대		3	김광열	경상대
페 터 급	3	손재열	한국체육대		3	최남규	동아대
	1	이우선	동아대학교	라· 헤비 급	1	강승우	경희대학
	2	이중열	경상대학교		2	최현희	유도대
	3	이재효	경기대학교		3	김현병	지대
라이 트 급	3	손영규	한국체육대		3	김병삼	동아대
	1	박호상	경기대학교	헤 비 급	1	김재영	한국체육대
	2	김찬구	유도대학		2	이완희	성균관대
	3	오상운	경기대학교		3	장정휘	계명대
	3	조임형	유도대		3	강용구	명지대



B조 남대부 입상자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플라이급	1	윤보현	명지대학
	2	손찬식	인천전문대학
	3	편재범	홍익대학
밴텀급	3	한영준	홍익대학
	1	이정일	인천전문대학
	2	방제영	유도대학
페더급	3	양영진	유도대학
	3	김성준	경기대학
	1	김성호	유도대학
더급	2	황봉호	인천전문대학
	3	민경인	유도대학
	3	이정우	목포대학
라이트급	1	최한규	목포대학
	2	한상배	인천전문대학
	3	손상현	인천전문대학
웰터급	3	김경래	인천전문대학
	1	한승환	인천전문대학
	2	손기완	동양공전
더급	3	신한오	인천전문대학
	3		

■단체성적

구분	등위	학교명
남대부A조	1위	경희대
	2위	한체대
	3위	유도대
	감투	동아대
남대부B조	1위	인천전대
	2위	유도대
	3위	목포대
	감투	명지대
여대부	1위	경희대
	2위	성신여대
	3위	상명여대
	감투	인천전대

※플린급과 라이트미들급 이상은 경기를 하지않았음.



여대부 입상자

■개인성적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플라이급	1	도 재 선	성 심 여 대
밴텀급	1	오 명 화	경 회 여 대
	2	오 혜 진	성 심 여 대
페더급	1	임 신 자	경 회 대 학
	2	서 유 정	성 심 여 대
	3	남 미 리	이 화 여 대
라이트급	1	최 선 자	경 회 대 학
	2	김 순 옥	상 명 여 대
	3	손 순 회	이 화 여 대
웰터급	1	전 오 순	경 회 대 학
	2	조 순 기	인 천 전 문 대 학
	3	박 선 옥	성 신 화 여 대
미들급	1	정 영 숙	성 신 여 대
	2	오 현 진	상 명 여 대
헤비급	1	손 지 회	성 신 여 대
	2	장 윤 정	성 신 여 대 학

구 분	성 명	학 교	명 비	고
최우수선수상	강 승 우	경 회 대	라이트헤비급	
우수상	이 건 우	동 아 대	페더급	
지도상	김 광 성	성신여대교수		



※여대부는 핀급, 라이트미들급, 라이트헤비급 선수부제로 경기를 하지않았음.

제10회 연맹회장기 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



본 연맹에서는 84년 10월 2일 국기원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 이상빈 대회장은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이요 내일의 기둥이라고 어린이들의 장래를 격려하며, 본 대회는 겨루기 경기뿐 아니라 태권도 정신과 예의를 포함한 품새, 기본 발차기등을 고루겨루어 보는 종합대회로서 태권도의 바른 무도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의 깊은 대회임을 강조하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격려사에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여러 어린이들은 태권도를 통하여 씩씩하고 건강하여 옳은 일에 앞장서고 윗 어른들 말씀 잘 듣는 모범생들이라고 믿는다고 전제하시고, 태권도 기초과정의 제반사항을 고루 겨루는 종합대회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격려하셨다.

또한 「세살 버릇 여든살까지간다」는 속담의 말씀을 인용 어릴때의 습관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태권도의 정신인, 예의, 양보, 극기, 술선수법의 정신으로 애국 애족하는

대한의 기둥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본 대회 겨루기부분에 출전한 선수들은 10월 1일 오후에 체제를 완료하였다고 9시부터 태권도 이론부분의 시험에 들어갔다. 시험은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으로 태권도의 기본정신,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품새동작, 기타 등으로 태권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제를 한규인 (대한태권도 협



정 찬 진 사범
(본연맹경기부고위원장)
(개포국민학교사범)



단체대항 대회



회 홍보실장) 기술심의회의장, 한 상구(국교교사) 총무이사가 출제를 하였다.

10시부터 품세와 기본발차기 심사를 실시하였다. 품세는 공개채점으로 체조의 채점방식을 도입, 5점~10점까지의 채점표를 만들어 6명

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뺨말을 들어 최고점수 1명과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한 4명의 점수를 합산 채점을 하는 방법을 실행하였다.

본 대회에서는 겨루기 160명 중 합부분 215명으로 365명이 참가 하였다.

● 단 체 성 적 ●

순 위	학 교 명
1 위	서울 미동 국민학교
2 위	서울 남산 국민학교
3 위	서울 광희 국민학교
장려	서울 선곡 국민학교
장려	서울 배재 국민학교
장려	서울 신석 국민학교
감투	서울 개포 국민학교
감투	서울 성남 국민학교
감투	서울 마천 국민학교

● 품세부문 입상자 ●

구분	성 명	학 교	구분	성 명	학 교
1	김재준	남 산	4	오정훈	부산배재
	은 황해숙	개 포		김승타	미 동
	은 엄경호	남 산		권대구	미 동
	동 오현명	개 포		박광훈	신 곡
	동 권운상	선 곡		권기수	은 로
2	김 진	신 석	5	김성곤	남 산
	김경환	선 곡		은 김기영	미 동
	김성우	미 동		은 송성훈	선 곡
	김대용	부산배재		이재원	남 산
	장경익	"		김민상	미 동
3	김경준	"	6	김경원	남 산
	김규호	선 곡		김성일	미 동
	김영철	미 동		은 권성수	미 동
	이상욱	선 곡		정학현	미 동
	김주일	미 동		장준원	남 산
3	김동현	신도립	6	이정운	부산배재
	김민호	신도립		권영호	남 산
3	이호진	부산배재			

● 체급별 입상자 ●

체급	등위	성 명	학 교	체급	등위	성 명	학 교
핀	1	국정훈	성남	라	1	권영호	남산
	2	황교찬	신석		2	김희성	면목
	3	강기은	마천		3	김윤형	광희
금	3	박준철	문산	금	3	임정식	성남
	1	김건일	광희	웰	1	박재홍	교동
	2	이 호	개원		2	권순정	광희
플	3	원종환	면목		3	송동호	마천
	3	진광섭	성남	금	3	김태호	수색
	3	서덕수	면목	미	1	도재호	개포
텀	2	최상갑	진부		2	최성호	교동
	3	이준희	잠동		3	이봉준	신석
	3	맹영석	개원	금	3	민동현	마천
페	1	진동환	광희		1	김혁원	신석
	2	김성오	면목		2	이경환	면목
	3	김용구	신석	비	3	김보성	신도립
터	3	오경환	면목		3	박중희	마천

제10회 연맹회장기 이론시험 (1·2학년)

() 번 이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 국기에 대한 맹세다. () 안에 알맞는 말을 써넣어라.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과 ()을 바쳐 ()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국기는 어디에 보관하여야 좋은가?.....()
① 책상서랍 ② 장롱 ③ 국기함 ④ 상자
- 체육관(도장)에 들어갈때 제일먼저 해야 할 것은?.....()
① 기본동작 연습 ② 도복갈아 입기 ③ 국기에 대한 경례 ④ 사범님께 인사
- 애국가의 가사는 몇절로 되어 있나?.....()
① 1절 ② 2절 ③ 3절 ④ 4절
- 태극기가 보이지 않을때 애국가가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태극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좋다.
② 차렷자세로 돌리는 방향을 향하여 엄숙히 서있다.
③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 품중(단중)을 발급하는 곳은?.....()
① 세계태권도 연맹 ② 대한태권도협회 ③ 국기원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였나?.....()
① 해방이 되고부터 ②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③ 6.25동란 후
- 품세나 거루기를 할때 처음부치는 구령은?.....()
① 열중쉬엇 ② 준비 ③ 차렷
- 태극 3장의 2번째 동작 이름은?.....()
① 왼발앞차고 몸통 지르기
②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어 오른 왼쪽먹 몸통지르기
③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서기 오른 왼쪽먹 몸통지르기
- 얼굴의 급소는?.....()
① 명치 ② 인중 ③ 낭심 ④ 머리
- 태극 4장에 나오는 발차기는?.....()
① 두발상단차기 ② 뛰어앞차기 ③ 옆차기 ④ 범서기
- 태극 1장의 맨처음 동작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앞서기로아래막기 ②앞굽이로아래막기 ③앞서기로지르기 ④앞굽이로지르기
- 태극 1장의 동작수는?.....()
① 20 ② 16 ③ 18 ④ 22
- 국민학교 어린이는 몇품 심사까지 볼 수 있나?.....()
① 1품 ② 2품 ③ 3품 ④ 4품
- 급수와 띠의 색깔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2급-빨강띠 ② 8급-파랑띠 ③ 6급-파랑띠 ④ 무급-흰띠
- 1988년도 올림픽은 어느 도시에서 열리나?.....()
① 서울 ② 동경 ③ 로스앤젤레스 ④ 파리
- 우리나라 나라꽃은?.....()
① 목화꽃 ② 연꽃 ③ 무궁화 ④ 진달래

제10회 연맹기 이론시험 (3·4학년)

() 번 이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안에 쓰시오.

1. 애국가는 4절로 되어 있다. 2절의 가사를 쓰시오.

() () () () ()

후렴: 무궁화 삼철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다음은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을 간단히 그린 것이다. 바른 것은? ()

①

②



3. 태극기가 낚아서 못쓰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

① 쓰레기통에 버린다. ② 걸레로 쓴다. ③ 태워서 깨끗이 없앤다.

4. 태극 3 장은 몇개 동작인가? ()

① 18 ② 20 ③ 21 ④ 23

5. 다음중 품세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

① 시선 ② 기합 ③ 주먹의 크기 ④ 중심이동

6. 태극 8 장에 나오는 발차기가 아닌것은? ()

① 앞차고 뛰어 앞차기 ② 옆차기 ③ 두발 당상차기 ④ 앞차기

7. 우리몸의 급소가 잘못 찌쳐어진 것은? ()

① 얼굴-인중 ② 몸통-명치 ③ 아래-낭심 ④ 가슴-관자놀이

8. 제24회 올림픽은 어느 도시에서 열리나? ()

① 서울 ② 뉴욕 ③ 파리 ④ 런던

9. 태극 4 장의 5 번째 동작은? ()

① 아래막기 ② 앞차고 아래막기 ③ 제비품목치기 ④ 옆차고지르기

10. 태극 8 장은 모두 몇 동작인가? ()

① 22 ② 23 ③ 24 ④ 25

11. 서기 동작중에서 발과 발의 거리가 가장 먼것은? ()

① 범서기 ② 앞서기 ③ 편히서기 ④ 앞굽이

12. 엄지손가락 쪽의 있는 팔목의 이름은? ()

① 등주먹 ② 안팔목 ③ 바깥팔목 ④ 손날

13. 옆차기는 몸통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는 것인가? ()

① 얼굴과 어깨부위 ② 배와 가슴부위 ③ 허벅지와 허리부위

14. 앞차기를 할때 발의 공격부위는? ()

① 발가락 ② 앞축 ③ 뒤축 ④ 발바닥

15. 승품(승단) 심사를 주관하고 품증을 발급하는 곳은? ()

① 태권도협회 ② 국기원 ③ 체육관(도장) ④ 세계연맹

16. 국기봉의 끝에 달려있는 것은 무슨 꽃봉오리인가? ()

① 연꽃 ② 무궁화 ③ 목단 ④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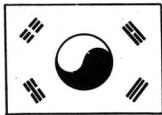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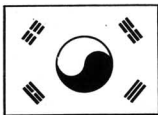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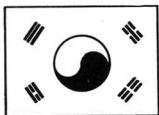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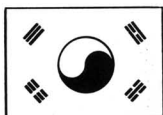
17. 이번 태권도대회는 제10회 () 연맹회장기 대회이다.

제10회 연맹회장기대회 이론시험 (5,6학년)

() 번 이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1. 다음은 태극기를 간단히 그린 그림이다. 재가 바르게 그려진 것은?.....()
 ① ② ③ ④



2. 애국가 3절과 4절을 쓰시오. (후렴은 생략)
 3절: ()
 4절: ()
3. 태극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는?.....()
 ① 2 : 3 ② 3 : 2 ③ 3 : 5 ④ 5 : 3
4. 태권도의 정신을 신라시대의 화랑도정신과 같다 하였다.
 화랑도의 정신인 다음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라.
 ㉠ 事君以忠 (사군이충) :
 ㉡ 事親以孝 (사친이효) :
 ㉢ 交友以信 (교우이신) :
 ㉤ 臨戰無退 (임전무퇴) :
 ㉥ 殺生有擇 (살생유택) :
5. 태권도의 “태권”은 몸의 부위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중 맞는 것은?.....()
 ① 발과 머리 ② 발과 주먹 ③ 발과 무릎 ④ 손과 손날
6. 나의 몸무게가 31kg이라면 무슨 체급인가?.....()
7. 국민학교 태권도 경기에는 8체급이 있다. 그중 제일 무거운 체급을 () ()
 이라고하고 제일 가벼운 체급을 () ()이라 한다.
8. 태극 품세중에서 뛰어 앞차기가 나오는 품세는?.....()
 ① 태극 7장 ② 태극 8장 ③ 태극 5장 ④ 태극 3장
9. 주심과 부심의 채점표를 확인하고 승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10. 태권도에서 우리 몸을 세부분으로 나눈다. 각 부분의 이름을 써라.
 ()
11. 국민학교 5학년 체육교과서에 나와 있는 품세는 태극 몇장인가?.....()
12. 경기를 할때 심판원 3명이 보는 것을 3심제라고 하고 5명의 심판원이 보는 것을 () 라 한다.

제10회 연맹회장기대회 이론시험 답안

● 1·2학년용

1. ㉠: 민족, 마음, 몸, 충성 2. ㉡: ③ 3. ㉢: ③ 4. ㉣: ③ 5. ㉤: ② 6. ㉥: ③ 7. ㉦: ②
 8. ㉧: ② 9. ㉨: ② 10. ㉩: ② 11. ㉪: ③ 12. ㉫: ① 13. ㉬: ③ 14. ㉭: ③ 15. ㉮: ② 16. ㉯: ①
 16. ㉰: ① 17. ㉱: ③

아르니스(Arnis)賞수상

〈필리핀 스포츠 공로상〉

김운용 총재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스포츠 최고 공로상의 아르니스賞을 받았다. 김총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석했다가 그동안 태권도 보급을 통해 필리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 필리핀 육군참모총장인 Fabian C. Ver 장군(Arnis 상의 회장)을 통해 아르니스賞을 받았다.

이 상은 10년전 Marcos 대통령 아들이며, 현 주지사의 Marcos 2세가 받은 후 두번째로 수여된 필리핀 최고의 공로상이다.



Fabian C. Ver 육군참모총장이 김총재에게 Arnis 상을 수여하고 있다.

● 3 · 4 학년용

1. ㉠: 남산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2. ㉠: ① 3. ㉠: ③ 4. ㉠: ② 5. ㉠: ③ 6. ㉠: ② 7. ㉠: ④ 8. ㉠: ① 9. ㉠: ③
10. ㉠: ③ 11. ㉠: ④ 12. ㉠: ② 13. ㉠: ② 14. ㉠: ② 15. ㉠: ② 16. ㉠: ②
17. ㉠: 한국국민학교태권도

● 5 · 6 학년용

1. ㉠: ① 2. ㉠: 3 절=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달은 우리가슴 일편담심일세
4 절=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3. ㉠: ② 4. ㉠: ㄱ. 나라에 충성 ㄴ. 부모님께 효도 ㄷ. 친구간의 믿음 ㄹ. 싸움에서 물러나지않음
- ㄹ.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음. 5. ㉠: ② 6. 페: 페터금 7. ㉠: 해비금, 핀금 8. ㉠: ② ㉠:
9. ㉠: 배시 10. ㉠: 아래, 몸통, 얼굴 11. ㉠: 1장 12. ㉠: 5심체

제1회 인천직할시 교육감배 쟁탈대회



이 규 홍
경기보과위원장



●종합성적●

	1 위	2 위	3 위
국교부	효성국민학교	구월국민학교	논현국민학교
중등부	부평중학교	선인중학교	광성중학교
고등부	항도실고	성현공고	선인고등학교
여자부	성문여상	선화여중	상인천여중

국민학생부 입상자

체 급	1 위	2 위	3 위	3 위
핀 급	문성준 (동부국교)	이수진 (효성국교)	최영호 (구월국교)	오창영 (논현국교)
플 라이 급	최일환 (논현국교)	최유식 (만수북)	김정태 (신현국교)	유승만 (구월국교)
벤 팀 급	박창희 (동부국교)	김민기 (용현국교)	이주성 (만수국교)	이용철 (만수국교)
페 터 급	오하영 (논현국교)	양태현 (효성국교)	강동석 (논현국교)	송종수 (만수국교)
라 이 트 급	고지영 (구월국교)	조영근 (송의국교)	이효선 (부평남)	이학선 (신현국교)
웰 터 급	유창덕 (문학국교)	구본옥 (효성국교)	최덕경 (용현국교)	윤종철 (청천국교)
미 들 급	정현철 (구월국교)	이동기 (효성국교)	김재덕 (용현국교)	유용조 (효성국교)
헤 비 급	노평환 (구월국교)	김경득 (만수국교)	조종선 (남부국교)	공영돈 (신광국교)

중학생부 입상자

체 급	1 위	1 2 위	3 위	3 위
핀 급	장주명 (부평중학)	강희영 (선인중학)	김학수 (송도중학)	지형근 (부평중학)
플 라이 급	박승찬 (부평중학)	김재홍 (부평중학)	김경일 (선인중학)	김승우 (광성중학)
벤 팀 급	우 군 (부평중학)	천영민 (선인중학)	윤정섭 (선인중학)	김창훈 (부평중학)
페 터 급	오승철 (부평중학)	전명배 (부평중학)	서원삼 (부평서중)	이상화 (부평중학)
라 이 트 급	유성훈 (부평중학)	장익성 (부평서중)	김관석 (상인천중)	박종철 (선인중학)
웰 터 급	배서준 (부평중학)	이오환 (동산중학)	김동신 (광성중학)	최영준 (효성중학)
미 들 급	장윤주 (부평중학)	김준근 (부평중학)	손정필 (상인천중)	
헤 비 급	최훈중 (광성중학)	황순갑 (선인중학)	김진수 (대건중학)	도한진 (부평중학)

본회에서는 1984년 11월 19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신설된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를 거행하였다.

이날 초·중·고·에서 참가한 355명의 선수들은 초겨울의 추위도 잊은 채 열전 하루를 보냈다.

개회식에서 최병삼 대회장은 태권도가 '86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은 모든 태권도인이 경하여야 할 일이며, 더욱 더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여야 함은 물론, 저변확대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88서울 올림픽의 시범경기 종목으로서 올림픽 채택 문전에 서 있는 태권도의 면모를 손상하는 일 없도록 모든 경기단체의 모범이 되

어 줄것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김 회장은 학교 태권도 육성 발전을 위해 본 대회를 후원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대회사에 임하였고, 본대회를 적극 후원하여 주신 박태원(삼우기계株) 사장과 안상원(효성국민학교) 교장, 구자영(남부국민학교) 교장, 김형선(상인천여중감독) 선생께 감사패를 전달 고마움을 전하였다.

이날 김천홍 교육감이 경기장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시는등,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특히 개회식 식전행사로 진행한 효성국민학교 박문식선생의 지도로



실시한 어린이 고적대의 행사는 많은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각부 종합성적과 체급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부 입상자

체 급	1 위	2 위	3 위	3 위
핀 급	류희숙 (문성여상)	류혜숙 (문성여상)	박선희 (상인천〃)	조조혜경 (선화여중)
플 라이 급	조상희 (문성여상)	김성순 (선화여중)	정은경 (상인천〃)	박지영 (선화여중)
벤 텀 급	박연실 (문성여중)	박경희 (선화여중)	권미자 (문성여상)	박미정 (상인천〃)
페 터 급	박동선 (상인천〃)	김현아 (선화여중)	김미선 (상인천〃)	오미란 (문성여상)
라 이 트 급	김경자 (문성여상)	오미자 (선화여중)	하은영 (선화여중)	한영미 (문성여상)
웰 터 급	박영선 (문성여상)	정혜경 (문성여상)	최인숙 (상인천〃)	
미 들 급	김영애 (문성여상)	공미현 (문성여상)	강설희 (선화여중)	이영랑 (문성여상)
헤 비 급	최지숙 (문성여상)	박양미 (문성여상)	박문실 (문성여상)	

고등부 입상자

체 급	1 위	2 위	3 위	3 위
핀 급	연경민 (향 도)	최정현 (향 도)	김현구 (성 현)	안상오 (제물포고)
플 라이 급	임남순 (향 도)	천성태 (성 현)	김낙규 (정 석)	
벤 텀 급	신영만 (향 도)	이태구 (선 인)	김영일 (성 현)	백광일 (향 도)
페 터 급	최윤석 (향 도)	심소혁 (성 현)	이윤중 (향 도)	조태철 (인하부고)
라 이 트 급	박종대 (광 성)	이승원 (향 도)	이창구 (성 현)	
웰 터 급	연진호 (선 인)	박종성 (성 현)		
L-미들급	정대현 (성 현)			
미 들 급	이병찬 (향 도)			
L-헤비급	주인식 (성 현)	이승원 (향 도)		
헤 비 급	서영관 (향 도)	정석준 (성 현)	김영범 (선 인)	



○前・国会長 鄭重平氏 모습○

○局長 鄭重平氏(왼쪽)이 ○장관 신상희씨에게 제독회期를 인제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선수들 격려하는 ○장관 신상희

84년 하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강호준을 격려하고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배경도의 김지태, 김준태 선수의 모습)

政治와 스포츠

成均館大學校 師範大學

體育教育學科

教授 金相九



金相九 教授

전전한 인격형성과 국민체력증강을 위하여
스포츠는 家庭, 學校, 社會團體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성교육으로 정치적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국가적 사명감을 상징화 함으로써.....

I. 스포츠와 政治의 야누스적인 결합

스포츠는 人間的 생리적 활동이나 직업적 노동과 같이 生命을 維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人間生活에 있어 어떠한 意味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직접, 간접으로 人間の 欲求를 충족시켜 주는 生의 活動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 기관, 국가로부터 강요되거나 요구되어질 수 없으며 오직 個人的 건강유지, 체력증진, 레크리에이션의 한 方法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는 古代, 中世, 近代, 現代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個人的인 次元에서 그치지 않고 전투력 향상, 국가친선을 병자한 國力과시, 외교수단, 국민통합 단결의 方法으로 대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政治, 外交, 軍事, 教育, 社會, 經濟의인 目的에 따라 야누스적인 두 얼굴을 갖게되고 時期에 따라 변모하는 카멜레온의 속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Natan은 그의 〈Sport and Politics〉에서 「현대 스포츠에서 政治의인 暗示는 피할일이 없으며 政治性이 배제된 스포츠 組織이란 存在하지 않는다.」라고 극언하였다.

이는 19세기 이후 産業과 技術의 發達과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하여 스포츠도 國家, 民族, 事業, 自動車, 衣裳, 英雄의 概念, 倫理的 價値 등 전혀 異質의인 要素에까지 관여하면서 발전되어왔고 특히 정치와는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政治와 스포츠는 美·中共 평풍의교와 같

이 國家의 關係正常化의 外交手段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전쟁과 같이 戰爭발발의 原因으로,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의 宣傳手段으로, 國民感情의 상승효과를 이용한 國民總和의 수단으로 쉽게 영합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 스포츠가 「Peace on Earth-War in Sport」라 하여 폭탄없는 戰爭의 場으로서 國際競技의 勝利가 곧 國威宣揚과 名譽, 國力으로 직결된다

는 취지하에 世界 各 國家는 政治的인 次元에서 行 政的 制度的 財政的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가 政治的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비열한 政權이나 현명한 政府가 自國의 政治理念이나 政治体制을 維持하는데 중요한 道具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른바 〈스포츠의 政治的 中立〉 또는 〈政治로부터의 스포츠의 獨立〉이라는 슬로건은 실 제 해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II. 스포츠의 政治化 方法

現代社會가 복잡 전문화됨으로써 政治全般에 對한 이해가 어렵고 또 귀찮아졌기 때문에 一般大衆은 政治의 無関心を 갖게 된다.

다시말하면 複雜한 社會에 불안, 고독, 궁핍에 허덕이는 大衆은 理性을 잃고 現實政治에 對한 좌절, 무력감, 절망감을 느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合理的, 自主的인 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주의(Nihilism)와 냉소주의(Cynicism)에 빠져 權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無力感에 빠진 大衆에게 政治權力이 先進 國家 建設, 一等國民 創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를 利用하는 것이다. 이의 方法으로 1) 象徵, 2) 同一化, 3) 操作 등이 있다.

1. 象 徵

象徵이란 意味와 意義를 가지는 모든 것으로 그 自体와는 다른 어떤 것을 대리하고 지칭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특히 政治象徵은 어느 정도 感情化되어 있는데 권력에 對한 象徵의 關係는 상징화된 事物이나 狀態보다는 오히려 그 상징이 조성하는 感情이나 또는 行動에서 생긴 結果일 수 있으며, 象徵의 支持를 感情化시켜 줌으로써 國家와 社會를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Huizinga는 스포츠의 상징적인 面은 誇示와 儀典的인 要素를 포함하고 있어 놀이의 경우 사회의 組織化를 촉진하며, Cailloris도 스포츠가 象徵의 機能을 할 때는 이미 놀이가 아니며, 制度와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경우 地域緣故制에 의하여 각 팀이 地方別로 구성됨에 따라 地方主義(Localism) 分離主義(Sectism)가 고조되어 간다.

한 팀에 대한 지나친 성원과 지원이 他팀에 대한 否定的인 측면으로 나타나 불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후 점차적으로 스포츠가 유희성, 오락성을 떠나 〈팀〉 〈지방〉 〈조직〉으로 象徵化되어 버리는 것이다.

2. 同一化

同一化란 어떤 象徵 使用者가 그의 에고(ego)를 여러 에고의 집합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상징화하는 과정이다.

觀念을 통하여 〈불특정 일반인〉의 意思를 強制나 命令 없이 〈특정인 우리(We)〉의 意思로 만드는 것인데 관념이 생기는데까지의 과정을 상징의 제1과정이라 한다면 관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의 제2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民族主義者다」 「우리는 X×팀의 팬이다」라는 同一化의 진술은 〈民族〉과 〈X×팀〉의 象徵에 대한 行動誘發인 것이다.

또한 同一化는 行動 패턴의 同質性을 形成할 뿐만 아니라 社會의 同意性을 조래하는 근거이기도 한데 이에 는 바로 似而非環境이라는게 이용된다.

스포츠라는 似而非環境을 大衆과 동일화 시킴으로써 스포츠의 승리야말로 자신의 자아성취이며 위대한 國家建設과 民族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중은 특히 自己가 속한 集團이나 社

會에 동일화되고 싶어 하며 또는 실제 소속되고 싶어하는 모델, 즉 스포츠 영웅이나 스포츠 기업, 스포츠 팀과 동일화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의를 認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3. 操 作

操作이란 設定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意圖的으로 反應을 統制하고 制御하며 일정한 方向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상징 調整을 말한다.

조작에는 특히 〈기도된 效果의 조성〉을 위해 權力이 作用되기도 한다.

권력이란 自己가 欲求하는 方向으로 어떤 他人이나 集團의 행위를 수정할 수 있는 특정한 타인과 집

단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특수 이익집단이 가까운 미래에 관계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 說得的 宣傳보다는 선동적 선전에 호소한다. 단시간내에 效果를 요구하거나 또는 상징을 조성하고자 할 때 설득적 선전보다는 선동적 선전이 발동되는 경향이 여기에 있다.

이에는 단순히 행정, 조직적인 指導나 指示도 있지만 매스컴을 이용하기도 한다.

매스컴은 단순히 정보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여 파급될 때 파급의 승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중적 操作에 있어 주요 수단이 된다.

오늘날 스포츠는 국가간의 儀式的인 투쟁으로 묘사되게 형성화된 스포츠 軍人으로 조작되는 것이다.

Ⅲ. 매스컴과 그레삼법칙

매스컴이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접근에 가장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매스컴의 수용과정이고 둘째, 매스컴의 政治的 態度와의 관련성이 다.

매스컴은 미디어를 통해 多量의 메시지를 수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경험할 것인가는 受容者 개인에 의해 좌우 되겠지만 수용자의 선택체험은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에 의하여 「미디어의 強制」에 놓이게 된다.

특히 國家가 미디어 組織을 政體의 維持와 권력의 擴充을 위해 매스컴을 검열, 감독, 통제하고 政府와 여당이 자신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어떤 압력단체나 매스컴 회사가 自己의 利益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TV 스포츠 프로그램 중 시청자들이 주

로 보고 싶은 종목으로 스킨스쿠버 태권도, 승마, 미식축구, 휘저스케이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있는 인기종목인 야구, 축구, 프로권투 등에 치우치는 것이나 방송국의 방침이든 국가와 정부의 立場을 고려한 선의의 배려이든 이기면 방망하고 패하면 방명하지 않는 政治性이 이 경우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동일 주제에 대한 공통 관심으로 결합하려는 의식이 생기므로 실제로 매스컴에 의해서 조성되는 환경이 쉽게 고조됨으로서 이른바 밴드왜건效果(Bandwagon-Effect)가 작용하게 된다.

이 밴드왜건效果는 시청자가 보고 싶은 種目에 다소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즐겨 보고 있다는 종목을 TV 방송국이 중점으로 방영하고 있는 야구, 프로권투, 축구, 농구, 배구, 순과 일치하고 있는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Ⅳ. 스포츠의 政治化 過程 內容

世界 各 國家가 時代와 政治體制를 초월하여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 동기나 목적은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강력한 國民總和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와 이데올로기 선전과

정치체제의 合理化를 도모하는 등 肯定的이고 否定的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

1. 강력한 軍隊 養成

국가가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한 강력한 군대양성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古代에 있어서도 自己 部族을 外部로 부터 保護하기 위한 對策으로 武術 위주의 달리기, 뛰기, 던지기, 弓箭, 蹴鞠, 競渡, 投石, 레슬링, 권투, 씨름의 각종 스포츠 형태가 軍事訓練으로 보충되었다.

그외 中國, 印度, 이집트, 페르시아 등 古代社會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강건한 신체단련과 戰鬥能力向上을 통한 국가에 충실한 국민양성에 목표를 두고 행해졌다.

소련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무를 가져야 하며 스포츠 뒤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목표가 있다.

스포츠라는 외투아래 군사훈련을 수행코자 하는 생각은 동구 공산블럭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原則이다. 군사스포츠는 히틀러 時代나 그 이전의 독일로 거슬러 올라가도 발견되어진다.

2. 이데올로기 및 政治体制 強化

우선 한 국가의 政治가 어떤 政治理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스포츠 전반의 方向을 결정한다.

따라서 民主主義, 共產主義, 帝國主義, 專制主義下의 스포츠는 각각 다른 모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많은 스포츠단체를 철저히 국가 통치하에 두고 校外俱樂部를 히틀러 유우겐트 少年・少女聯盟, 유스호스텔연맹에 두기도 하고 노동자의 단체로서 Kraftdurk Freude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히틀러는 후에 모든 스포츠단체를 Durch Reichsbund für Leibesübungen (DRL)에 합병하여 국가목표에 봉사하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소련의 경우에서도 「우리 운동가의 승리는 소련의 사회주의문화가 자본주의문화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하고 國際의인 자존심과 날카로운 民族意識을 일으킨다. 스포츠는 소련의 사회제도를 自國民에 合理化하는 선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UNESCO 연구보고서 「The Peace of Sport in Education」에서는 스포츠에 政治的인 임금을 불어 넣는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 경기도 사실은 두 강대국이 국력을 평가하는 실험 장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3. 外交的인 手段

1938년 독일이 일본에 선수단을 파견할 당시 독일新聞은 일제히 「이는 相互 國家 親善이며 빛나는 政治的 勝利」이다라고 시사하였다. 이는 결국 스포츠가 政治的인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1971년 4월 냉전상태에 있던 전미국과 중공이 탁구 선수단 방문으로 상호간의 봉쇄정책을 전면 해제하고 美・中 관계가 새로운 序章을 펴는데 스포츠가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1972년 뮌헨올림픽 개최도중 대한체육회 김택수 회장과 북한올림픽위원회 오현주위원장의 7・4 공동성명에 따라 남북한 스포츠 교류 실시 합의를 공동 발표한 것이나 1973년 8월 전혀 政府間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소련에 한국이 들어가 유니버시아드大會가 열린 모스크바 레닌스타디움에 태극기를 올렸고 1984년 3월 한국의 테니스 선수단이 中共의 皆明市에 데이비스컵 테니스大會에선전을 치루기 위해 入國한 사례도 들 수 있다.

올림픽 대회에서는 제16회 대회(멜버른, 1956년)때 이집트가 수에즈사태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불참하였고, 中共은 대만 政府를 독립된 국가로 참여시키는 것은 中國을 고의적으로 분할하려는 술책으로서 중국 인민과 선수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외면하였고 제21회 대회(몬트리얼, 1976년)는 주체국인 캐나다가 중공 접근 정책에 따라 자유중국에 대해 IOC가 인정한 국호인 ROC와 國旗의 사용을 금지시켜 대만정부가 결국 불참을 선언하였다.

4. 國民總和

古代 올림픽경기도 공동신을 모신 신전을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반도에 있는 수백의 폴리스가 타민족의 침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민족간의 단합을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음은 대단히 유명하다.

또한 19세기 Nachtgall, Ling, Jahn등에 의하여 선풍을 일으켰던 體操의 도입도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단합을 시도한 것이다. 덴마크의 Nachtgall은 영국과 충돌, 나폴레옹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가 대패하여 곤경에 빠졌었던 조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국민학교체조 교본을 만들어 보급하였고 Jahn의 독일체조 또한 1914년 독일이 나폴레옹 침입으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자 허약한 독일의 청소년에게 참다운 조국애와 불타는 민족성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투르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체의 政治性을 배제하고 人類의 상호 이해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하에 탄생하였던 근대올림픽경기도 1896년 대회를 부활시킨 이래 政治가 개입되지 않은 時代는 거의 없었고 쿠베르탱 자신의 창설 동기도 당시 프랑스 靑年의 사기 앙양이라는 政治의 目的이 있었음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제11회대회(베를린, 1936년)에서 일제하에치 있던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하자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同胞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東亞日報의 <日章旗 抹消 事件>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5. 國民體力 増進

현대에 들어 各 國家들이 나름대로의 傳統과 理念, 政策에 따라 다양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체육 및 스포츠 육성에 대한 결의와 실천은 대단하다.

예를 들어,

1) 미국의 경우 1954년 Kraus Weber Test라는 体力測定方法을 실시하여 미국의 청소년이 유럽이나 日本의 청소년보다 체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結果가 밝혀져 1956년 대통령 직속으로 <大統領 靑少年 体力向上 委員會>를 발족시켰고, 케네디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組織, 行政, 施設, 指導者 양성, 자료수집, 홍보활동, 指導等 다각적인 政策을 실시하였고,

2) 독일에서는 1956년 체육제건운동을 전개키로 하여 학교체육 촉진권고안(Empfehlungen Zur Förderung der Leibeserziehung in den Schulen)을 발표하고 1960년 황금계획각서(Memorandum Zum Golden Plan für Gesundheit Spiel und Erholung)에 의한 國家적 차원에서 15개년 綜合計劃을 착수하였고,

3) 프랑스에서는 1962년 <스포츠 사회체육 시설건설계획>을,

4) 소련에서는 1930년대 스포츠의 대중화 政策에 따라 1931년 G. T. O制度, 1934년 B. G. T. O制度를,

5) 동독은 스포츠 과학화와 스포츠인에 대한 특별 우대를,

6) 일본에서도 1960년 스포츠振興法 제정하는 등, 이를 통하여 각기 스포츠와 국민체력 향상에 전력하고 있다.

V. 政治와 스포츠 결합의 이상적인 모델

스포츠는 政治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이상주의자들은 말하지만 이것은 古典的인 이론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政治가 스포츠를 이용하였던 역사적인 실례는 순수한 스포츠의 理想을 타락케하는 결정적인 要因이 되었으나, 스포츠도 人類生活에 쉽게 정착 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스포츠가 政治에 이용당 당하는 종속변수로 결합되는 것을 지양하고 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理念을 바탕으로 政治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議論을 바탕으로 政治와 스포츠 결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상해 보면,

1)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민체력증강을 위하여 스포츠는 家庭, 學校, 社會團體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

성교육으로 정치적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국가적 사명을 상징화 함으로써,

2) 강력한 군대양성과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의 국민적 수렴을 위하여 스포츠는 각급 학교나 직장의 운동부, 사회단체, 스포츠 관련 연구소, 매스컴 등 각종 역량을 훈련과 技術開發로 政治는 건전한 民族主義(Nationalism)의 입장에서 정책 개발과 宣傳操作으로서,

3) 국민총화와 스포츠 人口 저변확대, 관련 레저 산업육성 등을 위하여 스포츠는 中・長期政策, 制度, 法規로 政治는 실용주의의 立場에서 사회적응성 향상, 사회기능성 증진, 여가선용 등 인간생활과 同一化시킴으로써 스포츠의 원대한 理想인 人間主義, 世界主義, 大公主義, 實用主義의 단계에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신인선수 선발 육성에 관한 제언

전북체육고등학교 김 기 득 선생

운동중 한다면 책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그릇된 생각인것 같다.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
곳없이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훈
련에 열중이다. 지도 하시는 선생
님도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도 한데
어울려서.....

전라북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꿈
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들 모두가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
나갈 우리의 소망이며 영광인 꿈
나무들이다.

뜻밖에 주어진 임무에 책임이 막
중함을 느낀다. 이들을 어떻게 보
살펴 주고 지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벅찬 사명감이
나의 두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한
다.

이들이 울곧게 거칠없이 무럭무
럭 자라나서 훌륭한 선수, 뛰어난
선수가 되기까지에는 땀과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수련이 거듭 되어
야만 할 것이다. 나의 정열을 다하
여, 오직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지도방
법을 연구·검토하는 자세로 성실
히 지도해간다면 소기의 목적은 꼭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해 본다.

우선 먼저 할 일은 무슨 일이든
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일이다.

신인선수들을 처음 대하는 순간
어떻게 저런 선수들이 꿈나무들이
란 말인가 하는 회의감을 떨칠수가
없었다. 허피족처럼 기른 머리며 눈
동자며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다 눈
에 거슬리기만 한다. 선발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
다. 훈련에 잘 따라 줄는지 걱정이
앞선다. 훈련 첫날, 운동하는 환경
이 바뀐 탓인지 모두들 힘들게 따라
오곤 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을.....

여기 저기서 불평이 오간다. 무
더위 탓도 모르겠지만 한가지라도더
배워보려는 의욕을 찾아볼 수가 없
다. 무엇인가 배워 주려고 하다보
니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정에 치우치다보면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잘 참고
따라주는 자만이 우리의 참된 꿈나
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6시 기상해서 인원 점검을
한 후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을 기르게 하기위해 경건한 마음으
로 애국가를 부르고, 또 합성을 지
르게 하고 조깅에 들어갔다. 왕복
30분 가량 걸리는 거리다. 뒤에 처
지는 선수들도 많았다. 그 중에는
운동선수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말
그대로 신인선수들이다. 훈련을 계
획표대로 진행시키면서도 어딘 선수
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조깅이 끝나고 아침 식사와 휴식
을 취한후 9시부터 조를 나누어 예
어로빅, 스트레칭, 씨킥트 트레이닝
이 교대로 실시된다. 모두들 얼굴
이 벌겋다. 오전운동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의 휴식시간은 첫날
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힘이 드는지 모두가 잠에 취해 있
었다. 오후에도 체조와 보강운동,
수영, 그리고 각 전문종목 시간이
다. 오전 훈련에 비하면 오후 훈련
이 더 힘이 들거라고 생각된다. 하
루가 지나고 나서는 모두들 태도가
진지하기만 하다. 정신교육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다. 처음에
느꼈던 모습과는 꺾이나 대조적

운동하며 공부한다는 일이

실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임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너무나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않나 하는 우려를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

머리 속에 양식이 없다면

금 메달을 획득한들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가?

다. 몇몇 선수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계획표대로 어긋남이 없이 하는 훈련은 처음 받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에어로빅, 스트레칭, 써어터 트레이닝은 생각밖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체육을 지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인것 같다. 이제는 모든 신인선수들이 힘들어 하면서도 한가지라도 배워 보겠다는 의욕으로 잘 따라주며 열심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북도내 신인선수중에는 고3학년생이 약 40명 가량되는데 대부분이 당면한 진학문제를 चे쳐두고 운동을 해서 무엇하랴 하고 반신반의하는것 같았다.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겠는데 공부부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상의하러 오는 학생도 있었다.

신인선수합숙훈련에 대한 불만이 앞서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대할 적에는 나 자신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의 선수들을 상대로 훈련을 시키서 어디에 쓰자는 말인가?

많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때문에 과학적인 계기가 주는 객관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선수를 선별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훈련기간중에 기초체력단련이나 경기력향상훈련 못지않게 공부하며 운동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인 선수 전원에게 하루하루의 일기를 쓰게 하고 훈련이 종료되기 직전에는 훈련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일기와 감상문을 받아보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맞춤법, 문장력 모두가 생각밖의 수준이었다.

운동하며 공부한다는 일이 실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임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너무나 공부를 소홀히 하지않나 하는 우려를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

정신교육시간에 최도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지이다.

머리 속에 양식이 없다면 금메달을 획득한들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가?

해외원정을 할 때 입국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출발지 등 간단한 기재사항을 쓰지 못하여 썬썬매는 선수들이 많다는 우수한 일화를 우리는 흔히 들어왔다.

그저 듣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까운 우리학교의 운동선수, 아니 더 가까운 신인선수들을 생각해 보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쳐와 있는 현실이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한다는 구실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실정이다.

운동중 한다면 책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그릇된 생각인것 같다.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들에게 공부부를 할 수 있겠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나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피곤하기도 하다.

공부까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 둘순 없을 것이다.

틈나는대로 책을 읽게 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겠다.

운동선수도 공부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또 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방향을 분석, 간단하게 나누면 학구적인 면과 스포츠면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은 않고 책하고만 베타한다면 그 사람은 스포츠면에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사실은 학구적인 두뇌와 운동의 두뇌를 고루 발달시킨 학생이 언뜻 날 훌륭한 선수가 되는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점은 운동 선수로 성공해 보겠다는 청운의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진리이다.

“운동선수와 공부”

얼핏 생각하면 이질적이어서 알릴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기 쉽다.

실제로 이를 잘 조화 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루에 훈련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 나머지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야만 될 것이다. 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황금기를, 젊음을 오직 스포츠로 불태워 보고 싶은 우리 선수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하려는 것이다.

한자라도 더 배우며 운동하는 풍토조성은 운동선수나, 지도교사, 체육지도자 모두가 되돌아 보고 반성해야될 공동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중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이 쓴 감상문은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 주었고 무더위속에서 훈련지에도 열중한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이번 합숙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모든 일을 남이 깨우쳐 주어야만 했는데, 부모님이 항상 해 주시던 빨래를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고 자기 밥은 자기가 타서 먹고, 자기옷, 이불, 신발, 장자리 등을 정리하며 생활하는 동안 책임감과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고, 아침에 기상해서 합

**노력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 자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수들 모두가 인간적인 속된 욕구를
떨쳐 버리고 극기하고 극복하면서 투지와
기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성을 지르고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애국심이 길러졌으며, 참된 마음 가짐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신인선수가 있는한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한낱 꿈이 아니라 희망찬 내일의 상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은 많은 걸 보고 배웠으며 느낀 점도 많았을 것이다.

좀 더 일찍 이런 훈련이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해 본다.

덧붙여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어쩌면 체육교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인지도 모를 일이다.

'86, '88을 향하여 정진하는 신인선수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들 체육교사는 지도방법이나 체육교사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지도해 오지는 않았는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안주해 오지는 않았는가?

지금은 우리 지도자들이 운동하던 때와는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르고, 컴퓨터가 인간의 지혜를 보충

해 주며,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체육지도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발 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지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선수 개개인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읽고 선수가 적면하는 어려움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도와주어 빠른 시일내에 정상의 계도에 올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새로운 스포츠과학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개발·연구함으로써 선수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체육지도자들은 좀더 많은 선수들을 발굴하여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는 것이 지상과제임을 명심하고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온 정열을 기울여 한국체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선수, 지도자, 정부가 “하면 된다.” 라는 굳은 신념 아래 일체단결한다면 우리들의 꿈나무는 대지 깊숙히 뿌리를 내려싱



그러운 일새와 화사한 꽃을 피우고, 실직한 열매를 영글게 하는 체육의 거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덥지 못했던 신인선수들의 첫 인상이 차츰 '86, '88을 빛낼 꿈나무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들을 훌륭히 길러내리라 다짐해 본다.

'86, '88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인선수 선발, 육성사업은 그 근본 취지나 골격의 방법들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한 분수령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 훈련지도를 담당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얘기한 사항 이외에도 아쉬웠던 점이 몇가지 더 있다.

2주간의 짧은 훈련으로 신인선수를 정예화하기 위한 성과측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신적으로 메마른 운동선수들에게 정서교육과 교양교육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신인선수들을 지도하 할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도자 사전교육과 지도자, 각 경기단체의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들간의 유대강화, 정보교환을 위한 조치 등이 뒤따라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또한 신인선수로 선발·육성에 관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우수한 선수들이 신인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학교의 우수한 선수들이 신인선수선발을 기피하였다는 후문은 씁

쓸한 뒷맛을 남겨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인류의 대 제전이요, 한편으로는 골짜기 느껴졌던 올림픽 대회를 치루게 되었다.

올림픽이란 스포츠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가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의 증진으로 국제적인 우의를 다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며, 우리 인간 사회를 보다 밝고 건전하게 발전·승화시켜 보자는데 그 큰 뜻이 있다.

우리도 이 큰 행사를 치루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체육활동은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일취월장 일등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들어 왔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한덩어리로 뭉쳐 근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일등국민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온 세계에 알릴 수 있음은 물론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인 "선진조국 창조"가 꿈같은 얘기가 아니었음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

람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이제 우리들의 꿈나무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지금은 비록 가냘프고 보잘것 없는 꿈나무들이지만 온 국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하나 하나 기량을 갈고 닦는다면 꿈나무에 거는 우리의 크나큰 꿈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우리 어린 꿈나무들도 운동 선수로써 자질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만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 자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수들 모두가 인간적인 속된 욕구를 떨쳐 버리고 극기하고 극복하면서 투지와 기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 지도자들도 그들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하며, 정부 또한 적극적인 국민 체육진흥정책의 추진, 스포츠의 과학화 모색, 유공체육인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등 선수와 지도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들이 한 덩어리로 응결되어질 때 '86, '88년 대회는 신인선수의 영광은 물론, 우리민족의 영광의 무대가 되리라 확신한다.

오직 내일의 영광을 향해, 떠오르는 해살처럼 밝고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의 훈련지도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염려스럽다. ※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홍보실〉

우리 태권도의 일선 지도자와
그 외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이 글에 스스로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읽어주길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터 조직속에서 태어나며, 특히 현대인은 조직으로 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조직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 (직장, 각종 모임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조직의 구성원(Member) 으로서, 지도자(Leader)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들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관찰해보면 「속임」型, 「無関心」型, 「非協助」型, 「느림보」型, 「게스타포」型 「獨占」型, 「抑庄」型, 「威脅」型,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이들중에 단한가지 「型」만 가지고도 나쁜 지도자, 나쁜 「멤버」로서 「하이웨이」를 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태권도의 일선 지도자와 그 외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이 글에 스스로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1. 속임型

무지, 태만, 주체성없는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하여 노한 목소리로 노발 대발하여 우월감을 나타내는 型으로, 흔히 열등감을 해소하기위해 자만, 고성, 허풍등 우월적인 태도로 자신을 은폐하는 型.

2. 無関心型

무관심型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 나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

무관심型의 「품」은 오랜 세월동안

안 연습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부하로 부터의 제안을 무시하며, 규칙, 법규만을 내세워 제재만을 하고, 능률, 「스케줄」등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기고, 그 일의 효과등은 검토하지 않는 型.

3. 非協助的인 型

비협조型은 결코 자기들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남을 도우려 하지않는다. 부하에게 조력이나 충고는 아예 하지않으며, 경영상의 어떠한 일이든 철저하게 처리하거나 흥미를 갖지않으며, 부하직원의 신상이나 훈련등에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型.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많은것에 기대를 하며, 좌절하지말고 정진을 하여야한다.

4. 「게스타포」 型.

「게스타포」(Gestapo) 型은 전제지배형으로 누구든 「게스타포」 型이 될 수 있다. 부하를 신용하지 않는다.

마치 부하를 「스파이」 인듯, 늘 상의심을 하며, 당신이 속해 있지 않는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의심을 갖는다. 다른사람이 당신을 속이기에 남을 먼저 기만하는 型이라고 할까....

5. 獨占 型

독점型은 당신이 공을 쥌채 「고울」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人間型이다.

부하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졸부, 잘 한사람 표창을 주는 것을 게을리하고 상사에 게 최대의 야망을 보이고, 부하를 무자비하게 몰아 부치며, 타인의 功을 자기화 하는 能率低下競爭의 「님버원」 맨이 바로 독점 型.

6. 抑壓型

억압型은 언행에서부터 모든면에서 부하를 항상 자기 「레벨」 이하로 내려 놓는다.

독창적인 恩考에서 나오는 부하들의 제안을 무시하며,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저지시킨다.

억압하고, 압박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훌륭한(?)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라고 볼까.....?

7. 威脅型

위협型은 부하를 뜨끔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을 하도록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타일」이다. 이는 놀라운 二重의 호기를 함시갔고, 영향을 주며, 변화를 늘 만들어 괴롭히며, 적당한 시기에 한 건씩 만들어 위협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순간 순간 조직적으로 대처하며 권모술수에 능하여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型의 주인공들이다.

이러한 여러형의 懸型들이 우후죽순처럼 즐비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멤버」로써, 또 간부로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까?

Member 는

첫째,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둘째, 많은것에 기대를 하며, 좌절하지 말고 정진을 하여야 하며,

셋째, 일을 성사시키는 요소가 어떤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찾아내어야 하며.

넷째, 어떻게하면 일의 質과 量

을 높일 수 있는 가를 명확히 판단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행여 일이 잘못 되었을 때는 원인과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eader는

직원의 불평불만에 귀를 기울여 어떻게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를 검토 분석하여서, 불평을 초기에 처리해 주고, 애기를 끈기있게 들으며,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원인을 즉시 처리하여야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指導者는 人間대 人間으로서의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부하와의 대화는

첫째, 객관성 있게

둘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문제(부하의 역할) 속에서 같이서서 연구하며.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뛰며.

넷째, 부하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추구함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함께 自省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스트레칭 (Stretching) 體操

스트레칭은 幼兒로 부터
高齡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容易하게 행할 수 있으며
또 익힐 수가 있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
체육대회에서 발간
한 "스트레칭과 스
포츠 심해치치법"이
란 책에서 발췌한 것
으로 지도자 및 영의
들에게 유용하게 이
용되리라 사료되어
게재 합니다. (홍보실)

1. 스트레칭 (Stretching) 이란 ?

스트레칭이란 정화하는 Static Stretching의 略語로서 準備運動의 일종으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伸展柔軟運動」 「伸展體操」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레칭 體操가 實施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다지 널리 普及되지 않았다. Sports 先進國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實施되어 왔다. 종래에 準備運動과 整理運動으로 實施하고 있는 柔軟體操는 자칫 잘못하면 腱이나 筋에 傷害를 초래하기 쉽고 身體의 柔軟性마저 損傷케 할 우려가 있다고 指摘되어 왔다.

準備運動이나 整理運動에서 重要な 것은 腱이나 筋을 충분히 伸展 (Extension) 시켜 주는 일이지 억지로 누르고 당겨서 過伸展 (Hyperextension)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래의 體操는 腱이나 筋에 갑자기 큰 負荷를 걸어 비록 實施者 자신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微細한 筋 섬유나 毛細혈관의 단열이나 손상을 가져오는 예가 있었던 것이다.

스트레칭은 筋肉을 부드럽게하여 激烈한 運動에 대한 準備를 갖추게 하여 주며 더구나 日常生活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리없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다. 또 스트레칭은 肉體를 한쪽으로 사용하는 노동이나 Sports에 의한 筋肉의 硬塞을 방지하여 줌과 동시에 그 筋들의 柔軟性を 회복시키고 높여 주는데에 도움이 되는 運動이다. 이 運動은 앞서의 노동이나 스포츠로 인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障礙를 豫防해 준다. 그리고 激烈한 Sports活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칭은 筋의 疲勞回復과 아울러 큰 疲勞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줌과 동시에 Sports活動에 必要한 柔軟性を 증대시켜 준다.

그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을 規則적으로 바르게 實施하면 精神健康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스트레칭근이 리락세이션 (Relaxation)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人間的 동작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행할 경우 使用하는 筋의 방향이나 강, 약 시간 등에는 差異가 있을지라도 모든 동작은 筋의 收縮에 의해 이루어 진다.

筋의 收縮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筋의 긴장이며 거기에서는 張力의 발휘와 더불어 短縮과 伸展이 행해진다. 스트레칭은 이 긴장을 부드럽게 하여 주고 그것에 의해 자

유스러운 움직임을 촉진시켜준다. 리랙세이션(Relaxation)이란 긴장이 풀어짐으로써 생기는 움직임이 자유스러움을 말하는 것이다. 동작이 좋다는 것과 Speed는 언제나筋의 리랙세이션(Relaxation)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로버트 A 앤드슨(Robert A Anderson)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칭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①항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 ②일상생활에서肉體를 그다지 사

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이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 ③어느 한가지 방식에 의한勞動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람
- ④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행하는 사람

2. 스트레칭(Stretching)의 方法

스트레칭은 幼兒로부터 高齢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容易하게 행할 수 있으며 또 익힐 수가 있다.

그러나 重要的 點은 바른 方法으로 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同一한 方法으로 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스트레칭에는 바른 方法과 나쁜 方法이 있다.

바른 방법이란 펴고자 하는 筋群에 意識을 集中시키면서 리랙스(Relax)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당겨서 펴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뻗으려고 리랙스(Relax)한 筋을 伸展시키는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伸展이 아니고 筋이 뻗어지는 상태감을 잠시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앤드슨(Robert A Anderson)은 약간 정상적인 表現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칭으로 기분이 爽쾌해지기 시작하면 時間 따위는 즉시 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마음의 弛緩作用(Relaxation)을 바른 스트레칭의 主要한 課題로 삼고 있다.

○나쁜 方法을 말해 보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현상인데 伸展할 때 彈力을 붙인다든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극단적으로 伸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에 依한 筋의 伸展運

動은 근래의 柔軟體操라고 하는 것에 많은데 스트레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탠 伸展과는 명백히 區別되어 스트레칭으로서는 나쁜 方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柔軟體操는 이러한 체조로서의 柔軟性 強化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動物의인 內容(強力이나 강제적인 급속한 타율적 힘을 이용하는 것)을 強調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行하는 것은 効果의 일 수도 있지만 障礙의 要因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칭은 100%의 安定性과 즐거움 및 柔軟性의 獲得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바른 스트레칭의 方法上的 유의점이나 生理的 論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편안한 伸展(Easy stretch)

스트레칭을 시작할 때는 「편안한 伸展으로 10~30초간 유지시킨다. 彈力을 붙여서는 안된다. 가벼운 緊張感이 느껴지는 Point까지 伸展시키고 伸展을 유지시키면서 리랙스(Relax)시킨다.

스트레칭하였을 때 팽팽해진 筋肉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부드럽게 될 것이다. 만일 팽팽한 筋肉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약간 伸展을 되돌려 筋肉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 「편

안한 伸展」은 筋肉의 딱딱함을 풀어주고 다음의 「發展的 伸展」을 위한 筋肉組織의 準備가 된다.

(2) 發展的 伸展

(The developmental stretch)

「편안한 伸展」後는 천천히 「발전적 신전」으로 옮긴다. 여기에서도 彈力을 붙이는 것은 禁物이다. 「편안한 신전」때 보다도 아주 조금(1인치의 몇분의 1정도)만 크게 가벼운 팽팽함을 느낄 때 까지 신전시키고 10~30초간 유지시킨다.

지나친 伸展이 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편안한 신전」때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緊張感은 부드러워지겠지만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약간 되돌리도록 한다.

「발전적 신전」은 筋肉의 컨디션을 높이고 柔軟性을 向上시킨다.

(3) 伸展反射

筋은 신전반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機構에 의해 保護되고 있다. 筋纖維를 크게 늘리면(彈力을 붙인다든지 過度하게 伸展하여) 신경반사의 작용에 의해 근에 시그널(Signal)이 즉 준비 신호가 보내져 근은 收縮된다.

이 기구의 이러한 작용에 의해 근은 障礙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크게 신전시키면 스트레치 시키려고 하는 筋肉은 굳어져 버린다. (생각

지도 않게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不隨意筋도 그와 같은 反射가 있다. 생각하기 이전에 몸은 뜨거운 것에 서 瞬間적으로 멀리 떨어진다.)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스트레치 하든지 彈力을 붙여서 上下로 움직이면 筋이 긴장하여 伸筋반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지극히 危險한 方法을 사용하면 筋에 痛症을 일으키게 하며 더구나 筋纖維에 현미경 학적인 裂傷에 의한 장애를 받게 된다. 이 열상 때문에 筋肉은 서서히 彈力성이 없어지고 筋 속에 상처로서 응어리가 남아 이 筋肉은 딱딱해지고 만다.

이런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方法

으로 어떻게 매일 스트레칭이나 運動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일반사람들은 「아름(苦痛)이 없는 단련에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젖어 왔다. 우리들은 이전에 「肉體를 改善하는 데에는 으레히 苦痛이 많으면 많을 수록 얻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말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스트레칭은 아픔(苦痛)을 수반하는 運動이 아니다.

④筋의 스트레칭과 스트레칭

筋은 이미 言及한 두 개의 신전 양식 이외에 彈力을 붙인다든가, 외부에서 힘을 준다든가, 또 근육처럼

컨다든가 하는 이른바 過激한 신전이 있다.

실제의 Sports活動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신전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태를 經驗하지 않으면 筋은 그것에 適應된 作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充分한 리렉스(Relax) 상태를 항상 보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에 대응한 筋의 活動을 可能하게 한다. 筋이란 그러한 特性을 가진 組織이다. 스트레칭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던 面에서의 筋 트레이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顰蹙을 것이 다.

3. 스트레칭의 特徵

스트레칭은 결코 억지로 힘들어서 무리하게 하는 運動은 아니다. 앉았이나 개가 가끔 몸을 쭉뻗치고 있는 動物은 本能的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주의하여 보면 기본 내키는 대로 뻗치고 결코 人間처럼 억지로 過度하게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칭은 그러한 動物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치 하는 呼吸으로 행하는 運動이다.

그것은 리렉스(Relax)하여 마음을 安定시키고 행하는 것이지 競爭의 要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칭은 어디까지나 各個人의 心身의 컨디션에 맞추어 행하는 것이며, 이 컨디션의 판단과 實施條件은 實施者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一律의 規則에 따라 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實施條件은 自己 自身이 움직이고 있다는 자유와 기쁨이다. 스트

레칭의 바른 特徵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는 方法만 올바르다면 누구나 움직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體力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 다루는 方法이란 초조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데 具體的으로 는 平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規則的으로(앞에 말하는 스트레칭의 方法 参照)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人間の 體力은 아무리 우수하다는 體力 배양의 方法으로도 一朝一夕에 形成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칭의 特徵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身體의 컨디션을 양호하게 갖춘다는 것이 기본이다.

이 스트레칭이 다방면으로 活用되고 있지만 이 기본에 입각하여 日常生活의 一部로서 規則적으로 행하면 앞서 말한 대로 心身に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①筋肉의 緊張을 부드럽게 하여

보다 더 리렉스(Relax)한 感을 준다.

②協應性的의 向上에 도움이 되어 以前보다도 動作이 自由스럽게 더구나 容易하게 될 수 있게 된다.

③可動 範圍를 크게 한다.

④筋肉 障礙와 같은 Sports 障礙를 豫防한다. (스트레치한 筋肉은 스트레치하고 있지 않은 筋肉보다 저항력이 강하다.)

⑤스트레칭으로 準備運動을 하면 Running, Sky, Tennis, Swimming 이나 Cycling 따위의 격렬한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움직이려고 하는 筋肉에 시그널(Signal) 즉 準備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⑥여러가지 감각을 向上시켜준다. 여러 部位를 스트레치할 때는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시켜 그 부위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써 자기의 몸 全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⑦스트레칭은 몸에 대한 精神의 컨트롤(Control)을 부드럽게 하여 주며 競爭이나 허영 때문이 아니고 느긋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⑧血液循環을 促進시킨다.

⑨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스트레칭의 特徵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身體의 컨디션을 양호하게 갖춘다는 것이 基本이다.

4. 實施上의 Point

(1) 천천히 실시할 것.

스트레칭 體操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 시종일관 천천히 주의 깊게 허리의 位置등을 確認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느긋하게 행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팬찮은 편이지만 伸展해나가는 후반 부분이 빨리 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註) 천천히 한다는 말은 최대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동작을 크게 천천히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분이 安定되는 場所를 택할 것
體操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장소의 선택은 직접적으로 체조의 효과와 결부되는 것이므로 實施者는 나름대로 創意性을 발휘하여 장소를 잘 選擇하면 보다 좋은 成果를 기대할 수 있다.

(註)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Pace대로 실시 할 것.

(3) 발꿈치를 바닥에 붙일 것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몸을 확고히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 앉은 자세보다 누운 자세가 보다 여유 있는 기본으로 체조를 할 수 있다.

(註) 安定成이 리렉스를 가져다 주는 스

트레칭 체조의 Key point이다. 感

(4) 呼吸을 정상적으로 할 것

스트레칭 체조는 각각의 자세를 잠시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등을 동그랗게 하면 커다란 호흡을 할 수 있다. 천천히 들이쉬면서 準備 그리고 유지하고 내쉬면서 조금씩 천천히 빠히고, 자신의 Pace대로 유지해야 한다.

(註) 호흡을 멈추지 말고 내쉬는 呼吸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허리에서부터 펴기 시작할 것

스트레칭 체조를 계속함으로써 평상시의 자세나 어느 技術에 알맞는 動的인 자세를 좋게 하는 데 커다란 目的이 있다. 스트레칭 체조를 하고 있는 중에는 진지하게 자기의 컨디션을 점검 하면서 좋은 자세를 재확인 해야된다. 그 중심은 허리 로 허리를 펴는 過程에서부터 몸을 시원하게 하여 Sports 작업에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며 前屈의 경우 앞에서 言及한대로 허리를 펴고 난후 부터 천천히 허리부터 펴면서 구부러 간다.

(註) 허리펴고 난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Point이다.

(6) 조심성을 가지고 실시할 것

안전하고 効果의인 方法
허리를 펴는 過程에서 부터 몸을

시원하게 하여 Sports작업에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각 Sports 에서의 前屈의 경우 손이나 머리에서 부터 동작을 시작하고 말고 허리를 펴고 난 후부터, 천천히 허리를 펴면서 구부러 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트레치 감각을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경쟁 의식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무언가 여유를 가지고 계속 해야한다.

스트레칭 체조의 實施上의 問題點은 자칫하면 지나치게 강해진다 는 경향이 원인이다. 강하게 하는 것보다 약하게 하는 편이 安全하고 확실하게 筋이나 腱을 리렉스 하고 있는 중에 뻥칠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염두에 두고 指導할 必要가 있다.





總長 法學博士 鄭 樹 鳳

체육선진 한국의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지도의 최고의 덕목으로 정하고 있다.

弘益人間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國家의 교육정신을 받들어 인류문
화발전에 필요한 학술적 教授, 研究
하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
여 민주시민으로서 품격을 陶冶하
므로 조국번영의 역군으로 국가, 사
회에 봉사함을 建學理念으로 鄭樹
鳳 총장님을 정점으로 自由, 眞理,
正義를 敎示로 받들고 自由의 전당
인 대학에서 심오한 진리를 研究하
며 正義 실현에 앞장서게 하고 있다.

이의 구현을 위하여 본 대학의 태
권도부는 1961년부터 조직적인 팀활
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독특한
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文武”
를 겸비한 武道人이 되게함과 동시
에 고도의 테크닉을 신장시켜 지역
사회의 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나
아가 종주국의 민족적 우월성을 세
계적으로 과시하며 또한, 체육선진
한국의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지도의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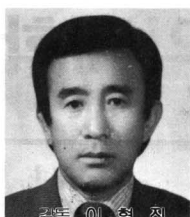
의 덕목으로 정하고 있다.

태권도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신 정수봉 총장의 뜻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손현수(孫賢秀)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이형진(李洞
鎭) 체육과장을 실무책임자로 임명
하고 팀 활동의 장애요인을 분석 제
거하는데 전력을 경주도록 독려하
고 있어 팀의 사기진작에 크게 주
효하고 있다.

또한 무예화의 元年(1961)부터



박선현
(학생처장)



김응진
(체육과장)



코치 김우규

팀 활동을 전개하여 태권도의 국내의 저변확대 기반 조성의 선구자로서 기여한바 크며, 태권도 선수에 대한 장학혜택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래 지금은 학비 전액면제는 물론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 훈련장도 현대식으로 90坪을 83년에 완비하여 훈련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본교 태권도부 출신으로 海外에 파견, 국위선양을 하는 김양웅(오지리)사범을 비롯 지동주(광), 이상진(세배갈), 박웅준(독일), 김정태(호주), 김철오(수단)사범들이 의욕적인 활약으로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으며, 各種세계대회에서 김정태(호주사범), 김세혁(동성고교사)한유조, 김종기, 정찬, 이승형, 김정국등이 우승을 하여 국제경기력 향상에 東亞의 태권도인이 크게 공헌하였다.

부산수산대학의 지삼업(池三業)교수는 본교 졸업생으로 태권도에 관한 多數의 논문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태권도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수들의 기술의 개발과 국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6년엔 日本 오사카의 여러대학과 친선방문수련및 시험을 가진바 있으며 85년에는 대만의 대북대학,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등과 자매결연을 맺

어 교환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코치 김우규 사범은 코치 아카데미 연수 교육에서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하였고 5월 대학선수권대회에서는 지도상을 받는등, 경상도 특유의 끈박하고 끈질긴 인간성으로 선수들에게 형님같은 친밀감으로 他市道 선수들이 모였으나 서로 믿고 의지하는 푸근한 분위기속에서 마음놓고 학업과 태권도 수련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선수들은 말하고 있다.

태권도부원은 성동상고 출신의 김정국, 이해진, 풍생고의 최남규, 이우선, 천호상고의 김재호, 정일수, 부산체고, 인천체고등에서 우수한

고 다양한 선수를 스카웃하여 팀을 구성하여 숙식을 같이하며 생활하여 큰 발전적인 기대가 되고 있다.

팀의 주요전적을 보면

1971년 전국단체전과 제10회 대통령기 쟁탈 단체대항전(1975년)우승등을 비롯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경기력과 모범적인 선수상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배출하여 한국태권도 발전은 물론 태권도 세계화에 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태권도 지성의 산실로서 계속 정진하여 학교의 명예와 향토의 명예와 긍지를 국내외에 보여줄 날이 도래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수련하며 공부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지도교수 이 면 영

自主, 創造, 協同을 교육이념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홍익대학교에 1966년 9월

이면영(현 부총장) 교수의 지도아래

태권도부 창단

서울 마포구 와우산 기슭에 3만 여평의 규모로 아담하게 자리잡은 “홍익”은 4개 대학원, 5개 단과대학에 54개학과 1만여명의 홍익인들이 희망찬 학구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의 종합교육체제를 통하여 홍익 인간과 면학 일체의 이념을 전개하여 인류복지 향상과 세계평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저 노력하고 있다.

25만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박물관 및 10개 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체육부 학생들의 숙원이던 체육관이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갖춘 웅장한 모습으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自主, 創造, 協同을 교육이념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홍익대학교에 1966년 9월 이면영(현, 부총장)

교수의 지도아래 태권도부가 창단되어 18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꾸준한 발전을 하였다.

본교의 태권도부는 자치활동반의 일원으로, 정기적인 수련을 하고 있으며 교내 태권도 시범, 승단심사용시, 친선경기등이 주요 활동이며 감독이나 코치도 없이 학생 씨클로서 이면영지도교수의 지도와 태권도부 부장 김종성(건축과2년)의 통솔로





태권도부 창설 10주년 기념



부장 김 종 성

엄려하시며 독려하신다고 김종성 부장은 말한다.

'85년도에는 부의 활성화의 전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기생 2명을 뽑아 장학금등을 지급하며 각종 시합등에도 출전시키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무연의 실천을 기본 정신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위한 초석으로서 태권도로 심신단련을한 우량한 기합소리가 와우산 기슭은 물론 전국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수련에 앞서
우리는 태권도인이다.

○人間으로써 眞善美의 人格을 完成하자.

○道人으로써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友人으로써 신의에 살며.

○社會人으로써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며.

○國民으로써 民族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며.

○武人으로써 싸움에 반드시 이긴다.
라는 선서로 하루의 운동이 시작된다.

오후 5시~7시까지 학과수업의 피로와 친구들의 유혹등도 과감히 뿌리치고 40여명의 부원들의 기합소리는 조용한 저녁 캠퍼스의 정적을 깨우며 와우산 기슭에 메아리친다.

그동안 태권도부는 150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태권도 동문회를 조직 태권도부 1회 졸업생인 김건호교수(본교재직)가 회장으로 태권도부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동문회 총회를 개최하여 선 후배간의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으로 우의를 돈독히함은 물론 사회진출의논등, 人生先輩로서의 역할도 대단하다.

이면영 지도교수는 "인생은 수양의 도장이다." 학업으로 순수이성을, 독서로서 전투적 인생관을, 무도로서 실천력을 강조하시며, 부원들의 행여 학교수업에 소홀히 할까봐, 늘

"인생은 수양의 도장이다"

학업으로 순수이성을 ... 독서로서 전투적 인생관을 ...

무도로서 실천력을...



'84년 축제 세뱃을 이치고

한성중·고등학교



이사장 김 병 호



교장 양 재 략

1928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가닥 남은 민족의 혼마저 빼앗아 버리고자 광분하고 있을때 민족의 선각자인 신 겸산(謙山) 김 주익(金周益) 선생께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독립을 쟁취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교육뿐이라는 구국일념의 신념으로 본교를 설립하였다.

선생께서는 3.1독립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손수 3.1계단을 만드셨으

며, 그후 건립된 3.1기념탑의 의기, 근검像은 본교 교육이념을 상징하고 있다.

義氣는 슬기로운 사람
신념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勤儉은 성실한 생활
협동하는 생활
자율적인 생활 을 뜻하며

교훈을 바탕으로
양 재락(梁在路) 교장선생님은

교육의 기본 목표를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하고 국가및 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함에 두고, 특히 「예절의 생활화」로 총화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건학이념의 구현과 차원 높은 한성학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교의 金 丙浩이사장님은 心身一致의 실천교육을 강조하시어 체육관이 있는 건물의 이름을 文武館으로 명명하시고 개인운동이며 단체로 할 수 있는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 전교생에게 실시토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시어 75년 9월부터 실시하였다고 金 榮建사무과장은 말한다.

金 榮建과장은 태권도 고단자로서 태권도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75~79년까지 태권도부 감독으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바 크다.

태권도는 학생들의 구심점 조성의 발로로써 단체훈련 방식의 집체 교육으로서 협동심과 일체감을 주는 효과가 지대하며, 동작 하나 하나에 정신교육 주입으로 무도정신을 학업에 연결시킴으로 人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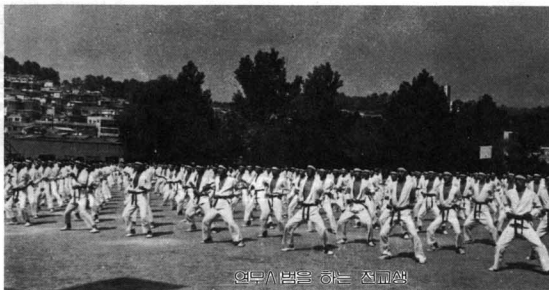


한성고등학교의 의기, 근검像

어려운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습관과 인내심을 공부하는 것으로 연계시키며...



사무과장 김영권



연무시범을 하는 전교생

은 물론 학업성적향상에 기여함이었다고.....

어려운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습관과 인내심을 공부하는 것으로 연계시키며, 스포츠맨 습에 입각한 전교생의 기풍진작은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사제지간의 예의는 물론 선후배간의 예절도 각두하여 있으며 태권도를 기교로 시작한지 2년여된 78년에는 본교생의 대학입학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80년도에는 전국에서 4위를 마크하였다. 또한 김 영선과장은 인문계 고

등학교에서는 무엇보다 대학입학을 이 객관적으로 학교의 평가 기준이 됨으로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관계는 무도정신에 입각한 예의범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75년당시 4,500명의 전교생이 2급과정까지 태권도 수련을 하였으나 84년인 지금은 중학생 2,500명, 고등학교생 2,500명, 2부 고등학교생 2,200명등 총 7,200명이 태권도 수련을 주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남 규식선생을 감독으로 부감독

겸 코치로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윤창옥선생은 국군 태권도팀인 상무의 코치로 활동하다 본교에 부임, 100여명의 체육관에서 한국고등학교 태권도 제패의 꿈을 안고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중학교가 같이 있어 선수 스카웃 문제는 자체양성으로 충당하며, 태권도부의 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든 정규교육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평소 젊은이를 사랑하며, 젊은이의 기백을 가상하게 생각하시는 김병호이사장님과 예의와 도덕적 생활을 기초로 人格完成의 구현을 목표로 지도하시는 양 재락 교장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건성이 되는 훌륭한「한성인」이 되리라.

84년도 대통령기 대회 감투상,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3위로 승리의 디딤돌을 마련한 태권도부는 졸업생 4명이 모두 대학입학이 내정되었다고.....

좋은 여건, 충분한 지원속에서 수련하는 한성 태권도인은 문무를 겸비한 태권도인이 되어 태권도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문을 나섰다. ㉠



한성고등학교 태권도 수련모습

學校法人 靑園學堂

동대문 상업고등학교



이사장 이 인 근 박사



교장 민 우 식

至誠을 根幹으로 학교 교훈을 自勉, 勤勞, 協同의 3대 정신아래 청원학당의 교사상을 청렴지공, 화충협동, 연구수양, 도의실천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애교근로, 자립진취, 가치창조,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본교의 미래상을 위하여 오늘도 면학에 열중하고 있다.

설립자 이 인근박사는 중·고등학교생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단체의 회장 및 이사를 역임 하였고 특히 71년 12월 태권도 중·고연맹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며 태권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고 1978년에는 10대 國會議員으로 당선되었으며, 공사다망하심에도 면학을 하시어 81년도에는 미국(GOLDEN STATE UNIVERSITY)

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등, 평생교육자로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교에 태권도가 뿌리내리게 된 동기는 1967년 체육대회시 전교생이 같이 할 수 있는 마스게임을 노상석(현, 성동고교사)선생의 권유로 태권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호응도와 인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태권도부가 창설되었다고 이사장 李仁根박사는 말씀하셨다.

1968년 3월 노 상석선생을 감독으로 출법한 태권도부는 윤 성열감독선생에 김용휘코치, 박 주호선생을 감독으로 유 수철, 주 신규('8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트레이너) 코치로 이어지면서 김상천(제4·5회세계대회대표선수 2회우승), 이 준걸(제

4 회아시아대회 1981년 월드컵게임 각 1위), 오 일남(제3·4·5회아시아게임 각1위, '81월드게임1위), 이 진우(제4회아시안게임1위), 전 웅환(제5회세계대회1위) 등으로 체육훈장을 수상한 5명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였고, 전국대회의 우승 전적은, 79년 대통령기대회 우승, 연세대총장기대회는 제2회, 4회, 8회에 걸쳐 세차례나 우승을 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

閔 雨植 校長선생님은 항시 운동선수에게 선수이전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시며 선수들에게는 물론, 박 주호 감독선생님게도 늘 당부 하신다.

박 주호 감독은 교장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학



감독 박 주 호



생은 태권도부에 가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1. 학교성적이 “미” 이상 되어야 하며,
2. 장학제도도 운동보다는 학교 생활에 중점을 두고,
3. 팀의 우승도 중요하지만 각개인의 진학 및 진로문제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또한 매년 학기초에는 태권도부 부형님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학교 생활관계, 교우관계, 장학문제 등을 의논, 학교, 부형, 지도자와의 3위 1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태권도 부원들에게 종교관념을 갖도록하여 정신적이나 정서적 안정을 꾀하며,

아침 8시부터 30분간 특별히 한문 공부를 시키는 등, 세세히 신경을 기울여 졸업할 때는 최소한 상고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산 3급, 부기 3급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시키는 데의 어려움을 선수들이 잘 극복하며 따라 줄 때에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교장선생님과 강 효필 교감 선생님은 태권도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박 감독은 말하며 합숙훈련시에는 私費로 간식을 넣어 주시는 등의 열의에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주 신규 코치는 학교의 정식 직원으로서 의보혜택 등 선생님과 대등한 여건을 마련하여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열심히 지도한 결과 제 6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트레이너로 발탁됨은 물론 '86아시안게임의 코치로도 선임되었다.

주 신규 코치는 2~3년내에 국가





코치 주 신 규

대표에 진입할 재목들이라며 홍 용
섭(벤티급 3학년) 노 신(라이트 헤
비급, 3학년) 이 종선(핀급, 2학년)
박 달호(웰터급, 2학년) 박 대성(라
이트급, 1학년) 군 등은 좋은 선수들
이라고 말한다.

홍 용섭군은

국교 5학년때 태권도를 시작 중2

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 중·고
연맹전에서는 우승은 물론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고 2 때는 인천에
서 거행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
였고 본교 전액장학생으로 학교성
적도 상위권이다.

장래희망은 국가대표선수를 역임
하고 체육학을 공부하여 체육교수

가 꿈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
은 믿음직 스러웠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
여 '86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선수
로서 국위선양하는 모습을 성급히
그려보며 교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현)

至誠을 根幹으로

교훈을 自活, 勤勞, 協同의

3대정신아래 청원학당의

교사상을 청림지공, 화중협동,

연구수양, 도의실천의 목표로...



동대문 신교 태권도부원

眞理의 샘

經師(경사)는 만나기 쉬워도
人師(인사)는 만나기 어렵다.

(資治通鑑)

송대(宋代)의 석학 사마광(司馬光)의 명저 「자치통감」에 있는 말이다.
자치통감이란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며 위정자의 거울이 되는 책이란 뜻이다.

그는 온공(溫公)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경사(經師)는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스승이란 뜻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교과서를 강의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인사(人師)는 인생의 스승이 될만한 선생을 말한다.

요즈음 교육부재(教育不在)를 말한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고 한다.

학교는 많지만 교육다운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계의 인물난(人物難)이 심하고 스승(人師)이 아쉬운다.

經師는 만나기 쉽다. 회합의 「소피스트」이래로 많은 지식의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사는 만나기 어렵다.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새벽하늘의 별처럼 드물다.

人師가 되려면 지식의 전달이나 교과서의 강의만으로는 안된다.

제자를 깊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제자의 정신적 성장(精神的 成長)과 인간적 향상(人間的 向上)에 깊은 이해와 열의(熱意)와 애정을 가져야 한다.

칭찬할 때 칭찬하고, 꾸짖을 때 꾸짖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견책할 때 견책할 줄 아는 선생이 남의 스승이 될수 있다.

그는 지식을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올바른 인간의 형성자(形成者)가 되어야 한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스승에 대해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정신과 존경을 가졌다.

우리는 선생을 원하지 않는다.

스승을 원한다.

참으로 인사(人師)가 아쉬운다.

※시호(諡號) : 경상(卿相) 유현(儒賢)들이 죽은뒤 그들의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에 추증하는 이름.

※소피스트(Sophist) BC 5세기 무렵부터 BC 4세기에 걸쳐 그리스에서 활약한 지식인들의 호칭, 아테네를 중심으로 당시의 그리스 전역을 편력하면서 병론술과 입신술에 필요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르쳐 많은 보수를 받았다.

아브데라의 프로타고라스, 레올티노이의 고르기아스, 엘리스의 히피아스, 케오스의 프로디코스 등이 유명하다.

서울광희 국민학교



교장 이 천 영



감독 이 교 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태권도가 전국의 1위권을
찾아함은 민족의 얼이 담긴 국기 태권도의 정신에서 의 발로가 아니겠느냐고.....**

90여년전 1895년 조선말엽 (朝鮮末葉) 대한제국설립 (大韓帝國設立) 전 서민교육을 위해 고종 (高宗) 황제가 국력을 증강시키는데는 오직 민간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주동관립학교로 개교한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있는 학교이다.

1984년 3월에 부임한 이 천영 (李千榮) 교장선생님은 40여년 교직에 몸 담아오신 분으로 75년도부터 교장으로 재직하셨고 서울면동국민학교 재직시 태권도를 알게 되었으나 본교에 부임하여 태권도를 깊이 이

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본교는 체조가 정책지원종목이며 그 다음으로 축구를 장려하는 학교에서 태권도부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이상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전 판선 코치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신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태권도부 어린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며, 학교의 명예도 빛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85년도에는 전천우 태권도 수련장을 꼭 마련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김 태수 (金泰洙) 체육담당 교감선생님은 본교에 부임온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체육실에는 체조부가, 운동장에는 축구부가 사용을 하여 태권도부가 사용할 장소부재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태권도가 전국의 1위권을 찾아함은 민족의 얼이 담긴 국기 태권도의 정신에의 발로가 아니겠느냐고 전 사범을 칭찬하셨다.

본교의 태권도부 어린이 50 여명 중 반장이 15명이나 되며 83년도까지는 태권도부원이 어린이회장을 하



지도사범 전사범
(한국국민학교연맹)
(상설분과위원장)

있고 행동, 공부, 모두가 모범생
이라고 전사범은 말한다.

83년도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는
본교 어린이 3,000명이 응원을 하
였고 '84년 5월 태권왕대회에는
1,200명의 어린이가 응원을 나와
응원상을 수상하는 열성적인 학교
이다.

이 천영교장선생님은 태권도가 '86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
었음을 경하할 일이며, 이제 소년
체전에 국민학교 태권도가 정식종
목 채택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

본교 이 천영교장선생님은 서울
시태권도협회장과 한국 국민학교연
맹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으
며, 84년 9월29일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에서 감독 이 교영선생은 교육
감의 공로표창을 받았다.

본교는 12년간 유단자 1050명, 우
수선수 104명(입상자)을 배출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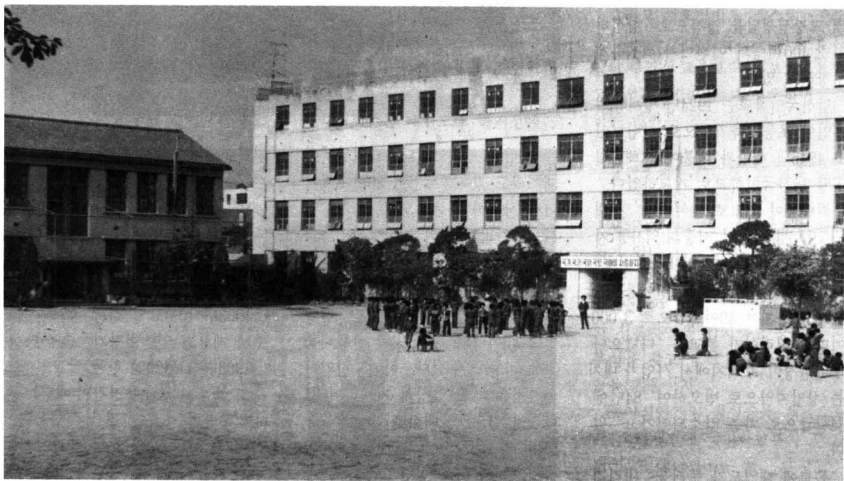
전 사범은 본인이 선수시절에 성
적이 좋지가 않아서 재자들 만이라
도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여 국가대
표 코치로 출전 국위를 선양함이 최
대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전천우 체
육관이 갖추어지면 더욱 열심히 하
여 목적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든든하였다. (원)

태권도부 전적

서울학도 체육대회 5년우승.
서울 교육감특별 선수권대회 3년우승
서울 초·중·고 교육감기쟁탈대회 1년우승
서울시 태권도 협회장기쟁탈 1년우승
전국 문교부 장관기쟁탈 2년 준우승
전국 태권도협회장기쟁탈 2년 우승
전국 국민학교연맹회장기쟁탈 4년우승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왕 겨루기대회 3년
우승
서울시 시장기쟁탈 태권도대회 3년우승

'84년도 전적

체육부장관기 (5회) 우승
서울특별시장기 우승
연맹회장기 3위
교육감기 3위



남산국민학교 태권도부

밝고 맑은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고 익혀
쓸모있는 사람이되자! 를 敎訓으로
학교 교육목표를...

지도사범 황 용 웅
(국민학교연맹 시범분과부위원장)

1. 교육환경 개선으로 자율학습 태도를 배양하고 탐구하는 슬기로운 어린이로 육성.

2. 정직 성실하며 질서를 지키고 협동하고 봉사하는 어린이로 육성.

3.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충효정신을 배양시킴을 목표로 정희진(鄭熙鎭)교장선생님을 정점으로 합심하여 2,400여명의 어린이가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남산국민학교는 1924년 일제하일 본인이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립하였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그해11월 1일 남산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해방동이 학교로 40여년간 사대문(四大門)안에서 서울의 역사를 지켜본 학교가 1978년 남대문국민학교의 폐교로 595명의 어린이를 인수 83년까지는 40여학급으로 3,000여명의 어린이가 본교를 다녔으나 주위환경이 주택지에서 사업가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여 84년엔 34학급으로 차츰 감소되어가고 있다.

본교에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



는 79년 4월이었으나, 6개월만에 폐지되고 황용웅사범이 80년 3월에 다시 시작하여 본제도에 올려놓았다. 황사범의 열의와 정성에 감동되어 전임 이기창 교장선생님과 박재욱교감(현,관악교육구청 장학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당 밑에 40여평의 태권도부 전용체육관을 만들어 주셨다. 이에 힘입어 황사범은 더욱 열심히 지도하여, 81년 6월 학도체육대회 단체 준우승, 81년 7월 16일 제 1회 서울시 교육감기 단체 3위로 창단 1년만에 국

민학교태권도의 상위에 진입하였다.

1982년 11월 한국국교연맹이 주최한 문교부장관기 3위,

1982년 8월16일 제 3회 서울시 협회장기 준우승.

1983년 10월 3일 한국 국교연맹 주체 제 9 회 연맹회장기 준우승.

1983년 11월20일 한국 국교연맹 주체 제 4 회 문교부장관기 에서는 드디어 대망의 우승 고지를 차지했다.

1984년 7월20일 한국 국교연맹 주체 제 5 회 체육부장관기 품세부

문 준우승.

1984년 10월 3일 한국 국교연맹 주최 제10회 연맹회장기 준우승으로 최정상상의 문턱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체육주임 권영석감독선생은 본교 태권도부는 각 학년이 고루 참가하여 10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권도부 어린이들은 활발하고 예절이 바르며 학업성적도 우수하여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며, 국민학교 태권도가 소년체전종목으로 채택이 확실시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명분이 생겼다고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태권도부 주장 권영호군은 태권도 수련 3년 경력으로 6학년 5반 반장이며 84년 10월 3일 한국 국민학교연맹 회장기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이재원(5학년 1반, 반장) 온상훈(5학년 2반, 반장), 김인호(5학년 7반, 반장), 김주현(4학년 6반, 반장 여학생), 박재호(5학년 1반, 부반장), 김창현(2학년 2반, 부반장)이며, 학급에서 분단장등 모범생들이다.

김영호군은 친구가 같이 하자고



태권도부 모범어린이들과 감독, 시범생

권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으며 몸이 튼튼해졌고, 사범님이 늘 태권도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공부도 열심히하여 반장까지 하게 되었다고 담하며,

온상훈군은 인내심이 없다고 어머니가 권해서 태권도를 시작했고, 전에는 무슨일을 하다가도 싫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참고 끝까지하는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며, 3학년때 부반장을했는데 힘이 약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통솔도 못하였었는데 지금은 용기도 생겼고 통솔력도 생겨서 반장임무를 하기가 쉬워졌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박재호군은 태권도를 하기전에는

싸움을 많이 했는데 품씨를 맨 후로는 싸움을 안한다. 이유는 강한사람이 어떻게 약한사람을 때리고 싸울수가 있겠느냐? 고

점잖게 대답한다.

본교 태권도부는 방과후 1~2학년은 오후 1시부터 40분간, 3~4학년은 오후 2시부터 40분간, 5~6학년은 오후 3시~4시까지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시범대회, 시합을 대비하여 훈련을 할때도 오후5시를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지도방법도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자율적습관을 키우며, 사범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보고 느끼고, 선배배간에 서로 지도하며 익히는 방법을 장려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

3위 1체(三位一體)의 교육, 학교에서 근무하는 태권도 사범은 4위 1체(四位一體)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태권도를 학교에서 지도하는 사범님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동교육의 선봉자임을 인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4위 1체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자.

'86아시아게임 정식종목 채택으로 곧, 소년체전에 국민학교부가 곧 채택이 될테니까..... ④



승급 심사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유럽순회 태권도시범 및 경기



시범 구 정 회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





노르웨이 "아부래이 얼삼프드" 에서 이 규현 대사를 댈 때의 모습이다.

1984년 6월 16일

초여름, 막중한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인데 비까지 내렸다.

국가대표 성인시범단이 태권도협회 창설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파견으로 유럽 6개국을 순회 시범 및 친선경기차 장도에 올랐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세계의 태권도로 발전한 지금, 중주국의 차원 높은 시범과 모든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송 상근(세계연맹사무차장) 단장, 최 천규 (국기원운영부장) 주무, 김 영작 (시범분과위원장)의 위명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범단은 경유지인 「바레인」 「사우디 켈타」 「스위스의 류리히」 공항을 거쳐 핀란드 영공에 들어서자 기내의 스튜어디스가 핀란드의 영공임을 알려주었다. 기체 밑에 펼쳐져 있는 웅장한 집결수 숲과 잘 정돈된 농토와 넓은 평야에 아름다운 호수들은 자연의 부국임을 느끼게 하였다.

6월 17일

오후 6시 헬싱키 공항에 도착한 시범단 일행은 대사관의 영 국남공보관과 황 대진사범의 안내를 받아 시내의 "말타"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대사관 에서 베푼 환영만찬에 초대되어 핀란드의 태권도 실태와 현대 스포츠로서의 제 문제 등, 미래의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웠다. 이자리에는 김 동근 대사와 대사관 전직원의 스포츠기자 한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면서 태권도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핀란드에는 황 대진사범이 태권도를 보급시키고 있으며, 뿌리내린 지 5년만에 카라테, 쿡후, 합기도를 앞질러 체육회 등록을 마쳤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황 사범의 모습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엿볼수 있었으나, 한편 이역땅의 외로움이 엿보일 때는 가슴이 찡하였다.

6월 18일

하룻밤을 지낸 우리는 시차와 환경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아침 7시부터 2시간동안 몸을 풀고 오후 2시 1차 시범장소인 "투르크"를 향해 4시간동안 자동차로 달려 실내체육장에 도착하니 경기장에는 많은 관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시범에서 핀란드의 수련생들 (청띠, 홍띠)은 정신적인 무도로서의 엄격한 예의를 갖추고 기본동작과 품세를 보였고, 우리 시범단은 김영작위원장의 벽돌 2장 손날격파를 필두로 본인의 공중 4방격과, 김 현성사범의 생발고축, 이 중관사범의 편손끝찌르기, 최 봉호사범의 뛰어 (점프)회축격과와 고공고축, 품세, 호신술등 다양한 테크닉과 묘기들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이번 유럽순회 시범은 앞차기 부분의 위력과 묘기, 옆차기의 위력, 돌려차기, 회축순서로 발차기 종류

유럽인들은 체력, 신장, 지구력등의
강세로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수련을 할 경우,
태권도의 종주국임만을 자부함은 금물이며,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무도차원에서의 수련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겠음을 느꼈다.

의 위력과 실기를 분리하였고 중간
중간에 품새와 호신술을 연결하여
보였으며, 정리단계로 순간적인 여
러력과동작과 묘기들을 슬로우모션
(Slow motion)으로 한번더 보여 주
어서 관중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왔
다.

1차 시범은 성공리에 마치고 “투
르크”市 체육회 부회장 “말달라”
氏와 대사관 직원들과 작별하고 출
발하였다.

6월 20일

19일 헬싱키로 속소를 옮기고 시
범단은 1952년도 올림픽을 치른 헬
싱키 경기장을 관람하고 중세기의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고대의 건축
물들을 관람하느라 하루를 보내고
20일 아침엔 쉬고 약간의 트레이닝
을 한 후 오후 6시 헬싱키올림픽을
치루었던 “야래” 체육관에서 약 1,200
여명의 관중과 김 동근대사 가족과
대사관직원, 핀란드 태권도 협회장
“엘키”氏를 모시고 2시간여의 시범
과 겨루기 경기를 보였다.

김 기호사범의 머리위의 사과 격
파물일 격파된 송판등이 관중석으
로 날아갈때마다 관중들은 더욱 많
은 갈채를 보냈다.

겨루기 경기는 5전5승으로 핀랜
드 대표선수들의 실력은 한 두수아
래이었다.

현지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많
은 태권도 시범을 보았고 애기들었



〈성인시범단 임원과 시범단원들〉

지만 이런종류의 성인시범은 처음
보았다면서 향수의 눈물을 흘렸다.

6월 21일

조용하고 깨끗하고 장엄한분위기
를 느끼는 고대의 건축물들은 뒤로
하고 비행기편으로 스웨덴의 “스톡
홀름”에 오후 4시10분에 도착하였
다.

도착 즉시 이곳 사정에 의해 시범
스케줄이 앞당겨져서 한인회장인
조 장완박사와 조 영호사범의 안내
로 곧 시범장소인 “솔라해렌” 체육
관으로 왔다.

“솔라해렌” 체육관은 종합경기장
으로 3천여명을 수용하는 곳으로,

스웨덴 종합무술협회의 주최하에 가
라데, 쿵후, 검도, 유도등 우리
태권도 시범도 이 행사계획에 포함
되어 있었다.

2,500여명의 관중들은 각기 다른
무도술을 수련한 수련생들이 대부
분이었다고 했다.

시범 첫 순서가 우리팀과 스웨덴
대표선수와의 겨루기 경기였다.

김 기호선수의 앞돌려차기, 뒤후
리기등 묘기의 속출과 특징이 이루
어 질때 마다 관중들의 열기를 더
해갔으며 정 국현선수가 상대를 다
운시켰을 때는 경기장이 흥분의 도
가니었다.

이어 가라데, 쿵후, 검도등의 시범이 있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우리 시범단은 핀란드 시범으로 자신을 얻었고 또 열렬한 관중들의 호응으로 사기가 진작되었었고, 더우기 타종류의 무술과 견준다는 마음에 더욱 사기가 올랐다. 경기장에는 공보관 및 대사관직원, 교민10여명이 “코리아”를 소리쳐 부르며 응원을 하였다.

모든 관중의 시선과 스웨덴 국영 T.V의 카메라가 긴장이 감도는 한 순간 순간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한가지 한가지씩 서두름없이 “슬로우모션”을 한번씩 보여주며, 스피드, 테크닉, 위력등을 한가지씩 여유있으면서도 신중하게 펼쳐나갔다. 본인의 삼바 앞차기 시범에서는 예비동작이 진짜 격파인줄 알고 카메라맨들의 후려쉬가 터져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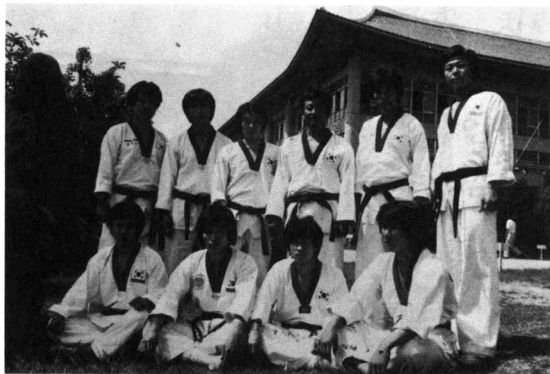
그러나 기합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송관을 보고 탄성의 함성과 함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 종관사범의 손끝격과 와 김현성사범의 호신술 단도대련에서 순간적으로 방어하며 날린 칼이 20m쯤 날아가서 바루바다에 꽂혔을때 장내는 긴장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시범이 끝나자 관중들은 너, 나할것없이 깨진 송관을 들고 싸인공세로 나왔고, 이 싸인공세로 일본의 가라데, 검도등 기타 다른 무술시범의 순서가 남아있음에도 사인공세때문에 한시간 이상 진행을 못하였다.

정말 멋지게 해냈다.

다음날(22일) “솔라해랜” 체육관에서 태권도 실기지도를 하였다. 수련생들은 한가지라도 더 배우고 익힐 의욕찬 모습은 지도를 하는 우



리들 마음을 엄숙하게까지 하여주었다. 이들중에는 덴마크에서 우리의 시범을 보러온 꼬마형제가 있었는데 열이는 물론 몸놀림도 좋고 이해도 빨라서 태권도의 큰 재목이라 생각되었다.

오후 이 청수대사의 환영만찬에서 이 대사는 나만이 외교관이 아니고 현재 태권도로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외교관이라고 우리 시범단원의 노고를 치

하하며 사기를 높여주었다.

6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市를 관광하고 왕궁을 관람하였는데 왕궁지하에 마련된 박물관에는 수백년전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옛날 스웨덴의 바이킹족이 일부 유럽쪽을 지배하였던 기록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

배를 타고 유적지를 돌아보니 새삼 중세기 분위기로 착각이들 정도



영국 엑스포드 “스톡홀름”



스웨덴 슐라해렌 경기장에서 시범을 마치고

었다.

오후 조 장안 한인회회장댁에 초대되었다.

6월 24일

스웨덴을 떠나 노르웨이 오슬로에 9시15분에 도착하였다.

노르웨이는 월남인 사범 “틴톤제트” 사범과 협회 임원들 그리고 수련생들 간의 조직활동은 철저한 것 같았다.

임원과 수련생들은 앞가슴에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까지 달고, 우리 시범단을 친절히 안내하였다.

노르웨이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시범단의 일정을 알려주며 노르웨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한국 전쟁시 참전국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오슬로 문취” 호텔에 여장을 풀고 민속박물관을 관람하고 유럽들의 포크댄스파티에 참석했다. 춤을 즐기는 노인들은 나이답지않게 정열적인 춤에 우리는 매료되었다.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소개를 하고 즐겁게 한때를 보냈다.

오후 이 규현대사는 환영만찬에서 이곳에는 얼마전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보였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북한과 대립된다는 데서 더욱 책임감과 태권도 종주국의 체모를 지켜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새삼 되살아났다.

북한 시범단의 시범수준이 궁금하여 수준을 묻는 우리에게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 묘기로는 한발로 공중세 번 돌려차기가 특이하였고 단방격파와 호신술이었던 것으로 대단하지 않음을 느꼈다.

6월 25일

오슬로에서 3시간거리인 “하마트” 실내체육관에서 대사관직원, 코트라직원 및 가족과 4,000여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제 4차 시범을 실시하였다.

제 5차 시범은 26일 7시 노르웨이 수도인 “아부레이델삼프드”극장에서 가졌다.

이 장소가 얼마전 북한시범단이 시

범한 동일장소(북한시범때 200여명의 관중동원)로, 우리는 혼열의 힘을 바쳐 차원높은 경기로 600여명의 관중들의 열광적인 감채를 받았고, 이 대사는 관중 동원이나 시범 차원이나 모든면에서 북한 시범단을 압도하였다고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며 새삼 애국, 애족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꼈다.

우리는 현지사범 “첸”의 저녁 초대를 받았고 밤에는 장 영사와 직원 몇이 디스코텍으로 가서 색인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었다.

6월 27일

우리시범단을 안내한 “데스키”와 “투르데”양의 잘별 “키스”세례를 열 땀땀한채 받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떠났다.

비행기편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을 경유,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다.

일기는 우리나라 초여름 같았고 시내 곳곳에는 우리나라 서울운동장만한 푸른공원들이 많았고 공원

에는 노인들이 산책하며 운동하는 모습, 노부부들의 다정히 거니는 모습, 젊은 쌍생의 연인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여유가 있어보였다.

도착 당일 오후 5시 김 재두, 정영일 사범의 안내로 "배티스타운" 호텔에서 런던 부시장, 대사관직원, 협회 임원들에게 6차시범을 보이고, 영국 대사관에서 마련한 식사를 하였다.

다음날(28일) 런던에서 약 4시간 차장으로 달려 중부 "맨체스터 카스트레이슈" 센터에 왔다. 종합체육관으로 각종시설이 완비되었고, 현지 신 동원사범과 그곳 수련생들의 시범을 선두로 시작되었다.

여자 수련생들의 민첩한 동작과 유연성 청년 수련생들의 절도있는 행동과 동양적 예절, 노력정신을 자랑하는 노인 수련생들의 격려시범들은 신 동원사범의 노력의 결실로 가라데를 비롯한 각종무술을 능가하라는 의지의 소산이라라.

우리의 시범은 관중 600여명과 가라데 수련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6차시범을 성공리에 마쳤다. 29일 펜타 보로지에서 7차시범을 마쳤고 8차시범은 영국무술협회 주최로 "엑스포우드"에서 가졌다.

가라데, 쿵후, 차력 등 각종무술 시범중 태권도 시범은 각종무술인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2,000여명의 관중을 매료시킨 시범이었다고 현지인들은 극찬 하였다. 4박 5일동안 안내를 한 중국인 현지 사범 S. W. Pan사범은 피로와 부상등이 겹친 상태에서 계속시범을 보인 시범단의 투지와 정신이 놀랍다고 감탄을 계속하며 격려하였다.

7월 1일

영국의 신 동원, 김 재두, 정영일, S. W. Pan사범께 작별을 한뒤 아쉬움을 남기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가라데, 쿵후, 차력, 각종 무술시범중 태권도 시범은 각종 무술인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2,000여명의 관중을 매료시킨 시범이었다고 현지인들은 극찬 하였다.

크"로 향하였다.

고전미가 풍기는 아담한 인스브루크, 하얀 백설이 덮힌 알프스산 밑에는 아담한 공향과 웅기종기 모여있는 가옥들, 눈덮힌 높은 산과는 대조적으로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속에 조심스럽게 밀고가는 유모차들의 귀여운 어련애의 눈망울이 햇볕에 더욱 영롱하기만 하다. 모든 풍경들이 행복하게 보였다.

"인스브루크"는 196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등산과 스키는 아니라 국민스포츠라고 한다.

산을 이웃하며 산행이 생활화된 이나라 국민들, 국민성도 자연을 닮아 순수하며,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넋을 잃었다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리라

이 경명, 김 정관사범의 안내로 고산지대에 위치한 "아파트먼트"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랜만에 이사범 부인의 순 한국식 음식을 먹으며 아름답고 웅장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피곤한 몸

과 마음을 씻어 주는듯 했다.

다음날(7월20일) 우리는 이 사범의 안내로 관광을 하였다.

하늘을 찌를듯 웅장한 전나무숲에 정갈한 산길, 산길따라 펼쳐진 계곡, 높고 깊은 경사에 흐르는 맑은물, 육중한 거봉, 넓게 펼쳐진 초원등은 "티롤" 지방의 목가적인 분위기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겠다.

오후6시 "크라이트 개부홀"에서 제9차 시범을, 7월3일은 음악의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김 양웅 사범의 협조로 10차 시범을 하였다.

7월 4일

비엔나에서 11차 시범을 가졌다. 오발바 구할래체육관에서의 시범은 오지리, 터어키, 등 3국이 참가하였으며, 오지리처럼 터어키와 경기를 하였고 오지리와 한국이 경기를 가졌다.

터어키 선수들의 투지와 기량은 대단하였다. 또 오지리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않았다. 이 경기에서 중 주국의 위신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태권 한국의 내일을 위하여서 더 충분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여야 했

으며 체력관리(지구력)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느꼈다.

시범은 실수없이 잘하였다. 오지리국영TV방송국에 태권도의 새로운 멋과 맛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이 광배, 이 경명사범은 흡족해 하였다.

7월 5일

비엔나에서 1박후 이태리 로마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였다.

마중은 박 선재(이태리 협회부회장) 사범의 안내로 로마 시내로 들어서는 우리는 유명한 “로마”를 실제 보게된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천여년 전의 건축물과 신화가 담긴 역사 등등의 기대부편 일행에게 새로운 인종과 언어는 신선감마저 주었다.

“넬트세 호텔”에 여장을 풀고 박영길, 박 선재, 유 성열사범이 배운 저녁만찬에 참석했다.

7월 6일

이태리 대사관에 베푼 오찬을 상해반점에서 갖고 “팔라자도대로”체육관에서 현지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기지도도를 하였고 오후 7시에는 지 연태대사와 교황청 김좌수 대사 및 이태리협회 임원, 교민, 국영TV가 자리잡은 체육관에 우리의 한복을 곁에입은 이태리 아가씨들의 안내로 양국 국기를 나란히 앞세우고 입장을 하였다.

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질때 우리는 지난 10여회의 시범을 회고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굳게 다짐하였다.

경기에서는 6전 4승 2패로 이태리 대표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하였다.

스피드와 순발력이 좋아 득점면에서도 비슷하다고 표현해도 무방

하다고 할까?

받아차기, 몸돌려차기, 턴, 뒤엎차기, 후리기등 우리선수들의 기량을 거의 다 마스터 한듯 했다.

7월 7일

오후 1시 열차편으로 “나폴리”의 콜라나 체육관에서 오후 4시~6시까지 태권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6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국가원에서 품 심사를 보는것처럼 부형들의 열의 또한 대단하였다. 실가지도가 끝난뒤 우리 시범단원은 여기 저기 불려다니며 기념촬영의 모델이 되어야 했다.

이어 오후 7시에 시작한 시범경기는 나폴리의 수다스러운 관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14번째 시범은 나폴리의 밤을 열기의 절정으로 이루어져 하였다.

나폴리 렉스호텔에서 1박하고 멀리 폼페이의 화산을 바라보며 5시간을 달려 부린디시 시립 체육관에 도착하였다.

1,000여명의 관중과 협회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시범이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다짐하며 열과 성을 다졌다. 대성황이었다.

7월 9일

로마에 도착하여 1박하며, 긴장풀린 몸을 푹쉬었다.

박 선재사범의 안내로 관광을 하였다.

어디로 가나 찬란했던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것 같았고, 가히 세계종교의 심장부답게 바티칸의 교황청에는 각국의 인파로 붐볐다.

사원 앞 광장에는 비둘기 무리가 먹이를 얻기위해 반기어주고, 광장 뒷골목에 즐비한 스카게티와 생선요리 내음새가 식욕을 충동한다.

오후 교황청 대사 공관에서 저녁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시범단 전원은 “돌아오라소렌토로”의 이태리 가곡을 부르며 공식 입장을 마쳤다.

27일간의 기간이었지만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프랑스 파리를 거쳐 7월 12일 파리를 출발 귀국길에 올랐다.

13일 오후 4시 30분 공항에 도착 27일간 15회의 순회 시범을 마무리 지었다.

유럽순회 시범에서 얻은 값진 것은 자기발견에 있었고, 넓은 세계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아직도 유럽지역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라데와 태권도를 혼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태권도를 통하여 동양의 무도 정신과 예절을 통하여 한국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시범을 통하여 태권도는 가라데보다 기량이 뛰어나며,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체력, 신장, 지구력등의 강제로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수련을 할 경우, 태권도의 중추구입만을 자부함은 금물이며,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무도차원에서 수련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었음을 느꼈다.

순회시범기간중 각국의 현지사범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사관의 배려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순회시범을 하도록 추천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성인시범단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성인시범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유럽지역 순회

태권도시범단 주요일지

- 유럽지역 태권도 순회 시범단의 주요사항과 성과, 문제점, 건의사항을 귀국 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참조바랍니다.

1. 일반사항

가. 기 간: 1984. 6. 16~7. 13

(28일간)

나. 대 상 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오지리,

이태리(6개국)

다. 파견인원: 12명(임원:2명, 시범

요원: 10명)

라. 주관부서: 세계 태권도 연맹

마. 주요시범내용

- 1) 기본동작
 - 2) 품 세
 - 3) 시합 겨루기
 - 4) 격 파
 - 5) 기타 태권도 묘기
- 바. 방문국 선물 수여

1) 방문국 각 협회

- 각 협회장에게 감사패 수여
- 각국 협회-페난트 30장, 세계 연맹 뱃지 30개
- 2) 방문국 주재 공관
- 각 대사에게 세계 연맹 벽거리 수여
- 각 대사관 직원에게 페난트, 뱃지 지급

2. 유럽지역 태권도 시범단 명단

직	책	성	명	현단	비	고	직	책	성	명	현단	비	고
단 장	송 상 근	7 단	WTF	사무차장	국기원	운영부장	시범요원	이 중 관	5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주 무	최 천 규	7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장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김 충 석	4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조장	김 영 작	7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박 천 재	4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구 정 회	5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정 국 현	3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김 현 성	5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이 재 봉	3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최 봉 호	5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시범요원	김 기 호	3 단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3. 각 방문국 태권도 시범성과

- 가. 태권도 순회 시범으로 한국에 대한 홍보활동 공헌
- 나.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이미지 부각
- 다. 스포츠 교류로 인한 방문국과의 선린우호 증진
- 라. 태권도 시범을 통한 국위선양

일익 담당

- 마.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 및 태권도의 우월성 주지
- 바. 주재 태권도 사범 및 교포 위로 및 사기양양
- 사. 태권도 시범을 통한 주재공관의 대민활동 일익 담당
- 아. 기타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 및 복귀 태권도 침투 사전봉쇄

4. 문 제 점

- 가.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능토록(체육관 확보 및 홍보)하는 준비기간이 적었음.
- 나. 해외 태권도 홍보활동 결여
- 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도 결여(가라데와 혼동)
- 라. ITF 제 태권도 품세수련자가 많

5. 유련사회 시범단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84. 6. 16(토)	18:50 김포공항출발	바레인, 젠타, 주리히 경유
84. 6. 17(일)	18:00 핀랜드(헬싱키) 도착	시범 2회, 경기 1회
84. 6. 21(목)	15:15 핀랜드(헬싱키) 출발	(3박 4일)
84. 6. 21(목)	16:15 스웨덴(스톡홀름) 도착	시범 1회, 경기 1회
84. 6. 24(일)	08:30 스웨덴(스톡홀름) 출발	세미나 1회 (2박 3일)
84. 6. 24(일)	09:15 노르웨이(오슬로) 도착	시범 2회, 경기 2회
84. 6. 27(수)	10:35 노르웨이(오슬로) 출발	(2박 3일)
84. 6. 27(수)	13:35 영국(런던) 도착	네덜란드(암스텔담) 경유
84. 7. 1(일)	08:45 영국(런던) 출발	시범 4회, 경기 4회 (3박4일)
84. 7. 1(일)	14:00 오지리(인스부르크) 도착	스위스(주리히) 경유
84. 7. 5(목)	11:40 오지리(비엔나) 출발	시범 3회, 경기 3회 (3박4일)
84. 7. 5(목)	13:10 이태리(로마) 도착	시범 3회, 경기 3회
84. 7. 11(수)	10:50 이태리(로마) 출발	세미나 3회 (5박 6일)
84. 7. 11(수)	12:00 프랑스(파리) 도착	프랑스(파리) 경유
84. 7. 12(목)	11:50 프랑스(파리) 출발	
84. 7. 13(금)	16:40 김포공항 도착	앙카레이지 경유

이 분포

- 마. 한국인 태권도 사범 노동허가 취득 에로 및 파견인원 회소
- 바. 북괴의 태권도 시범단 및 사범 파견에 대한 대비책
- 사.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 및 기술 개발 연구 촉진
- 아. 시범단 인원구성 및 일정 계획 의 미비
- 자. 기타 한국 태권도 시범단 상설 및 훈련 미비
- 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권도 시범단 지원 및 년례적으로 해외 파견 제도화
- 카. 태권도 계 임원들의 각국 방문 협회 조직강화 및 격려 요망.

6. 건 의

- 가. 하계 및 동계 휴가철을 피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시기를 이용 시범단 파견이 요망되며, 시범장소등 사전 준비에 약1년전에 계획이 추진되도록 전세계

에 걸친 시범단 파견 예산의 확보 보증.

나. 비행기내 또는 공항 그리고 방문국에서 우리 시범단을 보고 무슨 선수냐고 물으면 태권도 시범단 이라고 대답하면, 잘 모르고 손짓 발짓하여 보이면 그때 “아! 가라데” 하는 식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계통의 홍보 채널이나 해외 여행자를 통한 태권도 소개가 요망.

다. 한국의 전통적 태권도와 ITF 태권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수시 해외 지도사범 교육이나 초청교육이 요망.

라. 특히,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2배정도 되는 큰 나라인데 한국 태권도 사범이 1명 또는 한사람도 파견 되어 있지 않아 태권도 보급에 미흡한 상태. 정부측에서 1~2년 파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망되며, 영국 및 해외의 주재 태권도 사범들의 노동허가 및 영주권 취득에 정부측 배려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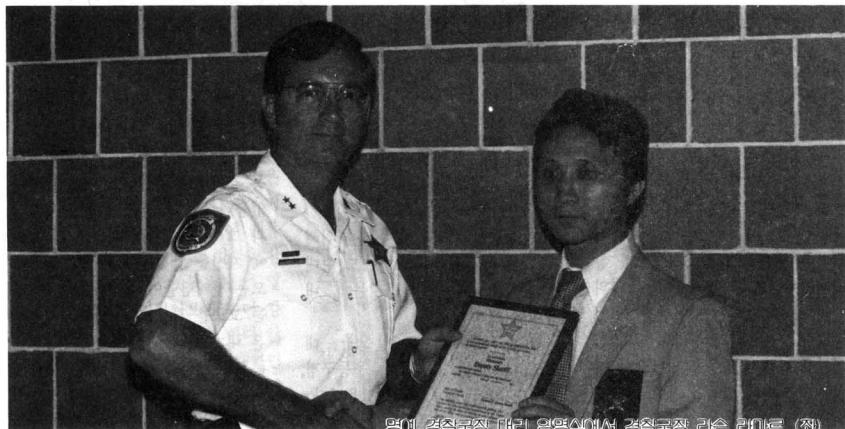
- 마.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태권도 영화제작 해외관공을 통한 홍보와 정부측 홍보책자에 태권도에 관한 기사계제로 해외 태권도 홍보강화 요망.
- 바. 북괴의 해외 태권도 침투 저지를 위한 우리 시범단의 제도적인 해외 파견과 한국 사범파견이 요망.
- 사. 타 무술보다 우월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술 개발로서 시범경연대회 또는 경기로서 우수사범 다수 배출이 요망(적업업선 및 해외파견 추진)
- 아. 시범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관중이 흥미가 많으므로 시범단 파견시 시범조와 경기조를 구분 각 10명씩 최소한 20명으로 구성, 1회 시범후 1일 휴식할 수 있는 차후 시범단 파견일정 계획이 요망.
- 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해외 순회시범 파견을 위한 상설 시범단 구성의 필요성을 감안 시범단 급료 및 유지를 위해 연간 6~7천만원 소요경비를 정부측 지원요망.
- 차. 해외 태권도 사범 및 교포의 사기양양과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 또한 국위선양을 위해 년례적으로 태권도 시범단 해외파견이 진요함.
- 카. 태권도 지도자급 수시 해외 파견으로 각국 회원국 협회 조직강화 및 한국 태권도 사범지도 교육으로 국가관 고취요망. ※

태권도로 국위를 선양한

김영군사범

TV에 출연하고 후배를 양성하면서 태권도 정신 소개해

(※ 본 내용은 미국전지역에 보급되는 한국신보에 게재된 김준식기자와의 대담임)



명예 경찰국장 대리 임명식에서 경찰국장 라슨 린마를 (좌)
경찰 휘장을 달고 임명장을 수여받는 태권도 사범 김영군 (우)

지난 9월 27일 오렌지 카운티경찰국으로 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명예 경찰국장 대리로 임명된 태권도사범 김 영군씨 (39세)는 울란도 지역에서는 가장 저명한 한국인 중의 하나다.

그는 지난 82년도 Jefferson Award for Outstanding Public Service 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의 활약은 이미 ABC, NBC, CBS 등 주요 TV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번 소개되어졌으며, 전세계 1백 5개국에 보급되는 잡지 "태권도" 금년 가을호에 특별히 6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었다.

한국과 한국인의 명예를 오늘도 아낌없이 높히는데 공헌하고 있는 김 사범을 찾아 그의 꿈을 들어보

았다. (대담 : 김 준식 기자)

- 축하 드립니다. 금번 명예경찰국장 대리로 임명되신 소감을 우선 묻고 싶군요.

※ 오늘의 이 영광은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주신 전 태권도 사범님 과 특히 나를 키워주신 이 중우 관장님, 이민 초행길에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

신 장 영준 선배님, 박 동근선배님 박 연희 선배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고 있는 현 수련생들의 성원이 없었던들 오늘의 제가 없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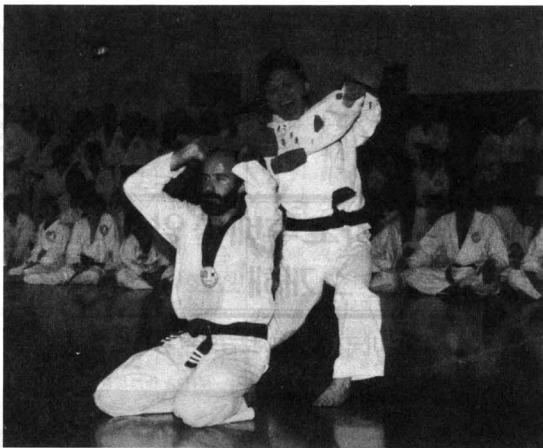
- 제가 아는바로는 현지 미국시민들도 가장 큰 명예로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식에서 설명할때 김 사범님께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태권도 수련을 통한 사회 '악' 근절과 대화를 통한 불우아동 돕기, 태권도 장학회 설립, 부자유아동 및 보육원 아동 돕기운동 등등, 지역사회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요 태권도 발전으로 알고 열심히 할 것을 뿐입니다.

- 그와같은 정신은 어디서 나왔는지요?

●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강한 육체를 얻었으며, 강인한 육체속에서 건전한 정신을 얻었고 태권도를 통해서 (수련과정) 불의보다는 정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속에서 정의는 멀리 있지않고 가까이 있음을 알았으며 진실은 정의속에 있음을 몸소 깨달은바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 김 사범님은 태권도 사범님이라기 보다 불량 청소년의 아버지조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명세 또한 물론 수없는 신문기자와 라디오 인터뷰, 잡지, TV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이 시장이름은 몰라도 꼬마들로부터 지식층 까지 Y.K.KIM, Y.K.KIM하는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TV프로그램은 정규방송으로 나가고 있는지요?



빨간벽돌 세장 세위 손날격파 김영근사범

● 매주 수요일 Y.K.KIM's Practical Self-Defence 태권도 정규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대식 종합체육관을 운영하시는데, 내 용이 어떻게?

● 하루 24시간 주 7일 오픈, 태권도, 나들러스, 로빅댄스, 운동구점, 태권도 잡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 사업적으로 특히 태권도계에서도 대단히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결이라도 있으시면...?

● 본인은 지금까지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일했고, 무식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으며 약자가 되기 싫어서 살을꾸는 아픔을 이겨내며 운동했습니다. 미국, 이 대지 위에서 대한민국 고유무도인 태권도시범으로서 젊음의 이상을 펼치지 못한다면 무식과 게으름과 약함을 뜻할 뿐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태

권도인이라는 자부심과 한국인이라는 긍지심을 단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잘난 자부심과 그 못난 긍지심 때문에 정의 속에 자신을 맡겼을때, 이민초행길에 모든 선배님들이 그러했듯이 수없는 고초를 겪었으며, 허나 나 자신은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을 알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내가 가는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며,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이 발판위에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 태권도와 가라데는 무엇이 다른지요?

여기에는 가라데 "가" 자도 찾아볼 수 없군요. 적어도 이지역에는 무도하면 태권도, 태권도 하면 한국인들을 연상케 해주고 또한 Y.K.KIM하면 한국인을 연상케 해주는데 지금도 다른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혹 코리아 가라데라고 써 붙인

간판을 보곤 하는데……

◆ 그것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못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태권도는 한국의 고유 전통무술이며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무도중의 무도 태권도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이며 태권도는 태권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내 마음 아픈 곳을 찔렀는데, 누구라도 가라타는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허나 이제라도 쓰는 분들이 있다면 없는 것으로 알겠지만, 후손들에게 태권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간판을 내용대이치고 태권도 간판을 달아야겠지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보호할 힘도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솔직하게,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있다면 태권도를 제쳐놓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캐틀릭 로마교회청보다 더 큰 각광을 받을 것이며, 미국의 풋볼보다 더 열광적인 것이며 마파아보다도 더 강한 조직이 될 것을 의심치 마다 하겠습니다. 본인 김 영균은 대한민국 고유전통문화유산인 태권도100년 대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산생명을 알더라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 그렇게 태권도를 사랑 하신게 된 동기라도?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는 나에게 강인한 육체를 만들게 해주었으며 태권도 정신수련을 통해서 불의보다는 정의의 택하여 언제나 약자앞에 설 수 있다는, 결국 태권도는 인격형성의 길잡이입니다.

내가 자라날때 아버님은 용인 중

태권도 정신수련을 통해서 불의보다는 정의의 택하여

언제나 약자앞에 설 수 있다는,

결국 태권도는 인격형성의 길잡이입니다.

고등학교 설립이사장이자 교장직을 겸하시던중 6.25때 국토방위에 헌지에 임하시어 전사하시고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법관이나 의학자가 되길 고대하였으나, 모친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직업. 그러나 현재 본인은 태권도 사범임을 무엇보다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인들 뿐이 아니라 오히려 특히 한국에 자칭 지식층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몽상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태권도인을 마치 주먹질이나 발질하는 뒷골목에 주먹대장으로 아는 불쌍한 인간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심신단련이며 인생수업에 있어서 인격형성에 바른 길잡이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어지러운 세상을 참다운 무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세상을 평정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 김 사범님이 발간한 책은 그간 어떻게 판매되었는지요?

◆ 현재 7만여권이 전세계적으로 판매되었으며 구독자들로 부터 많은 격려의 편지와 주문체도로 5번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만을 예로 들더라도 태권도는 이제 우리 것 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다 같이 애도하는 유일무이한 무도중의 무도입니다.

- 많은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과 건강을 비오며 깊은 조국애와 태권도에 태정신의 고마움에 인사 드립니다.

김 영균사범은 사업적으로나 명

예적으로도 성공했으나 아직도 그 혼한 개인승용차 하나 없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태권도 후배 양성과 사회사업에 열중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깊은 마음의 존경을 드립니다.

◆주사: Y.K.Kim's Fitness Center (TAE KWON DO Nautilus)

1630E. Colonial Dr.
Orlando, FL. 32803

◆전화: (035) 898-2084 (305)

성명: 김 영균 (39세) 태권도7단
1977년 미 체육회 초청으로 남미에서 미국에 입국.

1977년 뉴욕 이민정착 (채소가게, 의류상, 문방구점, 그로서리 전진금공)

1978년 현 플로리다 이주, 태권도장 개관.

1979년 불우아동, 고아원, 불구자 돕기운동, 태권도대회 창설.

1980년 TV태권도 매주 특별정규프로 개설, 방영.

1981년 종합체육관 신축 (24시간 1년 365일 오픈)

1982년 제퍼슨 상 수상(최우수사회봉사상, 미국 대통령)

1983년 영문 태권도지침서 발간 (전세계 판매중)

1983년 라틴대학 체육과에 태권도 정규과목으로 채택, 교수 지도.

1984년 전통 태권도 잡지 (Traditional TAE KWON DO) 편집국장 임명 (105개국 판매량)

1984년 명예 경찰국장대리 임명.

카타르



(단장 RUSTOM HAJI BACER)



시범 나 종 열

(QATAR)

사막지대로 우리나라 경기도 땅 넓이와 비슷한 반도국으로 OPEC (석유수출기구)의 회원국이다. 인구는 25만(원주민15만, 외국인10만)으로 국민소득 2만6천달러로 세계 1위이며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있다.

우리나라와는 74년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8개의 건설업체에서(1981년) 7,500여명의 인력이 진출해 있다.

나 종열사범은 79년 3월 카타르 정부 초청으로 출국하여 군부대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였다.

그는 도착 즉시 79년 5월 하마드 카티마부대 졸업식전에 태권도시범을 해달라는 청에 새벽 4시~6시까지 매일 두시간씩 연습을 하여 황태자와 왕자들이 참석한 졸업식장에서 성공리에 시범을 마쳤고, 6월 CISM (국제군인체육대회)대회에서 시범을 하였고, 7월에는 아시아 축구 예선대회식전에서 시범과 카타르 사관학교 졸업식전에서의 시범, 5차시범은 중·고교생들의 군입영 훈련(3개월) 졸업식전에서 시범을 하였다. 기온은 높고 연일 계속되는 시범훈련에 눈코뜰사이가 없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시범의 효과가 지대하여 79년 9월 유단자심사검 종주국 전지훈련을 45일간 나올수 있었음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음의 결과이다.

그러나 보수도 적고 자국인 우선의 정책으로 제 3국인의 예우는 엉망이었으나, 태권도 사범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참고 버티어 나갔다고 술회하였다.

81년 4월에는 82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45일간 한국에 전지훈련을 하였고 82년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시아대회에 첫출전하여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 5위를 하였다.

선수들은 귀국하여 황태자로부터 400만원상당의 보너스를 받았고,나 사범도 군번1052번의 육군소위의 특전을 받았다.
(※카타르에서 육군소위는 고급 승용차, 저택, 가족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나라에서 책임지며 어느곳이든 검문검색없이 드나드는 신분보장이 되는 직급이라고 함.)

열심히 땀흘린 보람으로 84년 10월 12일 다시 전지훈련을 온 팀은 인원 3명 선수11명으로 엘버씨터호텔에 여장을 풀고 11월 4일까지 머물며 오전에는 국기원에서 기본기 및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세대, 유도대학, 서울체고, 동성고교, 상무팀, 동국대학등을 순회하며 실기수련을 쌓았다.

단장 루스툼 하지 버커(RUSTOM HAJI BACER) 씨는 카타르 군스포츠 전종목의 책임자로서 싱가포르대회때 단장으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려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4년만에 다시와 보니 서울이 많이 좋아졌고 또 카타르팀의 실력도 한국선수와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은근히 팀전력의 자랑을 하며, '86아시아안 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이되어 더욱더 관심이 간다고 말한다.

또한, 나 종열사범이 훌륭하게 선수를 지도했음이 한국선수를 보니 실감난다고 나 사범을 자랑하며, 제 3국인이지만 카타르의 모든것에 적응을 잘하여서 이만큼 효과가 있으며, 태권도선수들 모두가 코치의 술선수범하는 언행을 닮아서 모범되게 생활하고 있다고 칭찬을 한다.

귀국하여서 황태자에게 상세히 보고를 해서 협회를 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말했다.

타 종목의 회회경기시에는 술과 여자관객등으로 문제가 많았으나

태권도 팀은 일체 잡음이 없다고... 카타르는 사회내에 폭행은 일체 없으며 절도(도둑질)를 하면 손이 썰리우는 엄한 벌이 있어 도둑은 사회에 없으며, GNP. 1위와 버금가게 사회복지제도도 잘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카타르에는 4명의 한국

사범이 있다.

나 중역사범은 특수부대인 왕실 경호대와 왕을 직접 경호하는 수행 경호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며, 우수성 사범은 군 CID, 구 우필, 허영사범은 군헌병대를 지도하고 있다.

「끈질긴 노력앞에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생환신조로 지금의 카타르에서의 「내」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나 사범의 표정에는 신념이 넘쳐 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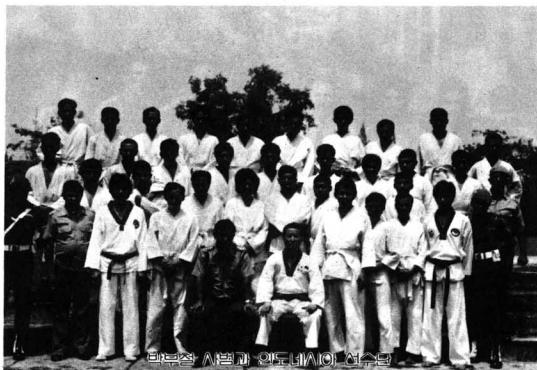
● 카타르 전지훈련단 명단

○ RUSTOM HAJI BACER	단장
○ AHMAD SALEHA	감독
○ NA JONG YEOL	코치
선 수 군 인	
(1) IBRAHIM EID	2단 (운동경력5년)
(2) ABDULLA MARZOUK	" "
(3) ALMASS MOHAMMED	" "
(4) HUSSAIN MOHAMMED	" "
(5) RASHED MOBARAK	" "
(6) AIED KHITHER	" "
(7) ABDUL MUGEEED	" "
(8) OMAR SOWAYIEM	" "
(9) IBRAHIM IBRAHIM	" "
(11) AULTAN MAJID SULTAN	" (10)
(11) EBREED ELMAS	" "

(1) EBRAHIM KHALIFA	" "
(2) FAREED ELMAS	8급 (3개월)
(3) IBRAHIM TAIAB	" "
(4) A-RAHMAN ABDULLA	" "
면 적	1만 1,000km ²
인 구	25만 (1981)
인구밀도	23인 / km ²
수 도	도하
공 용 어	아라비아어 (語)
통 화	카타르 리얄 (QR)
환 율	1달러=3.64카타르리얄 (1982)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60억 2,000만 달러 (1980)
무 역	수출 37억 6,840만 달러 (1979)
	수입 14억 2,555만 달러 550



인도네시아 (INDONESIA)



박부철지도사범

을 확보하며 상당수의 유단자를 배출, 동남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태권도 인구를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태권도장의 간판을 내건 체육관이 전국에 한 곳도 없다.

거의가 군부대의 시설, 학교시설, 호텔정원 또는 공한지를 이용하여 1주일에 2일정도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처럼 태권도 사범을 직업으로 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이유는 일주일에 2회 수련회비를 우리돈으로 약 1,000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좋은 나라라고 태권도 보급을 하려고 왔다가 고생을 하다가 물러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곳에 83년 1월 파견된 본인은 10만여명의 태권도인중 6할 이상이 국제연맹(ITF) 계열이며, 나머지가 세계연맹(WTF)로 양분되어 극한 투쟁은 물론, 제각기 다른 경기 규정으로 별도의 행사와 경기를 실시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세계연맹으로 통합하기위하여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안톤장군을 태권도 협회장으로 추대 1983년 6월 서울에 초청 정부관리 및 군·경 책임자를

대한민국 국토(남·북포함)의 약10 배에 달하는 넓은땅에 인구 약 1억 5천여명이 14,000개의 섬에 흩어져 생활하는 나라,

수백여종의 지방및 토속 방언들이 있고 지방과 섬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괄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국민학교에서 표준어를 교육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 특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

종교는 힌두교, 불교를 거쳐 현재는 국민 90%이상이 회교도를 믿는다.

약450여년전에 포르투갈의 상인 및 군대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후 화란의 식민지통치를 350년 가까이 받

았으며 일본의 통치도 3년6개월 만다가 1945년 8월17일 해방이 된 나라이다.

국민성은 열대남방기후와 같이 느리고 성격이 단순하며 화를 내는 일이 거의없을 정도이며 회교도의 영향으로 신에게 의존도가 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나라에 태권도가 시작된 동기는 전 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했던 최홍희씨가 1962년 말레이아 대사로 부임하여 말레이 반도에 태권도를 대대적으로 보급함에 따라 그 여파가 인도네시아에 파급되어 1970년 최홍희 후계자에 의하여 협회창설 후 군부대, 관공서, 학교등에 조직을 확대하여 6만7천여명의 수련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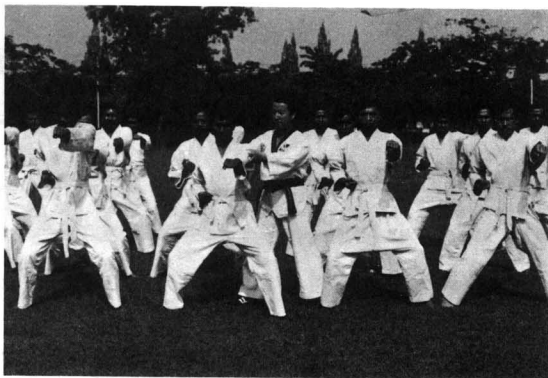
방문하고 국기원에 김윤용총재를 방문 태권도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시범경기를 관람하는 등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후 안톤장군(인도네시아협회장)을 필두로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세계연맹에 가입을 종용 유단, 유급자를 세계연맹에 귀속시키는 작업에 성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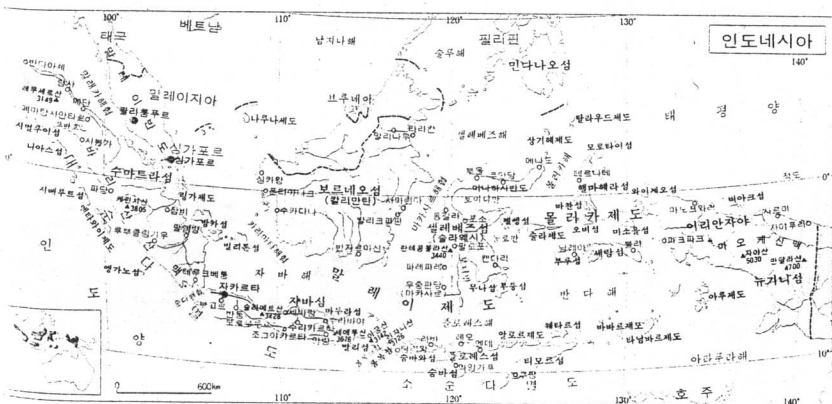
이어 품세지도, 실기이론, 경기규정, 단증교체, 도복교체, 명칭통일등의 제반사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작업을 하는 동안 외부의 반대세력의 끈질긴 도전과 위협이 많았으나, 협회장인 안톤 검찰총장의 적극적인이고도 철저한 방비로 순조로웠음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현재는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해군본부와 경찰학교에 우리의 태권도가 정식 교육과목으로 채택되어 출장지도를 하며 한국대사관 학교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며 안정된 분위기에서 확고히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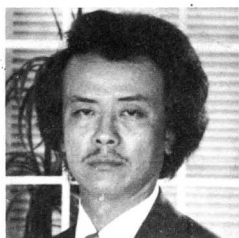


면적: 190만4,345km ²	환율: 1달러=657.2Rp (1982)
인구: 1억5,189만 (1980)	국민소득: 국민총생산528억7,300만 달러 (1979) 1인당 370달러
인구밀도: 79인/km ²	무역: 수출 155억 9,010만 달러 (1979) 수입 72억 200만 달러
수도: 자카르타	
공용어: 인도네시아어(語)	
통화: 루피아(Rp)	



파키스탄

(PAKISTAN)



사범 오윤탁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접이지
대에 자리잡은 나라 정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다.

서쪽으로는 이란, 아프리카니스탄,
북쪽으로 힌두쿠시, 캐라고람의 양
산맥을 사이에 두고 소련, 중공, 동
쪽으로 인도와 접경하고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면해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배가 넘으며,
쌀, 면화등 관계농업이 발달한 나

몬똥막기(몸통막기), 파이콕 일짱(태극1장)

황웅양우(좌우향우) 등을 외우는 제자들에게서

관짱놈(관장님)께 공례(경례)로 시작

되면 수련에서 하루해가 저문다.

라이다.

오윤탁 사범은 다른 사범들이 대
부분 그러하듯 맨주먹 뚫는피에 도
복 한벌을 걸머메고 태권도인의 긍
지로 3년전에 파키스탄에 도착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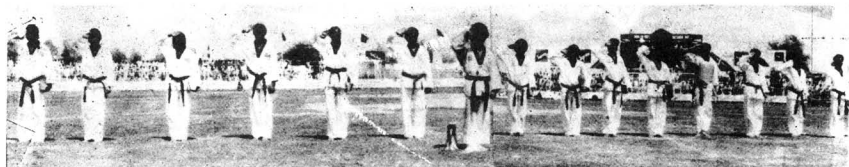
다부지게 마음을 먹긴 하였으나
도착해 보니 기대치 이하의 태권도
불모지와 막막하였다.

우리나라 사범 세분이 거쳐(머물
지 않고)간 곳이라고는 생각 되지

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태
권도 보다 먼저 진출한 "가라데"
때문에 동양무술 종류는 모두 가라
데로 불려지고 있었다.

오 사범은 현지 협회의 초청으로
온 유일한 사범으로 가라데의 간판
을 떼고 태권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
였다. 더운 곳의 국민성은 인내심
과 근면성은 부족한 정도가 표현불
능일 정도이다.

더움기만 하니가 웬만하면 나무



밑에서 한 두시간 낮잠을 자며 체력관리를 하는 습성들이 대대로 전래되었고, 복잡한 일이나 머리를 써야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는 게 상식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13년여전에 미국에 가서 “가라테”를 몇개월 배운 현지인 한 사람이 무도보급을 시작하여 스스로 4단이 되었고 자칭 가라테 제왕으로 군림하며 3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으며, 모두들 “내가 제일의 실력자다.” 라고 답하는 스승과 제자의 제통이 없는 난장판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태권도의 기술만 가르치는 것은 불량배에게 권총을 쥐어 주는 것임으로, 오 사범은 우선 정신교육으로 “정직하기” “겸손하기” “약속지키기”를 철저히 교육하였고, 고가표를 작성하여 신상필벌의 방침을 확정, 급수를 강등시키거나 승급등으로 질서와 전통을 바로잡기를 3년...

그리고 모든 용어를 한국말로 복창시키며,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승급심사에 응시할 수 있게하



인치 하나로 2인치 송편을 격파해 보이는 오 사범

였다.

몽둥막기, 파이콕 일장(태극 1장) 청룡양우(좌우향우)등을 외우는 제자들에게서 관장님(관장님)께 공례(경례)로 시작되는 수련에서 하루 해가 저문다.

체계를 세우고 거리의 잡스러운 무도인을 몰아내고 이제 부터는 태권도의 시합 방법등을 지도하기 시

작하였다.

조그마한 약골의 한국사범 한 사람이 육척장신의 제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불같이 더운 사막에서 뛰며, 또 뛰고 있다.

이제 카라치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부를 두고 20개 도장에서 1300여명의 수련생이 태권도 수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범과 수련과 교육의 연속으로 태권도 보급에 정열을 불사르는 오 사범의 건승을 기원한다. (한)



면적	80만 3,943km ²
인구	8,458만(1981)
인구밀도	104.2인 / km ²
수도	이슬라마바드
공용어	우르두어 (語)
통화	파키스탄 루피 (Pakistani Rupee)
환율	1달러=9.9 P. R(1980)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300억 달러 (1980) 1인당 355 달러
무역	수출 20억 5,600만 달러 (1979) 수입 40억 6,130만 달러

네 팔 (Nepal)

지도사범 신재균



중공의 서남부와 인도 북부지역 위치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높은 대(大) 히말라야산맥과 소(小) 히말라야산맥등 세계의 높은 산들의 집합소이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0.7배 정도에 1,6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기온 15℃ 우리나라의 가을 일기와 같다.

계절을 구분한다면 여름과 겨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름은 30℃ (낮기온) 겨울엔 3℃ 정도로 평지에서는 얼음을 볼수 없으며 5,000고지 이상이라야 눈과 얼음을 본다고 한다.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관광수입으로 생활을 하며 에베레스트, 마나슬루, 아니푸르나, 다울라기리등 산악인들이 동경하는 8,000m급 고봉이 즐비하여 세계의 산악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간다고 한다.

1984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대비, 전지훈련차 내한하였다. 이들은 국기원 근처 호텔에 여장을 풀고 국기원에서 기초훈련과 태권도 명문학교를

순회하며 수련을 쌓았다.

신수를 인솔하고 온 신사범은 76년 출국하여 홍콩에서 4년여를, 미국에서 2년여를 태권도 사범으로 수고를 하던중, 82년 12월 네팔정부의 초청으로 네팔에서 왕실경호요원과 군인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83년도에는 군인을 지도할 사범교육을 1기, 2기, 3기로 나누어 200명을 지도하였다.

면 적 : 1만8,390km²

인 구 : 146만 (1981)

인구밀도 : 79.4 인/km²

수 도 : 쿠페이트

공 용 어 : 아랍어 · 영어

통 화 : 쿠웨이트 디나르(Kuwait Dinar)

환 율 : 1달러=0.2872KD (1982)

국민소득 : 국민총생산 309억 달러

(1980) 1인당 1만 9,830 달러

무 역 : 수출 174억 8,000만 달러

(1979) 수입 53억 5,100만 달러

'86아시아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군인, 경찰에게만 보급되던 태권도를 민간인에게도 수련할 수 있게되어 왕족이며 네팔올림픽위원장 사라드 찬드라샤하

(SHARAD. CHANDRA SHAHA)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2개주(행정구역 12개주)에 체육관을 개설 제자들이 파견되어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팔에는 10년전에 가라타가 보급되어 가라타인들의 도전 및 방해, 와해공작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태권도의 우수성과 '86아시아 게임 확정등으로 거의 물리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음짓는 작은겨인(?)의 모습에서 태권도를 다시한번 보는데 하였다. (한)



제44기 지도자교육실제



국기원 교육원에서는 84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10일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15일 오전 10시 전형심사로 품세 심사를 실시하여 자격기준을 파악 선별하고 11시에 입소식을 가졌다.

입소식에서 홍종수 부원장의 격려사와 이종우 교육원 부원장의 환영사등으로 거행하였다.

총97명이 등록하여 25개의 교과목에 65시간의 강의시간으로 10일간의 교육을 마쳤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고른 연령수준에 수강생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모범적이었다고 강사들은 평하였다.

결격자 4명을 제외한 92명이 25일 수료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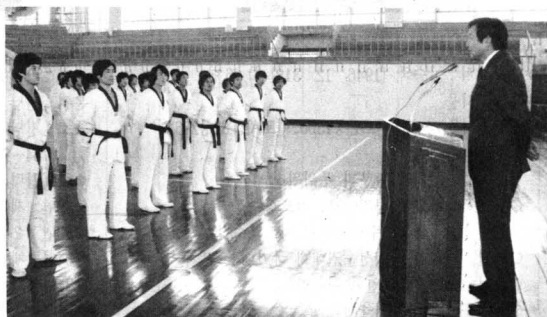
수료식에서는 이청림, 이재봉, 심복룡, 김채길등, 4명이 우승상을 받았고, 김대용, 강용구, 홍성남, 유정근등이 표창장을 받았다.

~ 교육이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이수자 명단 *

김갑수	윤종성	한상돈	이석우
조영선	김기만	김인성	차도철
이창길	전용국	황승호	김만근
이석일	김동두	신동룡	이슬이
김정태	성태진	박승동	주영식
이시동	전준철	최상문	김정운
윤 식	이광석	주양기	김창영
이형중	최영덕	한정호	박재용
김영철	신문호	강영찬	권성희
이청림	장광명	김종규	김기수
유근만	이재봉	유영수	이민수

조병연	오배균	박익권	임현규
조병학	하권익	김복수	김창석
임중수	최충호	이영택	홍성남
김용현	이대성	정병준	김대용
최영노	장창영	최금철	유정근
김선범	최중환	임덕택	서범석
박지현	강용구	김채길	김광식
신승하	이광수	이재순	최준희
장영두	이창현	류승수	주철호
임흥기	최창성	김희동	신일섭
정영길	문병호	이수정	유병천
김원섭	곽원규	진익조	변동기



대표선수

강화훈련 코치선정

본회에서는 '84년 10월 24일 10시 본회 사무실에서 기술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선수 강화훈련 코치 및 트레이너를 각각 2명씩 선정하였다.

이들은 '86아시안 게임까지 대표선수 관리 및 훈련을 책임지게 되었다.

태권도가 '86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태권도 출범이후 처음으로 태능 선수촌에 11월1일 11시 입소식을 가졌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훈련비를 받으며 '86아시안 게임까지 계속 합숙훈련을 실시한다.

현재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임원과 선수는 다음과 같다.



▶수석코치: 이승국 (1946. 12. 31일생) 6단

본적: 서울

주소: 서울 강남구 반포본동1300, 반포APT82동206호

●주요경력

○81~82년 선수강화분과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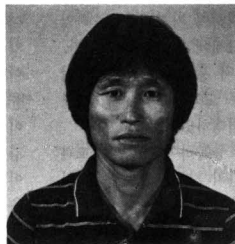
○제16, 18회 대통령기 쟁탈 지도상수상

○82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지도상수상

○83년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코치

○84년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장

○84년 현재 한국체육대학 조교수



▶코치: 박현중 (1944. 3. 15일생) 6단

본적: 전남

주소: 전남 광주시 방림동 393-14

64~74년까지 선수활동

●주요경력

○82년 제17회 대통령기 쟁탈대회 지도상수상

○83년 2급 경기지도자 교육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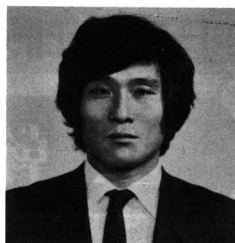
○84년 제 6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84년 현재 전남 태권도협회 경기이사

전남 체육중학교 체육교사



- ▶트레이너: 주신규 (1953. 6. 9일생) 5단
 본적: 서울
 주소: 서울 동대문구 목1동 105-1
 ●주요경력
 ○68~78년 국내선수로 활약
 ○2급 경기지도자 교육필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트레이너
 ○현재 동대문상고 코치



- ▶트레이너: 진중의 (1957. 8. 11일생) 4단
 본적: 전남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50
 ●주요경력
 ○77~80년 선수활동 국가대표 (79년) 헤비급
 ○2급 경기지도자 교육필
 ○제4회 세계대회 트레이너로 참가
 ○현재 유도대학 조교

●국가대표선수명단●

●A팀 명단

체	급	성	명	생	년	월	일
핀	급	김	지	태	1966.	1.	14
플	라 이	김	준	태	1966.	8.	15
벤	팀	권	기	문	1964.	4.	10
페	더	장	명	삼	1963.	5.	16
라	이 트	한	재	구	1962.	12.	20
웰	터	이	준	명	1964.	3.	19
라이트	·미들	정	국	현	1962.	3.	15
미	들	박	상	식	1964.	4.	28
라이트	·헤비	김	종	석	1963.	6.	3
헤	비	고	영	철	1963.	9.	4

●B팀 명단

체	급	성	명	생	년	월	일
핀	급	함	준		1968.	1.	21
플	라 이	고	정	호	1964.	5.	26
벤	팀	유	명	식	1966.	12.	9
페	더	정	우	용	1963.	1.	15
라	이 트	박	봉	권	1968.	2.	20
웰	터	유	종	철	1963.	2.	17
라이트	·미들	이	강	식	1963.	1.	28
미	들	장	질	환	1962.	8.	14
라이트	·헤비	이	정	진	1964.	7.	14
헤	비	노	욱	상	1960.	7.	17

한국대학태권도연맹

金 翰 周 회장 취임



회장 金 翰 周

86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채택,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 확정등으로
발전일로에 있는
태권도에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한국 대학태권도연맹은 이 상주(강원대학총장) 회장의 사임에 따라 金 翰周 경기대학장이 새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승화하여 국제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세계인이 즐겨하며, '86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채택,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 확정등으로 발전일로에 있는 태권도에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전제하시며, 역대 회장님들이 종합대학교 총장님이었는데 학장이 맡아서.....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회장 재임기간중에 태권도에 관한 전문서적을 발간하여 대학태권도 연맹의 구실을 하겠으며, 85년도에는 종합대학교로 본교가 승격되며, 본교에도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배구, 유도, 조정, 씨름과 같이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학의 태권도 활성화」에 시동이 걸린듯,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최 인법전무의 밝은 표정에서, 김 회장님께 거는 대학태권도인의 기대는 자못 큼을 느낄 수 있었다.

第39周年 警察의 날 記念

江原警察武道大會



경찰국장 허웅



시범 김대연

제39주년 경찰의 날 기념, 무도대회를 도경찰국 주최로 1984년 10월 20일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거행했다.

본대회에는 도 경찰국을 비롯한 도내 17개 경찰서가 참가하였다.

12년만에 부활된 본 무도 대회는 태권도에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를 실시하였는데 평소 연마한 무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태권도와 유도를 응용한 체포술 경연대회에서는 갖가지 묘기가 속출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시범경기인 제2기동대장 최인길 경감의 지휘로 진행된 총검술과 호신술, 태권도 격파술에는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낼정도로 훌륭하였다. 금번 도경찰국 무도대회에는 119명의 선수가 출전 선수의 명예는 물론 소속 경찰서의 명예를 걸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본대회의 특성은 중앙대회의 출

전한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로 구성하였으나 출전선수가 고무 수준높은 기량으로 관중을 매료시켰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허웅 도경찰 국장은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며 「경찰의 무도는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

해 꼭 필요한 것이며, 호신기술로서 전직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무술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매년 무도대회를 개최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허웅 도경찰국장은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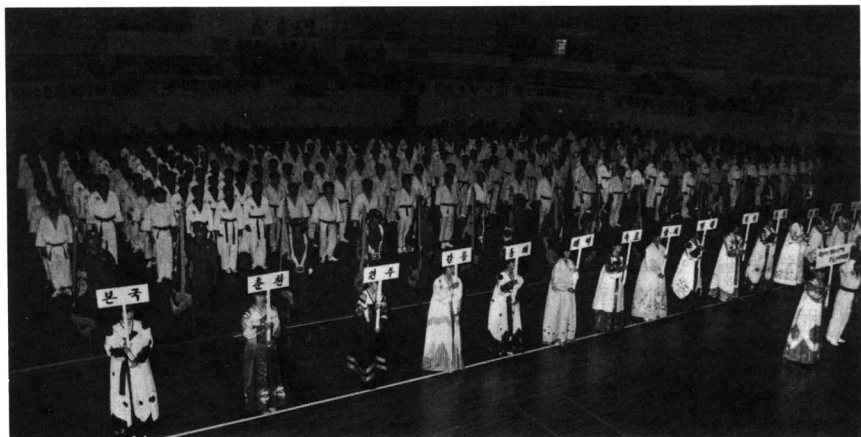


태권도협회 박 병철전무이사와 심관원 15명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입상자에게는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무도발전을 위한 조치를 치하였다. 서울에서는 이 영근(경찰대학사범), 이 태명(서울시경사범)사범이 내려와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본대회의 특이한 일은 10월20일 결혼식이었던 김 기남(속초경찰서) 순경은 태권도선수로서 결혼식을 하루 뒤로 미루고 출전하여 개인전에서 우승한 트로피를 결혼식전에서 신부에게 안겨줌으로 동료 및 많은 축하객의 박수를 받으며 더욱 뜻있는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경찰의 무도는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호신기술로서 전직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무술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부산협회

시합 한달전부터
자진해서 삭발을 하는
정신무장을 보여 체전의
첫 금“메달 리스트”
가 되었다.

머리를 삭발을 한 고등부 태권도 선수팀의 결의는 보는 이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부산체고 1학년에 재학중인 김태형선수는 해운대 우 1동에서 식당

을 경영하는 김창희氏의 2남 1녀중 차남으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 부산에서 거행하는 시합에서는 거의가 우승을 하였고, 소년체전 2회 출전, 전국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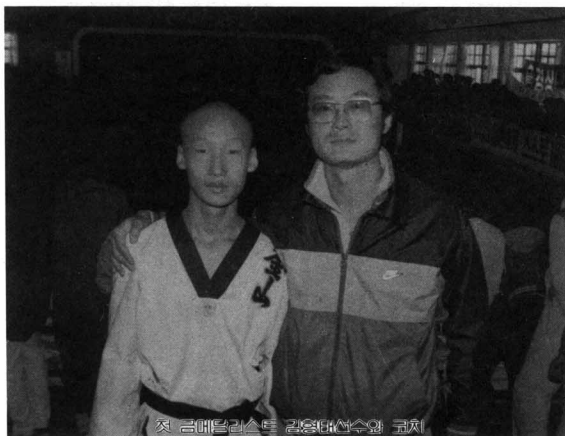
인 중별선수권대회에 3등에 입상한 유망주.

시합 한달전부터 자진해서 삭발을 하는 정신무장을 보여 체전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아버지 김창희氏는 특기가 운동이니까 국가대표로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할것이며, 86아시아 게임에서 꼭 우승을 하여 국위를 선양하겠다고 다짐하는 김선수의 모습은 영광의 그날을 보는듯 하였다.

부산협회 부회장이며 전무이사 겸직을 하는 이도윤전무는 6월 1일부터 필승의 신념으로 5개월여 훈련을 하였다고 토로하며, 부산협회의 고질적인 잡음으로 어려움이 있음은 삭발까지하며 필승을 다짐하는 티없는 고등부 선수들과 대조적인 느낌이었다.

손석익회장 후임으로 새로 취임한 김무룡(충열상자 대표)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단결된 새로운 부산협회의 모습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첫 금메달리스트 김태형선수(왼) 김창희



고등부선수들

대구협회



정신훈련과
기초체력훈련을
위하여 201특수여단에
입소하여 정신교육과 체력훈련,
산악훈련등으로 강훈을...

본 체전을 주최한 대구협회 조
용명코치(고등부·일반부)는 대구
시 순회코치이며, 비산동에서 중
앙도장을 경영하는 외골 人生 태권
도인이다.

김창홍(대구고검형사 제2부부장
검사)협회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
문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위입
상을 목표로 이완욱(대학부)코치와
합심하여 4개월간 합숙훈련을 실시
하였다. 정신훈련과 기초체력 훈련

을 위하여 201특수여단에 입소 정
신교육과 체력훈련을, 산악훈련등으
로 강행군을 하였다. 코치가 120일동
안 15일밖에 집엘 못갔다고.....

대구의 고등부 선수 확보의 어려
움은 태권도를 하는 중학교가 1개
교밖에 없음에 고등부는 6개교가있
어 고등부 우수선수 확보가 매우 어
렵다고, 국민학교 태권도부는 많은
데 비해 중학교 태권도부가 1개뿐
임도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

체전준비 훈련비가 2,500여만원
이 들었다고... 그 결과로 4위입상
은 좁은 섭섭한 느낌이란.

불협화음이 없지 않았던 대구...

더구나 경상북도에서 쪼개진 선
수진으로 4 위입상은 큰 성과이며,
체전을 기회로 불협화음이 단결로
해소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30
여명의 임원이 각 시도에서 참가한
임원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헌신봉
사함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전남협회

사도 협회중에 단결이 잘되는 협회라고 소문(?)날 정도로 적극적인 임원들의 자세는 가히 극성스럽다는 표현이 가당하리라, 그만큼 열성을 다하니까 2위에 입상을 하였으리라.

전남협회의 태권도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태권도의 집안이 있다.

1남, 윤용열(7단, 조선대 공대교수) 2남, 윤원석(7단, 송원실업 전문대학생과군무, 전남협회총무이사) 3남, 윤용석(6단, 전남체육관

제5도장관장) 4남, 윤용철(4단, 학다리고교교사, 일반부벤티급선수) 5남, 윤오남(4단, 조선대교치, 조대 대학원재학) 등 오형제가 태권도 고단자들로 형제의 단을 합하면 28단이 되는 셈이다.

태권도를 시작하게된 동기는 부친 윤연홍씨가 3대독자로 태어나서서 5남 1녀를 두셨고 또 튼튼하고 씩씩하게 기르기위해 태권도를 시키셨다고 한다.

특히 금번 체전에 일반부 벤티급의 4남, 윤용철선수는 벤티급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학다리 고등학교의 제자도 출전하여 핀급의 서재강선수와 플라이급의 김우창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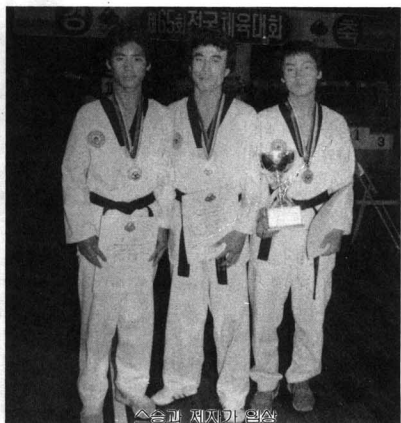
이는 단명하는 태권도선수의 통념을 깨는 좋은 본보기이며, 제자와 스승이 한마당에서 같이 실력을 겨루었음은 특이한 일로 조로하는 태권도 인에게 일침을 놓는 특효약이리라...

이들 형제들은 선수육성 뿐만아니라 광주시 상수동 전남체육관 본관을 중심으로 5개의 체육관을 운영 500여명의 관원이 땀흘리며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의 보급및 저변확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되어 태권도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한)

제자와 스승이 한마당에서 같이 실력을 겨루었음은 특이한 일로
조로하는 태권도 인에게 일침을 놓는 특효약 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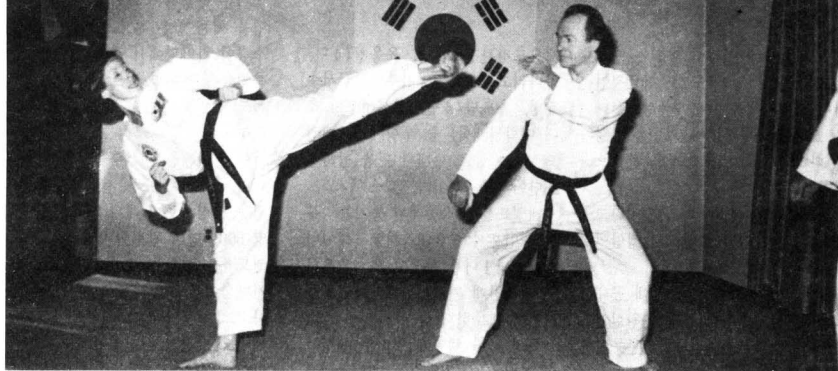
4월 제가... (text is partially obscured)



스승과 제가... (text is partially obscured)

프랑스 대사 부부 승단

(French Ambassador H.E. Mr & Mrs Andre Baeyens Promoted Taekwondo Black Belt)



주한 프랑스 대사 부부가 태권도 초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프랑스 대사 앙드레 베이언스(Andre Baeyens)와 부인 모니카 베이언스(Monica Baeyens) 부부는 82년 10월부터 주 3 회씩 (1회1시간30분수련) 김연경 사범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은 무도정신에 입각하여 태권도의 예의를 철저히 지키며, 매우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며, 부득이한 일로 수련을 하루 빠지게되면 다음날 한남동 소재 외인주택 태권도 도장에 나와 수련을 할 정도, 또한 개인지도이지만 수련시 모든 구령은 우리말로 지도하며, 스스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며, 「전화번호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간단한 생활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수련을 시작하여 만 2년 만인 84년 10월21일 서울시 태권도 협회에서 실시한 심사를 보아 당당히 승단하였다.



이들은 지난 9월23일 제15회 주한 외국인태권도 선수권대회에는 귀빈으로 참석하였으며, M.B.C.TV 등에 태권도를 소개하여 태권도 보급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연경 지도사범은 외국인 지도를 15년여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남동 외인주택에 체육관을 마련

5세~18세의 수련생 65명, 8군 역내의 성인 35명을 지도하고 있다.

55세와 45세의 나이답지않게 1분에 앞차기 80회, 복근운동(윗몸 일으키기)을 100회씩하는 대사 부부들을 보면 태권도외의 건강증진에도 대단히 발전이 있어 마음 뿌듯하다고 김 사범은 말했다. ㉠

윤예숙 여사

(김지태선수어머니)



김지태, 회장으로부터 김지태를 받고 있다.

지금도 편집선수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려서도 작고 얹전하기만 하여 취미로 광복국민학교 재학시 작품을 하였다.

국교 2년에 시작한 태권도가 시합선수 조련의 명수인 전판선 사범에 의해 다듬어져 국민학교 편집의 왕자로 성장한 김선수는 중학진학을 특기입학을 마다하고 한양중학교에 입학할 하여 1년 6개월을 태권도와 인연을 끊었다.

그후 김선수는 몸무게가 급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시합에 출전 입장을 하였고, 다시 태권도선수로 복귀 태권도의 명문 한양중학교에 스카우트되어 소년체전에 서울대표로 참가 3위에 입상하는 천부적인 재질을 발휘하였다.

한국체육의 기둥을 육성하는 곳이라 자부하는 서울체고에 입학 각종 전국대회에서 1위를 입상한 그는 83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전에서 1위로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

김지태선수는 말이 적고 내성적

인 성격으로 매사에 빈틈이 없으며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선후배간의 예의가 바른것은 태권도 수련의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윤예숙(尹禮淑) 여사와 아버지 김남중(金南鍾) 氏의 삼남매(2男1女) 중 막내로 윤예숙여사는 국민학교재학시 각종 시합장에 그림자처럼 한번도 빠진일이 없이 참석한 열성과 어머니.

김천, 광주, 춘천등에 따라다니

면서 건강을 관리하여준 덕분에 연세대학교의 태권도부에서 운동한 것으로만, 등록된 4,000여명의 선수를 물리치고 대표선수가 되었다.

그는 체고 재학시 학업성적도 상위였고 연세대학에서도 평점 3.35로 장학금을 받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 윤여사는 운동을 하면 공부 못한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씀하시며 모두가 자신이 하거나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태권도 시합장에 10여년을 드나든 어머니는 이제 시합후의 승패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태권도인이 되셨다며, 그래도 아들의 경기는 채점표가 배심에게 넘겨지고 주심이 양선수의 손을 잡을 때는 눈을 감고 보지를 못한다고.....

이제는 온가족이 '86아시안 게임에 국가 대표선수로 출전 개인의 영광은 물론 국위선양의 일익을 담당토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훌륭한 선수를 기르신 어머니의 그 지극한 정성에 보답코저 11월 2일 우수선수권대회 시상식전에서 김운용 회장은 감사패를 드려 노고를 위로하였다. (한)



동 아 체 육 관



관장 김 중 영

대한태수도협회시(63~65년)남선하고 단단한 체격으로 선수생활을 했던 김 선수의 모습은 유독나 역도를 한사람 처럼보였다.

1957년도에 동아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시작하여 30여년간 태권도와 생활한 그, 2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동아체육관의 이름을 사 용하여왔다.

김 관장은 66년 출판업에 투신, 현재 오성(五星)출판사를 경영하며, 출판사 건물에 40여평의 체육관을 개설 후진양성을 겸하고 있다.

김 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늘 너그러운 사람으로 관원들이 내 아들 딸처럼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는 말일성도교회의 장로로서 사회복지를 위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국내각 중경기의 배심(1급심판원)으로 활



동하며 서울시협발족당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국민학교연맹 경기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기원 새생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체육관을 늘 아끼는 후배들에게 인계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만 도 네차례나 되며, 20년간 체육관

운영에 김 관장의 지도를 받으며 도복을 입은 숫자는 3,000여명이 넘으며, 유품자 배출도 1,000여명에 달한다.

체육관장의 영증 국민학교에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84년 9월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관원 거의가 영중국



(영중국민학교 운동회, 태권도 시범)

교생들로 모범생들이라고 말한다.

영중 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인 김재현군은 1981년 9월에 2품 심사에서 품세상을 수상하였고, 1학년부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하게 되었고 태권도 수련의 덕이라고 말한다.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과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는 김관장,

우리 모든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수련은 후배양성과 취미를 살리는 부업으로 각박하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인사(人師)로서의 모범을 보일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사범들의 정성어린 노고가 필요하며, 밝고 여유 있는 태권도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발길을 돌렸다. (현)

김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자매결연 기념품을 받고있다.

군부대와 자매결연

통 일 체 육 관

관장 남 목 현

'83년 봄 군부대 위문을 갔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매년 2회의 위문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자매결연을 맺은후, 부대에서는 매월 승급심사시 부대장이 직접 승급심사에 참여하여 부대에서 주는 상장과 트로피를 우수자에게 수여하여 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軍民)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은 해병 제2사단 벽안교육대를 방문하여 색색한 해병아저씨들과 친하게 되었음은 물론, 국군아저씨와 취사장에서 같이 식사하며, 내무반에 들려 각종 장비(총, 칼, 철모등)들을 가까이 접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등, 호기심을 풀어주는 즐거운 시간이되며,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펼치는 태권도 시범은 군장병들에게 태권도 수련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청량제가 된다고.

또한 군장병과 체육관 부형들의 친선배구대회 격구등을 실시하며, 가을에는 산에서 밤줍기, 도토리줍

기등은 어린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남 관장은 말한다. 군부대 방문시 태권도 마크를 새긴 추레닝, 도복등을 선물로 증정하여 태권도에 관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된다고.....

남 관장은 태권도에 입문한지 25

년여에 체육관 운영 13년여...

현재 통일체육관만 9년이 되었다. 남 관장은 체육관 운영을 타종목의 학원에 비교하여 앞설수 있는 모른 방법을 연구 동원하여 교육의 첨단을 가고자 늘 개선하고 창조해나가고 있다.





군부대원문 기념촬영

태권도를 통한 심신단련외에도 정서교육과 학교공부에 신경을 써, 체육관 윗층(3층)에 20여평의 도서실을 마련, 3,000여권의 각종 도서를 준비해 놓고 체육관에 일찍은 어린이들은 운동시간까지 도서실을 이용하거나, 숙제를 하는등, 운동후에나 어느 시간이고 자유롭게 도서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책 속에 있는길, 읽으면 나의길」
「책을 읽어 심전을 경작하자」는 표어속에 가지런히 앉아 독서하는 관원들의 모습은, 호젓한 풍경이었다.

김상근 사범은 군부대 위문 2회, 소풍을 제외하고도 년 2회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하며 가정 환경조사로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는 무료로 태권도지도(현, 관원 200명중 20명이 무료로 운동을 함)

또한 매월 심사시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각종목(야구, 복싱, 축구, 연예인등)의 스타들을 초청하여 같이하는 시간을 마련하는등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나쁜것이 아니면 충족시켜 주는데 최우선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부 90여명, 초·중·고부가120

여명으로 관원이 200명 이하가 되어 본 일이 없는 체육관임은 운영자의 노력과 정성에 비례하는 것임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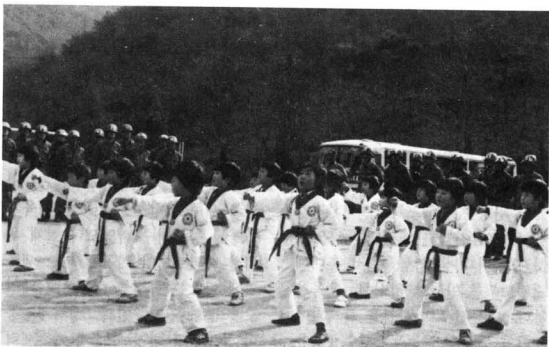
동네에서 청소년 선도위원, 광명국교 체육진흥위원회 이사, 학원연합회 체육분과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함은 물론, 매년 경조잔치를 성대히 개최하며, 불우 이웃돕기 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하여 전달하는등,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이 분주히 뛰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뛰며 봉사하는 것

이 모두 체육관과 연계가 지어지지 않는으나 도움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또한 헬스클럽도 병행하여 남아성인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며, 망원동에도 경성체육관을 개설 2년여 운영하고 있다.

국기원 기획분과 위원, 서울시험회 상벌분과 위원으로도 참여하며, 타 종류의 학원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고 말하는 남 관장의 분주한 모습에서 태권도의 발전을 보는듯 하였다. (현)



엘리트

튼튼 체육관



관장 장재우



충효(忠孝), 성실(誠實), 인내(忍耐)를 관훈에 「관원의 생활신조를

1. 나는 적극적이다.
2. 나는 합리적이다.
3. 나는 부지런하다.
4. 나는 끈기가 있다.
5. 나는 목표가 있다」를 매일 잠재적으로 고취시키며, 한치의 한눈도 팔지 않고 교육을 시킴을 느낄 수 있는 체육관.

장 관장은 중학교 1학년때 건강을 위하여 시작한 태권도를 홍익대학(도자기과)에 입학하면서 홍대에 태권도부를 만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선수로 출전을 하게되어 5회의 우승을 하는등,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고 해군 태권도부 창설시 이 계승선수와 같이 해군 대표선수로 태권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군제대후 4년간 미군 미사일 부대에서 4년간 사범으로 근무하고, 미국에서 도장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79년 본체육관을 개설 5년이 되었다.

본 체육관을 운영하기전에는 시합을 위주로 선수를 키우며 체육관 운영에 동분서주 하였으나 현재 위치한 아파트촌인 이곳에서는 체육관에 나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태권도를 통한 건강증진과 성격개조등이 목적이라 환경에 맞게 기초체력

증진과 극기력향상등, 정신적인 면을 중시 지도하고 있다.

장 관장은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들은 거의가 말잘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태권도 수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체육관에 이제는 직업이 되었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다행스러움을 느꼈다.

유치부 운영은 6세~7세를 년 초에 40명을 입관시켜서 유치원 과정을 마친다.

아침 9시~10시까지 명상의 시간으로 라보(영어기초발음교육)엑시조 낭송, 성현들의 말씀등을 들으며 자유롭게 정서교육을 시키고, 10시~11시까지 강도높은 기본체력 훈련과 태권도수련, 11시부터~12시까지는 보육학을 전공한 여선생이 지도를 하고, 12시에 유치부 교육을 마친다. 일반 유치원과 다른 점이라면, 태권도를 통한 강인한 정신과 튼튼한 몸은 물론이며, 잘잘못을 확연히 구분하며, 예절이 바르게됨을 나름대로의 장점으로 체육관 태권도 유치부의 인기가 좋다고 말한다.

「문제의 부모는 있고
문제의 선생은 있지만
문제의 아동은 없다.」라는 말을 되

문제의 부모는 있고, 문제의 선생은 있지만, 문제의 아들은 없다.

새기며 늘 반성하는 자세로 어린이 앞에 선다고 말하는 장 관장에게서 도자기를 만들던 정성을 어린이들에게 쏟는 것을 보는 듯 하였다.

毎月 실사를 실시할때 부형들과 필요한 상황을 의논하고 상담을 하여요 하는 부형은 별도로 상담을 하는데, 부형과 체육관이 3위1체교육으로 성격조사분석및 행동관찰시표를 사무실에 게시해 놓고, 언어면에는 발음의 정확성, 침착성, 발표력, 존대말등, 정서면에는 감정의 표현, 명량성, 부지런함, 주의산만, 반항적 질투심등, 사회면에는 정직성, 책임성, 솔선수범, 인사성, 리더쉽, 참음성, 반성할 줄 아는 사고등을, 건강 자연면에는 위생습관, 편식관계, 신체발달현황, 활달기민성, 창의성, 사물에 관한 관찰능력등을 입관해서 조업할때까지 세세히 부형들과 협의 운영하고 있다.

주 1회 야외학습(태권도 수련은 매일실시)을 실시하여 산교육을 시키며 매월 1회 제과공장, 유유공장 옷만드는 보세공장, 피아노공장, 신발공장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일용품의 생산과정을 보여주며 물자를 아껴쓰는 정신을 고취시키며, 농장에 가서 실제로 고구마를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시키는등 산교육을 위하여 견학 실시한다.

또한 월 1회 어린이들을 체육관에서 잠을 채워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율성 훈련을 시키며, 남아들뿐만 구성된 태권도 유치부원들의 정서교육으로 옆교실의 무용학원 어린이들과 친교시간을 월 1회 갖고 년말에는 종합발표대회겸 심사를 실시하여 수련한 결과를 총 결산한다.

“태권도장”의 운영이 그리쉽게 느껴지지않았다. 바른행동, 바른



크기조련으로 주먹 쥐고 발로 밟기를 하는 어린이들

말씨, 꾸준한 연구와 세심한 배려가 없이는 체육관을 운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요즈음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부형들의 관심도가 높아감에 따라 유치원은 물론, 무용학원, 미술학원, 주산학원, 피아노학원, 유아원등의 교육매체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온정성을 다 쏟든지... 를 하여야 한다고 장관장은 강조하며, 요즈음 P.R 시대에 비해 태권도 전반적인 홍보가 빈약함으로 각도장의 자체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둘 생겨나시고 흰 머리카락이 하나씩 보일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고생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태산보다 높은 아버비의 마음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 은혜
어찌 한 시인들 잊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는것만이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힘차게 부르짖습니다.」라고 부모님 은혜를 매일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

「저의 이름은 ○○○ 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살,
그러니까 ○띠 입니다.

저희집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이고

현재 ○○국민학교 ○학년에 재학중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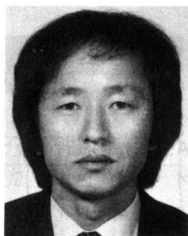
취미는 ○○입니다.

특기는 태권도 입니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의젓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어린이로 만드는데 교육, 사범님의 딱딱한 기합소리 보다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모이자,의 곡에 맞추어 몸세태극 1장을 하는 유치부 어린이들, 국기훈련으로 고사리주먹을 쥐고 엎드려 팔굽히기를 하는 어린이들, 아동시절부터 운동의 생활화에 첨단을 걷는 행동교육의 선봉자, 태권도인들 이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진하리라. (한)

跆拳道 競技

判定内容의 分析 研究



清州大學校

專任講師 鄭 萬 淳

I. 緒 論

A. 研究의 必要性

우리나라의跆拳道가 다가오는 86년의 아시안 게임과 88년의 서울 올림픽 경기의 개최를 앞두고, 더욱 발전하여 명실 상부한 세계적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심판 수준을 향상시켜 올바르게 정확한 판정으로 오심을 줄여 모든경기자들은 물론 태권도에 관심있는 관중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跆拳道 경기의 심판에서 公正하고 올바른 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과 심판규정보완, 기술개발 등의 조치가 매우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판 활동의 과정이나 내용은 물론 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판 요원들에게 再投入(Feedback) 함으로써 판정 기술을 향상시키고, 심판의 자질을 높여 심판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이라고 보아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B. 研究의 目的

이 연구는跆拳道 경기의 심판에 있어서 판정의 일치도와 함께 착오심의 경향을 알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跆拳道 경기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알아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 경기 결과에 대한 심판원들의 심판 내용의 판정 일치도는 어느 정도인가?
2. 태권도 경기의 심판 결과에 대한 심판원들의 착오심 경향은 어떠한가?
 - a. 경기 수준별 착오심 경향.
 - b. 심판 위치별 착오심 경향.

C. 研究의 範圍.

1.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한 자료는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경기의 자료이다.
2. 판정의 일치도와 착오심의 비율이나 경향을 알아 보는데 그쳤으며, 그 원인 분석 등의 심층적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II. 研究의 方法

A. 調査 分析 對象

이 연구는 1984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13회 전국 소년체전중 실시된 태권도 경기에서 시행된 총 97게임의 심판원 485명의 판정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B. 調査 分析 内容

모두 97게임을 치르는 동안에 이루어진 심판원 485명의 판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1. 경기 판정 결과에 대한 심판원들의 판정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아 보기 위한 판정일치도.
2. 경기 판정 결과에 대한 심판원들의 착오심 경향
 - a. 경기 수준별 착오심의 경향
 - b. 심판 위치별 착오심의 경향

III. 研究의 結果

A. 跆拳道 경기 심판의 判定一致度

전국 소년체전 태권도 경기의 전체급에서 실시된 79게임 총 485명의 판정 내용의 경기 결과에 대한 판정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체급별로 판정일치도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전체의 판정일치도를 산출하였다.

1. 핀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바른판정, ×·착오판정

구 분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 결승전			합
심 판	경기번호	1	2	3	4	5	42	43	44	45	74	75	90	계
주 1 2 3 4		○	○	○	○	○	○	○		○	○	○	○	· · 1회 2회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결 과		홍	홍	홍	홍	홍	청	청	홍	홍	홍	청	청	
판 정 일 치 도		0.8	1.0	1.0	1.0	1.0	1.0	1.0	0.8	1.0	0.8	0.8	1.0	93.3%
오 심	회 수	1 회					1 회				2 회			4 회
	비 율	$\frac{1}{25}=4\%$					$\frac{1}{20}=5\%$				$\frac{2}{15}=13\%$			$\frac{4}{60}=6.7\%$

○핀급의 심판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연 60명의 판정에서 93.3%의 판정일치도를 나타냈으며, 총 4명의 착오심이 있었다.

2. 플라이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 ○·바른판정, ×·착오판정

심 판	구 분 경기번호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계
		6	7	8	9	10	46	47	48	49	76	77	91	
주		○	○	○	○	○	○	○	○	○	○	○	○	1 회 2 회 2 회 2 회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판 정 결 과		홍	홍	청	홍	청	청	청	청	청	청	홍	홍	88.3%
판 정 일 치 도														
오 심	회 수 비 율	3 회 25=12%					2 회 20=10%				2 회 15=13%			7 회 60=11.7%

○플라이급 심판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연 60명의 판정에서 88.3%의 판정일치도를 보였으며 착오심도 7명으로 나타났다.

3. 밴텀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 ○·바른판정, ×·착오판정

심 판	구 분 경기번호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계
		11	12	13	14	15	50	51	52	53	78	79	92	
주		○	○	○	○	○	○	○	○	○	○	○	○	· · 2 1 2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판 정 결 과		홍	청	청	홍	홍	청	청	홍	청	청	홍	청	91.7%
판 정 일 치 도		1.0	1.0	0.8	0.6	1.0	1.0	1.0	1.0	1.0	1.0	0.6	1.0	
오 차	회 수 비 율	3 회 25=12%					○회 ○%				2 회 15=13%			5 회 60=8.3%

○밴텀급의 심판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60명의 판정에서, 91.7%의 판정일치도를 나타냈으며, 5명의 착오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페더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바른판정, ×·착오판정

구 분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심 판	경기번호	16	17	18	19	20	54	55	56	57	80	81	93	계			
주		○	○	○	○	○	○	○	○	○	○	○	○				
1		×	○	○	○	○	○	○	○	○	○	×	○	2 회			
2		○	○	○	○	○	○	○	○	○	×	×	○	2 회			
3		○	○	○	○	○	○	○	○	○	○	○	○				
4		×	○	○	○	○	○	○	○	○	○	○	○	1 회			
판 정 결 과		청	청	홍	홍	홍	청	청	홍	청	청	홍	청				
판 정 일 치 도		0.6	1.0	1.0	1.0	1.0	1.0	1.0	1.0	1.0	0.8	0.6	1.0	91.7%			
오	회 수	2 회					○ 회				3 회			5 회			
차	비 율	$\frac{2}{25}=12\%$					○ %				$\frac{3}{15}=20\%$			$\frac{5}{60}=8.3\%$			

○페더급의 심판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연 60명의 심판에서 91.7%의 판정일치도와 5명의 착오 심으로 나타났다.

5. 라이트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바른판정, ×·착오판정

구 분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심 판	경기번호	21	22	23	24	25	58	59	60	61	82	83	94	계			
주		○	○	○	○	×	○	○	○	○	○	○	○	1 회			
1		×	○	○	○	○	○	○	○	○	○	○	○	1 회			
2		○	○	○	○	○	○	○	×	○	○	○	○	1 회			
3		○	○	○	○	○	○	○	×	○	○	○	○	1 회			
4		○	○	○	○	○	○	○	○	○	○	○	○				
판 정 결 과		홍	홍	홍	홍	청	청	홍	홍	청	홍	홍	청				
판 정 일 치 도		0.8	1.0	1.0	1.0	0.8	1.0	1.0	0.6	1.0	1.0	1.0	1.0	93.3%			
오	회 수	2 회					2 회				○ 회			4 회			
차	비 율	$\frac{2}{25}=8\%$					$\frac{2}{20}=10\%$				○ %			$\frac{4}{60}=6.7\%$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연 60명의 판정에서 93.3%의 판정일치도를 보였으며, 아울러 4명의 착오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 웰터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바른판정, ×·착오판정

심 판	구 분 경기번호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계
		26	27	28	29	30	62	63	64	65	84	85	95	
	주	○	○	○	○	○	○	○	○	○	○	○	○	·
	1	○	○	○	○	○	×	○	○	○	○	×	○	2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판 정 결 과		청	홍	청	홍	홍	홍	청	홍	청	청	청	청	
판 정 일 치 도		1.0	1.0	1.0	1.0	1.0	0.8	1.0	1.0	1.0	1.0	0.8	1.0	96.7%
오	회 수	○					1 회				1 회			2 회
차	비 율	$\frac{0}{25}=0\%$					$\frac{2}{20}=5\%$				$\frac{1}{15}=7\%$			$\frac{6}{60}=3.3\%$

○웰터급의 경기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언 60명의 판정에서 96.7%의 판정일치도를 보였으며, 2명의 착오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 미들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바른판정, ×·착오판정

심 판	구 분 경기번호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계
		31	32	33	34	35	66	67	68	69	86	87	96	
	주	○	○	○	○	○	○	×	○	○	○	○	○	1 회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1 회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판 정 결 과		홍	홍	홍	홍	청	홍	청	홍	청	홍	홍	홍	
판 정 일 치 도		0.8	1.0	1.0	1.0	1.0	1.0	0.8	1.0	1.0	1.0	1.0	1.0	96.7%
오	회 수	1 회					1 회				○			2 회
차	비 율	$\frac{1}{25}=4\%$					$\frac{2}{20}=5\%$				$\frac{1}{15}=0\%$			$\frac{6}{60}=3.3\%$

○미들급의 경기에서는 총 12게임 중의 언 60명의 판정에서 96.7%의 판정일치도를 보였으며, 단 2명의 착오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헤비급 경기의 판정일치도

※보기 : ○·바른판정, ×·착오판정

구 분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합
심 판	경기번호	36	37	38	39	40	41	70	71	72	73	88	89	97	계				
주	1	○	○	○	○	×	×	×	×	○	○	○	○	○	4				
	2	×	○	○	○	○	○	○	○	×	○	×	×	○	4				
	3	○	○	○	○	×	×	×	○	×	○	○	○	○	4				
	4	○	○	○	○	○	○	○	○	○	○	○	○	○	0				
	4	○	○	○	○	○	○	○	○	○	○	○	○	○	0				
판 정 결 과		홍	청	청	홍	홍	홍	청	청	홍	청	홍	청	홍					
판 정 일 치 도		0.8	1.0	1.0	1.0	0.6	0.6	0.6	0.8	0.6	1.0	0.8	0.8	1.0	80%				
오 차	회 수	3 회					7 회					12 회			12회				
	비 율	$\frac{3}{25}=12\%$					$\frac{7}{20}=35\%$					$\frac{2}{15}=13\%$			$\frac{13}{20}=65\%$				

○헤비급의 경기에서는 총 13게임 중의 연 65명의 판정에서 80%의 판정일치도와 12명의 착오심을 나타내고 있다.

9. 전체의 판정일치도

체	급	판 정 일 치 도(%)	비	고
핀	급	93.3%		
플	급	88.3%		
벤	급	91.7%		
페	급	91.7%		
라	급	93.3%		
웰	급	96.7%		
미	급	96.7%		
헤	급	80.0%		
계 (평 균)		91.5%	$41/485 = 8.5\%$	

○전체 심판결과의 판정일치도는 91.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헤비급을 제외한 7체급의 일치도가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어, 태권도 심판의 판정 결과의 신뢰성 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跆拳道 경기의 差誤審 傾向

1. 경기 수준별 착오심 경향

체급별	경기수준별	예	선	준	준	결	승	준결승·결승	계
핀	급	1		1		2		4	
플	라 이	3		2		2		7	
밴	텀 급	3		0		2		5	
페	더 급	2		0		3		5	
라	이 트 급	2		2		0		4	
웰	터 급	0		1		1		2	
미	들 급	1		1		0		2	
헤	비 급	3		7		2		12	
체	착오심회수	15		14		12		41	
	비 율	7.3% = (15 / 205)		8.8% = (14 / 160)		10% = (12 / 120)		8.5% = (41 / 485)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총 97게임 중의 연 485명의 경기 판정에서, 경기 수준별로 나타난 착오심의 경향을 보면, 준결승·결승 경기에서 10%, 준준결승경기에서 8.8%, 그리고 예선경기에서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태권도 경기의 심판은 예선전에서보다 기량이 보다 나은 선수들의 경기인 준결승·결승전 경기에서 착오심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심판 위치별 착오심 경향

체급별	심판위치별	주	심	1	심	2	심	3	심	4	심	계	비	고
핀	급	·		·		1		2		1		4		
플	라 이	·		1		2		2		2		7		
밴	텀 급	·		·		2		1		2		5		
페	더 급	·		2		2		·		1		5		
라	이 트 급	1		1		1		1		·		4		
웰	터 급	·		2		·		·		·		2		
미	들 급	1		·		1		·		·		2		
헤	비 급	4		4		4		·		·		12		
계		6		10		13		6		6		41		

○연 485명의 판정을 내리는 가운데 나타난 41명의 착오심을 심판 위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위표

에서와 같이, 2심과 1심의 위치에서 좀 높게, 그리고 주심과 3심, 4심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주심의 경우 8체급의 판정 중 5체급에서나 한번의 착오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장 판정 결과와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研究의 結果

이 연구는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심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분석 대상으로는 1984년 5월에 실시되었던 전국소년체전의 태권도 경기에서 치른 총 97게임의 485명의 판정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 고찰하였다.

1. 심판원들의 판정 내용이 경기 결과와의 판정일치도는 어떤 수준인가?
2. 경기심판의 착오심 경향은 어떠한가?
 - a. 경기 수준별 착오심 경향
 - b. 심판 위치별 착오심 경향

위와 같은 분석 관점에 따라 먼저 각 체급별로 경기 결과에 대한 심판원 각각의 판정 내용의 판정일치도를 알아보고, 다시 전체적인 판정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판정의 오류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경기 수준별로 나타난 착오심의 경향과, 심판 위치별에 따른 착오심의 경향도 알아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結 果

1. 태권도 경기 심판 결과에 대한 심판원들의 判定一致度가 91.5%로 나타났으며, 이는 태권도 경기의 심판 결과가 신뢰로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총 485개의 판정 중 착오심이 41개로 나타났으며, 8.5%의 수준이 된다.
3. 체급별 판정일치도의 분포는 80.0%에서 96.7%의 범위로 나타났다.
4. 경기 수준별 착오심의 경향은 예선전, 준준결승전, 준결승·결승전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5. 심판 위치별 착오심의 분석에서는 의미있는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주심의 판정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B. 提 言

태권도는 경기의 착오심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는 착오심의 빈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향 분석은 물론 그 원인의 규명을 비롯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겠으며, 판정일치도의 의미 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세컨드

윈드



2nd Wind

—白鴻—

I. 1981년과 1941년 겨울사이

두 겨울은 4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무릎까지 쌓인 눈은 기가막히게도 엇비슷하게 한반도를 뒤덮었다.

“서설이었을까?” 하고 허견호씨는 낫술에 붙어진 눈을 들어 흔들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만아들 현옥이 벌써 장손(長孫)을 낳아 주었다는 것이 그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나 만큼 믿겨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다던 중국에서부터의 진우인 박장군의 취한 어조가 떠올라 빙그레 웃으며 병원문을 들어섰다.

현옥과 상미사이의 첫 아들에게 이름을 지으려고 친

구들을 불러모아 낫 술을 권하면서 붓을 들어 망설이길 몇 번이나 한 끝에 백선(白鮮)이라는 단번에 희을 그린 리견호씨였다. 리견호 리 리 이라고

“그해 그러니까 1941년 2월에 조상께 제사도 드리고 못한 채 너의 할머니께서 빨리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말을 듣고는 중경(重慶)의 광복군 사령부로 갔었다.”

난생 처음 아버지의 항일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현옥은 내심 아버지가 된 기쁨보다는 아버지로 부터이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현옥은 산부인과 과장선생이 “그놈 꽤나 애먹었어요!”

훌륭히 키우세요”라고 어깨를 툭 칠 때야 아!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하는 실감을 가졌었다.

리건호씨는 만머느리에게 화선지를 꺼내보이면서“이놈은 리백선으로 불러라!”고 흰 백(白) 빛날 선(鮮) 두 자(字)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건호씨가 중국으로 망명하던 해의 겨울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었다.

중경에 있는 광복군사령부에 김구(金九) 주석을 찾아 떠난 그에게 한반도는 백두산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뒤덮인 망향이었다.

또, 빛나는 아침의 나라라고 이역인들은 현대사의 역병기에 태동의 아픔에 허덕이는 한국을 미쁘게 표현하는 미덕을 보여주기도 했다. 리건호씨가 손자를 그리던 고국 땅에서 안아보는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명(作名)의 뜻이 40년전 겨울의 웅지(雄志)와 별개일 수는 더욱 없을 거라고 붙여진 아버지의 눈가를 보는 현옥은 이해했다.

어릴 적에 몇 번이나 광복군출신 동지들이 거나해지면 합창인지 울부짖음인지 모를 「라·마르세이즈」를 들으며 자란 현옥은 생사(生死)의 이역만리 전선에서 조국광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산화해온 선열들의 기대가 얹힌 아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키우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갓 태어난 백선이 병원에서 나오자 상미는 친정으로 옮겨가 한달가량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다.

현옥은 언젠가는 아버지 리건호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아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건호씨의 세대가 광복투쟁의 시대 속에서 마감되었듯이 현옥의 세대는 두동강난 민족의 혈맥을 이을 준비를 하는 시대일 것이며 아들인 백선의 세대는 민족을 반토막에서 한통아리로 만드는 시대를 맞게될 거라는 예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종종나는 건호도장은 오히려 현옥이 다감한 마음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만들었다.

일요일이면 현옥은 아들을 안고 봄의 길목에 누워있는 관악의 오솔길을 산책했다.

생명의 존귀함과 무조건인 사랑의 그윽함이 건호도장의 봄을 아름답게 수 놓았다.

상미는 현옥보다 아기가 더 귀중하다면서 현옥이 놀랄만큼 능숙하게 엄마노릇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현옥은 자식을 보살피는 마음의 심분의 일만큼도 부모에게 못드리는 것이 죄스러웠다. 현옥의 어머니 계

여사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아들에게 “옛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단다.”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들의 백일날 현옥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 아연해졌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꼬마 수련생들이 코몬은 돈을 몇 푼씩 모아서 미역과 베레모 한개를 사와서 내밀었다. “저희들끼리 물래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제법 유품자의 틀이 잡힌 인철이가 내미는 선물꾸러기에서 해조음(海潮音)이 들리는 듯 했다. 꾸러미에서

백설기를 나누어 먹으며 백선을 얼르는 꼬마수련생들이 현옥은 자랑스러웠다.

그해 여름, 현옥과 상미는 코치 아카데미 과정 때문에 못갔던 신희여행을 수 많은 수련생들과 같이 바닷가로 떠났다.

백선은 할머니 계여사의 등에 얹혀서 뒤늦은 부모의 신희여행을 즐겨워 했다.



II. 바닷가에서

「날이 날마다 열(熱)에 띄어 나 혼자 앓는 줄을 아나, 모닥불이 타오르 듯 가슴 속이 타, 온 몸이 닳아 옴을 어릴 줄이 없어, 네 가슴, 푸른 가슴, 부른 가슴에 나를 안아 당겨서는 으깬 가슴에, 물밀듯 나도 밀고 나가 부딪쳐, 이 한 몸 구슬 되어 슬퍼지고저……………」

박두진시인의 구절을 「샌들」에 차이는 모래톱을 털어내듯 상미가 영송했다.

그녀의 몸매는 경산부로 볼 수 없으리만큼 흩어진 곳이 없었다.

그런 상미를 현옥은 해변에 앉혀 놓고 바다를 헤어나갔다.

그의 「버터·플라이」는 아카데미과정에서도 만점을 받은 만큼이나 힘찼다.

현옥은 바다에만 가면 그저 마음이 푸근해지는 자신

을 발견해왔다.

땅위의 오염 짙은 바다의 포용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듯 보였다. 바다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하지만 항상 생명의 숨소리를 영혼에 되심어 주는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현욱은 믿어왔다. 일렁이는 율동과 숨소리에서 배어나는 갯내음이 모든 생명의 원초(原初)라고 일깨우곤 했었다.

바다로 돌아간 감포의 옛친구와 뒤에 남은 아들의 애기를 상미에게 들려주면서 바다가 얹힌 우정과 슬픔과 무용담을 해풍에 실려 보냈다.

상미는 방승국에서 일하는 틈틈이 거울바다에 왔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승의 선생님 뻘인 김남조여류가 노래한「거울바다」에 매료되었었다고 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거울바다에 섰었네”

두사람은 수련생들의 ‘풍덩거리는 앞으로 열린 동해의 그늘없는 수평(水平)에 눈을 보내면서 생활에서 배어나는 앙금을 씻었다.

바닷가의 수련은 소년들을 웅장한 대자연의 신비에 잠기게 했다.

동식 떠오르는 일출의 현란함이나 달빛의 금파(金波)가 일렁이는 잔잔한 밤바다의 서정은 그네들의 인생에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흔적남게 할 거라고 상미는 학부모네들 설득했지만 현욱 역시 예상한 이상으로 수련생들이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높은 산은 깊고 맑은 물은 샘 솟게 하고 큰 바다는 겸손과 도량의 지혜를 싹틔게 하는 것이다.” 알듯 모를듯 눈을 반짝이며 현욱의 말을 듣는 수련생들을 보면서 바닷가의 여름수련을 해마다 하기로 작정했다.

군대식으로 줄을 서서 하루 네끼씩이나 먹는 식사시간마다 바다를 훑듯이 식욕이 왕성한 수련생들은 나흘간의 해변생활동안에 짙은 갈색으로 익어갔다.

상미는 해안에서의 마지막 밤에 현욱에게 도장이라는 강(江)에서 벗어나 대해(大海)로 나가라는 충고를 했다. 나아가라는

물이 모여 큰 못이 이루는 일이 장하게 생각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설득이었다.

현욱은 밤바다를 응시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현욱은 체육회의 일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상미는 놓았던 펜을 다시 들어 시아버지인 리건호씨와 건호도장의 얘기를 써보내겠다고 말했다.

현욱의 망설임은 공복이라는 참된 뜻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현실에 얼마나 적응할는지 내심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땅의 많은 일자리가 사실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업가는 공익(公益)을 사리(私利)의 제일 큰 적으로 보았고, 정치가는 명예를 존중하여 청빈을 베푸는 이가 없었으며 행정가는 자리차이에만 급급해서 배불리는 일에 혈안이었고 학자는 진리탐구의 연구보다는 얼굴과는 광대에 가까웠다고 보는 백성들의 의식을 잘 이해했다.

또 그가 도장에서 지도하면서 느낀것은 세수의 풍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을 만큼 무도계에도 비리와 오류가 들끓고 있었다. 세속의

무슨 파벌이 그리도 많은지 회합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한 욕지거리가 공중변소의 파리떼 만큼이나 뿜뿜 거렸다.

자리는 일하는 기회와 업적을 남겨 평가받는 봉사의 도구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렴해서 부담하는 행정기관의 자리에 앉은 이 들은 사법들을 흡사 머슴 부리듯이 대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은 어디서나 비슷했다.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은 죽은 사람들에게나 한 닢두리로 아는 지도자들이 횡행하였다.

권력은 어느 조직에서나 그 구성원들에게서 나오며 권력의 행사는 오직 구성원들을 위해서만 타당하다는 말은 어쩌면 바다에 가서 물은 위로 흐른다고 떠드는 미지광이의 말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현실과의 타협이 현욱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느꼈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어리석다고 흉을 보기도 했지만 현욱의 그런 점이 바로 매력이라고 말할 적도 있었다.

현욱이 또 한번 실소한 일이 생긴 것은 9월초였다.

구멍가게를 하는 여훈이 아버지가 저녁시간에 찾아왔다. 빌딩관리를 해주면서 작은 가게터에서 제법 짭잘한 잡화상을 열고 두 딸과 아들 하나와 함께 가게에 딸린 방에서 부부가 모두 상업에 매달려 있는 터였다.

빌딩은 가게자리만 스무 군데가 넘는 10억원이 넘는 규모에서 주인의 친척빌되는 여훈이 아버지 윤씨가 관리를 해주고 대신 너털평되는 담배와 토론폰매를 겸한

구멍가게를 빌려주었다고 했다.

빌딩의 세금문제를 잘 해결해야 몇 백만원씩의 탈세가 가능한 입장인 주인은 윤씨에게 세무공무원을 잘 구워 삶아서 공을 세우라고 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인 것 결혼한 정보씨가 찾아와 이백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주인이 맡겨놓은 데서 빌려주었다고 해서 어찌 어찌해서 세금문제는 한 삼분의 일정도로 잘 끝냈는데 이번에는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을 주인이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빌려준 윤씨더러 돈을 찾아오든지 대신채워 놓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윤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다.

현옥은 자기가 정모라는 세무관리를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일요일 아침에 “정”은 아파트의 문을 열어 주었다. 나이는 한 스물 일곱 여덟쯤 되었을까?

현옥은 침착하지만 강직하게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께서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일단 별도로 갚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일단 제학부형 이신 윤선생의 사정이 딱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건호도장의 사범 리현옥입니다. 만일 선생께서 돈 많은 빌딩주인의 돈을 몇 천만원이라도 빌려서 안 갚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윤선생은 이백만원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갚지를 못합니다. 차용증도 없이 빌려드린 돈이니 세금을 잘 봐준 댓가로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주인은 윤씨에게 돈을 당장 갚으라고 채근이 심합니다.”

“정”은 무척 당황해했다.

그 역시 말단 세리(稅吏)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 래도 집에는 제법 가재도구가 풍족했다.

현옥은 행여 상대가 찾아온 사람이 태권도사범 이라는 것 때문에 폭력의 암시적 효과로 해결하지는 않을 까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대화 했다.

결국 현옥은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받아서 윤씨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현옥은 윤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정”이 지불각서를 써 준 것은 현옥이 “선생, 제법하게 구멍가게하는 분 돈 몇푼 떼어먹어 부인에게 청피한 것 보다 가서 빌딩주인에게 세금 잘 봐 주었으니 사려하 라고 당당히 말하시요.”라는 호통때문이었다.

허긴 요즘은 핵가족시대라 공처가가 많긴 하다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씩씩히 웃은 현옥이었다.

보름쯤지나 돈을 돌려받은 윤씨는 소고기를 두근이나 사왔다.

현옥은 한사코 마다했으나 화를 내는 윤씨는 이번에는 맥주까지 다섯병을 들고 왔다.

현옥은 상미에게 불고기를 만들도록 해서 윤씨의 부인과 아들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 아이

윤씨는 술이 거나해지자 푸념을 늘어놓았다.

빌딩에 입주한 가게들은 거의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단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이십만원짜리가 삼백만원 전세로 탈바꿈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부가 가치세는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그 때마다 너물로 매수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통이었단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윤씨가 돌아간 뒤 현옥은 자는 아들의 뺨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상미는 그런 현옥에게 “요즘은 천국행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사람은 꿈도 못 꾸네요” 라고 빈정거렸다.

“이봐요! 세상에서 돈주고도 못사는 게 딱 한가지가 있는 데 무언지 아나?” “바로 청빈의 멋일세!”

“바로 청빈의 멋일세!”,

그 밤에 두사람은 벽에 기대어 앉아 머리를 맞대고 조락을 재촉하는 빗소리를 들었다.



III. 사람, 일, 자리

현옥이 도장을 동생에게 맡기고 체육회에 일을 시작한 것은 포장마차가 제법 퇴근길의 선선한 몸을 녹이게 하는 초겨울이었다.

무교동의 아침은 언제나 간밤의 취객이 토한 맥주거품을 지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식당가의 점심준비와 주점가의 술병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공교롭게도 출근길의 많은 셀러리맨들에게 들리는 일이 현옥은 언짢았다.

그래도 무교동은 재미있는 동네라고 현옥은 지날 때마다 생각했다.

매일같이 복어국집을 찾는 간밤의 숙취를 달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때는 무언가 인간의 귀소본능을 일깨우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름든 현옥 역시 점심시간에는 요거거리를 찾아 부유하는 군상의 하나가 되었다.

체육회의 엘리베이터는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 손기정선수의 족적이 남겨진 것 처럼 낡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이 땅의 운동선수들이 개선행진곡을 울리며 돌아오는 기행지가 바로 체육회관이었다.

체육회관의 로비에는 색바랜 경기단체의 표장이 형형이 걸려있었다. 많은 종목 가운데 우리 한 민족의 것으로는 태권도와 씨름 정도가 그래도 꼽힐 만 했다.

남의 것은 숭상하고 우리 것은 천시했던 사조는 비단 한글과 가전제품 뿐 아니라 경기종목에서도 그랬었다는 것을 현옥은 한 참이 지나서야 절실히 느꼈다.

경기의 영웅은 어느 종목에서나 빠른 각의의 고통 뒤에서 조각되는 데 유독 태권도의 우승자들은 푸대접을 받았다. 우리가 만든 종목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에서인지 미운 털이 박혀서 인지는 몰랐으나 아름답든 우리의 영웅들은 일간지의 톱뉴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은 유도를 만들어 다 뺏겼어도 “야마시마” 한사람은 잘 길러 우상이 되다시피 했는데…….

현옥은 무도 전문지를 읽을 때마다 태권도에 대한 푸대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존심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한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천해질 수 밖에 없다.

옛부터 고관대작이 수련하던 태권도가 대중화되었다고 해서 또 우리 것이라고 해서 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설파하던 태권도사에 정통한 한 선배의 말에 공감할 한 터였다.

체육회관 안에 있는 여러 경기단체들은 그 소속원들은 많고 적응이 있었지만 하는 일은 여러해 동안 변화가 없이 비슷했다.

기업체에서처럼 이익되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일을 찾아서 하는 일도 좀처럼 없었다.

그저 때에 맞추어 매년 하는 일을 반복할 뿐이었다.

경험론이 절대 우세했고 과학적인 방법의 시험은 E부시했다. 폐쇄적이고 진부한 풍토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경기단체간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우수한 선배들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서 매너리즘에 빠진 임직원들의 훈장 수는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현옥은 이런 풍토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이미 뜻있는 선배들이 많은 충고를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현옥은 태권도사와 근대올림픽과 고대 올림픽정신에 대해 연구했다.

그런 가운데 현옥은 새로운 걱정을 갖게되었다. 현재 상태로는 급격하게 진보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기술과 정보의 속도에 비해 체육계는 답보상태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선배인 김기자는 그런 현옥의 걱정에도 동감을 표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앞 둔 판에 참으로 걱정이야. “선배님! 우리 태권도를 좀 크게 취급해 주십시오.”

현옥은 우리것 천시에 대해 항의를 하곤 했다.

그러나 선배와 기자들은 “태권도 취재차 가보면 임직원들의 매너가 속을 상하게 해서 기사를 내주진 커녕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고 말해 현옥은 당황하곤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성실하고 끊임없이 업무개선을 추진해온 숨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현옥은 보았다.

그들은 현상에 대한 불평불만보다는 적은 일이지만 한가지씩 쉼겨나갔으며 박봉에도 쪼들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고 현옥은 느꼈다.

제별 2세의 회장취임이나 권력가의 어깨에 얹힌 체육단체의 회장직은 「악세서리」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체육중흥을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선배들은 갈파했다. 간파

현옥은 어느날 아침에 딱딱 뜯어 고치는 식이 아니고 고쳐야 할 적은 부분이라도 신중히 개선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참여를 유발하는 행정가들이 길러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현옥의 그런 태도는 유약한 호신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결코 혁명이 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한 일은 흔치 않은 것이 아닌가고 현옥은 반문하곤 했다.

형편이나 개혁의 의지 뒤에 숨긴 독자의 교활한 비난 소리는 태고적의 예멘동산이나 현대의 빌딩 숲에서나 상존해있었다.

孝와 忠에 대한 小考



변 기 철
(국기원연구본부과위원직)

● 孝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것이다.

● 孝子치고 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없으며.

忠은 孝의 一面이고 忠은 곧 孝의 背面이다.

● 忠과 孝는 둘이고 하나이다. 忠孝一本인것이다.

우리민족 윤리도덕의 중심사상이며 정신생활의 근원인 孝와 忠에 대한 역사성과 현대적의의를 살펴봄으로서 충효의 본질에 대해 좀더 가깝게 접근해 바른 이해와 실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후한 말은 중국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詩經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서 고대중국의 聖帝, 聖人(堯, 舜, 禹, 文, 武, 周公, 孔子)들은 민정을 알기위해 채시(采詩)라는 官을 두어서 각지방의 詩나 민요를 채집시킨 것인데 그것이 堯, 舜시대로부터 孔子에 이르기까지 수천년을 지나 3천여편이나 되는것을 孔子가 재편집하여 3백5편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그중에는 민요가 대부분이며 詩나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李朝때에도 太宗때부터 신문고(申閔鼓)를 궁전의 누각에 달아 놓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복을 치라고 하여 王이 직접 그 북소리를 듣고 사연을 들었던 것이

다. 詩經 小雅편을 보면 효자가 부모를 보양(保養) 하려해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보양할 길이 없는것을 슬프게 읊은시가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蓼蓼者莪(육류자아),
靡莪伊蒿(비아이호)
哀哀父母(애애부모),
生我劬勞(생아구로)

다복죽같이 잘 자라지 않는 풀이 길고 크게 자라서 무성한 호시절을 당하여 이미 가신 부모님을 봉양(奉養) 하려해도 봉양할 길이 없구나. 슬프고 슬프도다. 나를 낳고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고생 하시었네.

古代의 孝는 부자는 천륜이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효성을 다해야하고 부모가 아무리 잔악하여도 자식된 도리는 孝를 다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상은 곧 자식은 부모를 天으로 삼고 아내(婦)는 남편(夫)을 天으로 삼고 백성은 임금을 天으로 삼는다는 孝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孝에대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孝의 본질에 대해 중국의 고서에는 孝莫大於安父母之心(효막대안부모지심)이라했다. 즉 효라는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것 보다 더 큰일은없다는 말이다. 공자의 70제자 중에서 會子는 부모에대한 孝로 유명한 분인데 會子의 부친이 매일 식사를 한 뒤에 맛있는 반찬이 남았느냐고 물으면 會子가 남았다고 대답한것은 부친이 다른사람에게 주기위해 물으신줄알고 남았읍니다. 라고 대답한것이니 오직 부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남았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뒤 會子의 부친이 돌아가신후 會子의 아들 會元이 會子에게 효가 극진 하였는데 會子가 매일 식사후에 반찬이 남았느냐고 물으면 會元은 안남았다고 거짓 대답을 하였다. 그것은 다른 식사때에도 드리려고 거짓대답을 한것이다.

그후 두사람의 孝를 평가하기를 會子의 孝를 養志, 會元의 孝를 養

우리는 고전적

도덕문화의 중심사상인

충효정신의 구현은 한 집단의

선양운동을 통해서만이 아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민모두의

정신적 덕목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口라고 평하여 會子의 孝가 부모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孝가 되므로 會子의 孝가 會元의 입을 기리는 孝보다 바른 孝라고 평론하였다.

따라서 孝는 곧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古代의 유명한 효자는 국가 즉 부족간의 관계를 아니하고 효도에만 전력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소위 구시대의 국가란 것은 변화무쌍한 부족의 이동으로서 충을 기록한 문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후세에와서 국가가 안정됨에 따라 효가 극진한 사람은 반드시 忠도 갖게된 것이다. 孝忠一本之道는 孝의 일면이 충이되고 충의 일면이 孝가 되는 것이니 中國 宋末시대의 文天祥은 孝로 유명한 사람이 었으면서 忠을 다하였고 또 漢나라 張良과 陳平역시 유명한 명장 명관인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였던 충신들이다.

우리나라에도 孝忠을 다하신분이 많이 있다. 특히 李朝시대의 李忠武公은 孝忠겸전의 장군이였으며 근세에는 金九선생, 安重根義士, 이준 열사, 윤봉길의사 등 수많은 충신

들은 모두 부모에게 孝가 지극한분들이었다. 때문에 孝忠一體, 忠孝一本인 것이다. 이러한 忠孝의 고전적사상은 근대화,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경제구조의 변이에 따라 그 상충구조인 孝의 개념도 기본철학의 동요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하여 자유, 평등 우애의 사상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한편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 봉쇄적 농업경제에서 공상경제로의 급진적인 전환에 따라 철학사상도 불가피하게 자유, 평등, 인권을 부르짖게되어 구시대의 계급사회인 양반, 평민, 노예등의 신분관계는 무너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구시대의 유물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충격이 충만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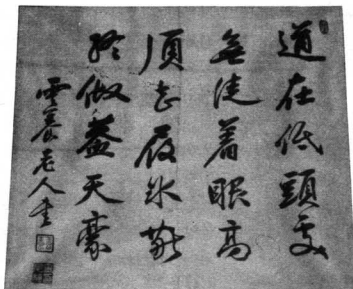
그러나 동양에서는 서양의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도외시하고 더욱 봉쇄정치를 강화하여 세계정세변화에 어두워 낙후를 자초하고야 말았다. 그러던중에서 서양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게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완성시켜 동양에 군림 하게될 것이다. 여기서 古代의 孝忠개념도 대변혁을 맞이해 자유, 평등, 인권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와 孝의 순수성, 절대성, 전일성(專一性)은 상실되어 상대적인 부모의 임무와 책임도 말하게되고 자식의 고전적 孝의 관념도 점점 사라져가 핵가족제도로의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물질주의의 범람, 사회윤리, 도덕의 타락등으로 인하여 孝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조소와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서양문명은 그 필연적 결과로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배금사상을 날게하여 우리에게 인간다운 도리를 실천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고전적 도덕문화의 중심사상인 충효정신의 구현은 한 집단의 선양운동을 통해서만이 아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민모두의 정신적 덕목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윤리관과 가치관은 하락하여 孝忠에 대한 여러가지의 마음아픈 실례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정신문명의 원천이 되어 있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과 동양도덕의 뿌리가 되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정신문화는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한 변화와 최첨단의 자동화를 구가하는 로봇트, 컴퓨터, 우주시대에서도 구체화하려는 마음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도 사회의 제일선에서 충효정신을 선양하고 있는 태권도인은 위와같은 忠孝一本, 忠孝傳家の 정신적덕목을 생활속에 실행해 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金允植先生 親筆

道在低頭處
 道라는 것은 머리를 낮추는데 있나니.
 無徒着眼高
 한갓 눈만 높아서는 못쓴다.
 須知履水敬
 모름지이 얇은 어름을 밟듯이 조심성있게
 公경할 줄 알면.
 終做蓋天豪
 끝내는 氣慨가 하늘을 덮는 豪傑이 된다.

道란? 머리를 낮추는데 있나니...



나의 서재 한 모퉁이에는 韓末에 大文章家인 金 允植先生(雲養老人)의 遍額이 퇴색해 가면서 더욱 그 빛은 찬연하다.

여러해 동안 나와 인연이 되어 喜怒哀樂을 함께하며 좋은 스승이 되어 커다란 教訓을 주고 있다. 오늘의 人間世態가 不信과 不條理로 날뛰고 있고 참신해야 될 따듯한 人間關係는 콩크리트 벽처럼 차가운 현실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곤과 소외감을 안겨준다.

참으로 孤獨한 群象들을 실감하게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나의 밀실에 들어오면 준열히 자신을 반추해 본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움기도 하다.

이 雲養老人의 글은 대할 수록 自己返照되어 허약한 자신을 어루만져주는 커다란 精神의인 支柱가 되고 만족감을 주고 있다.

道라는 의미를 구대어 폐쇄한 古書속에서나 한줄찾아 인용 해보는 그런 상투적인 變의 글은 피하고 싶다.

마치 우리에 술의 제조과정처럼 누룩과 물과 곡식이 어느 기간동안 묵혀진 다음 적절한 溫度에서 익혀져 걸러 마실 수 있는,

우리 固有의 막걸리처럼 우리民族이 즐겼던 그런 順理의 맛이 이 글에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도 넘나 볼 수 없는 어수룩해 보이는 老人을 감히 어찌지 못할 그런 선비다운 멋과 청아한 思想이 감추어져 있어 더 더욱 좋은것 같다.

世上을 吟味하며사는 순하고 욕심없는 老人의 체취가 물씬 풍겨주는 그런 雲養老人의 글이다.

어느 西洋詩人은 「肉体가 襄함은 곧 知慧를 말함이다.」(Bodily decrepitude is wisdom) 하고 노래했다.

老人은 빠르지 못하고 느리지만 젊은이처럼 어리석거나 실수함은 적다.

이것은 오랜세월 반복되어오는 사이에 바른 인생체형 속에서 터득된 知慧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말수도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적합한 말을 편하고 쉽게 일러준다.

성냄도 적어지고 자상자애함이 몸에서 자연 배어져 나와 편안함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힘의哲學」의 절정인 여과된 힘이 老人의 哲學임을 터득한다면 道를 배우는 관문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되지않을까?

道란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老子(本名은 李耳-春秋戰國時代)로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老子的 道德經이란 東洋의 古典을 남긴 老子자신도 스스로 “늙은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지은 이름이 아닐까?

글의 主人公 雲養老人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는 修養의 길잡이로 87年間에 긴 생애속에서 修養人이요, 선비로서 자신을 다듬고 지키기 위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 老人의 글은 차마 흠이 될까봐 그냥 하나의 순수함 그대로 친한 벗에게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本人의 추측으로는 金允植先生이 政治生活에서 10年間이란 긴 세월을 유배되었을때 만년에 유배지에서 생을 재음미하며 우유부단했던 자신을 달래려고 써두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大提學이라는 높은 벼슬에 風雲의 뜻을 꿈꾼 천재적인 재능을 드날리던 젊은날부터 이 글이 좋아 늘 간직하며 「머리를 드는」 자신의 교만을 채찍질 하기 위하여 修養의 目的으로 두고두고 실천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분의 文集과 글의 品位로보아 本人은 前者로 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름지기 출중한 사람들이라도 궁극에는 老人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天理를 일찍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참다운 길(道)이되고 남달리 그 길이 움직일 수 없을때 진하고 유쾌한 생을 누릴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는 변변치않은 직위나 직책으로 物質이나 名譽를 위해 虛妄한 투쟁을 하며 그 위치를平生 지킬양으로 뺨뺨해져서 가장 가볍고 부드럽게 유지 해야할 머리를 힘 주어서 쇠막대기처럼 보여 他人에게 부담과 嫌惡感까지 주니 쓴웃음으로 답례 해 줄때가 있다.

平凡한 사람 속에서 보다는 조금은 특정 직업인쪽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 있는것 같다.

특히나 体育人들은 자칫 외관으로도 남달라 단련 흔적이 보이게 되고 체취가 나게되어 감추기 어려운 것인데 애써 자기를 두드러지게 보이려는 속물근성은 버려야 될줄 안다.

더더욱 指導者임에야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건강의학면에서도 머리쪽으로 힘을 올려준다는 것은 피곤함과 격한 감정까지도 유발되기 쉬워서 近來에는 “요가”나 “心靈科學”에서도 “腦波를 내리라”는 感情順化運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더욱 가슴에서 배밀로 힘을 내리면 내릴수록 좋고 鍛鍊의 효과로는 최상급이다.

“서늘한(냉철한) 머리에 따뜻한 가슴” (Cool Head and Warm Heart)

을 갖자고 외치는 쪽도 西洋이고 보면 우리의 先祖들의 先驗知慧는 놀랍기까지 하다.

道란 人間精神修養의 最高的 頂点이라고 볼수 있다.

바위틈에서 떠러져 고인 몇방울의 물이 사람의 갈증을 달게해주지만, 오랫동안 고여있는 흐르지않는 물은 썩어서 마실수 없다는 간단한 이치와 비유된다. 바로 淸淨한 본래 우리의 생터를 간직하고 있지만 방치해 두었기에 썩어서 惡臭가 나는것 같이 어딘惡臭보다도 부패된 人間の 냄새는 악취중에 악취라 할 수 있겠다. 방치해둔 우리들의 마음에 생터를 맑끔히 가사내어 흘려버리고 나면 그 뒤에 후련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후련한 상태가 형틀없는 道의 맛이요, 곧 맛이 될 것이다.

어느道人은 “道가 헛되히 행하지 않는지라 다만 사람한테 있다.” (道不虛行只在人) 라고 가르쳤듯이 우리 跆拳道人 만이라도 나날이 추켜지는 머리를 낮출줄도 아는 훈훈한 마음에 功夫를 게을리 하지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차츰 생각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억지와 가식이 없는 흐르는 물과 같은 순평한 雲養老人의 글을 다시금 음미하며 우리 모두가 豪傑이 되고자 다짐해 본다. ※

인생 황금기에 접어든 무도인의 고백

캐나다 R. Bing-Wo

많은 캐나다의 직장인들이 그러하듯이, 나이 60을 곧 앞두고 저는 오랜세월 동안 앉아서 하는 생활로 일관하여 주로 책상에 묶여 운동 부족이 되고, 체중도 늘고하여 신체적으로 노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46년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직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67년 캐나다의 “레지나”시의 “사카치안 엔지니어협회”의 총 지배인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으며, 점차 활동적이고 즐거운 퇴직후의 생활을 꾸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소망을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979년 11월이었습니다.

예상 했던대로, 의사는 5피트 10인치의 키에 체중이 185파운드로 30파운드나 체중초과가 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감소를 위한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체중 문제는 식이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더라도, 무슨 신체운동을 선택해야 할까? 저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깅, 수영, 골프, 미용체조 등,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중 어느것도 저에게 적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중국계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젊은 시절에 현지 중국인 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무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추천한대로 신체적

컨디션 조절 방안으로 무도를 시작해보면 어떻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고도로 숙달된 사범을 찾기 시작하여, 마침내 한국의 세계연맹태권도에 등록된 국제사범인 태권도 8단 김성주사범의 태권도 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사범과 상담을 가지고, 제 목표를 얘기하고 특히, 제 나이가 60세가 다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김 사범은 저를 학생으로 받아주시기로 하고, 저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수련계획을 짜줄 것을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1980년 1월부터 주당 3일 저녁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지나지 않아 저도 다른 학생들의 정규 수련에 보조를 맞추실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980년 9월까지 9개월동안 수련끝에 청머를 따게 되었고, 그후 다시 1년반이 지난 1982년 4월 홍머를 따냈으며 1984년 7월 드디어 제가 지금 자랑스럽게 매고 있는 세계태권도 연맹 1단의 후띠 심사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수련은 결국 저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체중은 지금 160파운드선에 머물고 있으며, 근육상태는 양호하며, 전반적 신체조건은 아마도 40세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에 출전할 정도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런것은 결코 제 목표가 아닙니다.

태권도의 신체적인면을 떠나서, 김 사범은 무도의 정신적이고 철학적인면에 대한 저의 관심을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통하여, 젊은 학생들의 성격형성에 특히 값진 여러가지 점들- 정신자세, 훈련, 태도, 경의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잊을나이다. 그는 또한, 한국 무도의 역사와 품세의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무도의 헌신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레지나”시와 인근지역에 많은 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학생들 중에는 김수성이 강한 나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며, 그의 교육방법은 그들 젊은이들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저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여년에 걸친 김 사범의 노력과 통솔력을 통하여, 태권도는 최근 이곳 지방 정부 문화오락부와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이지방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지금 이곳 지방정부의 스포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수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수련생들의 경기참여에 필요한 여행경비, 훈련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사범을 통하여 얼마간의 한국 문화가 이곳에 옮겨 심어졌으며, 저는 그의 노력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많은 캐나다인이 지금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984년 8월 10

캐나다, 레지나에서

R. Bing-Wo 올림

(주) : 상기 원고는 캐나다로부터 1984년 9월 세계연맹으로 전달된 서한 내용임

“태권도 편집”은 여러분과 함께

각 시도협회(연맹)의 소식

각종경기, 새로운 인사(임원),

학교 체육관 (지방에서 특색있는) 소식

태권도를 교기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관련자료(연혁, 내용, 사진등)을 보내주시면
학교의 명예를 빛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란 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태권도에 관한 건의, 제안, 고발, 태권도지에 대한 요구등.

독자의 란 ② 「소설」, 「수필」, 「연구논문」

내용이 공감이 가는것으로 수련기, 지도기, 숨은 미담, 성공사례 등.

독자 사진 콘테스트

태권도와 관련된 좋은 사진(경기장면, 묘기, 격파 등)

○보낼곳 : 우편번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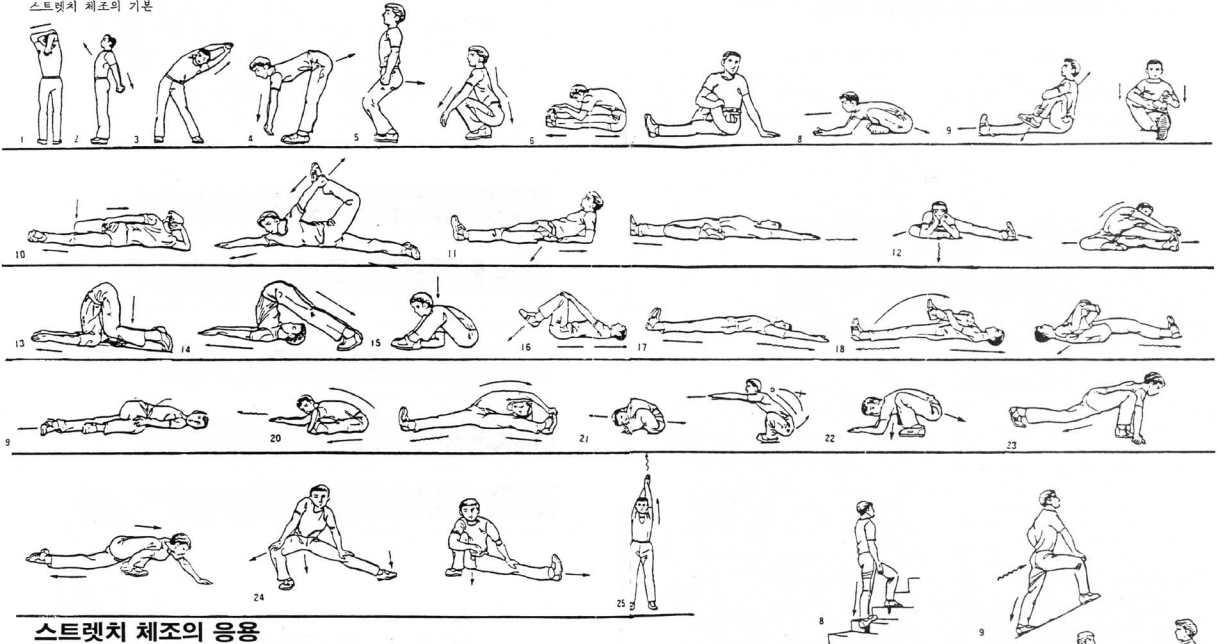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체육회관 704호 태권도 홍보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와 책을 우송해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연락전화번호
도 명기하여 주십시오.

스트레치 체조의 기본

스트레치 체조의 기본



스트레치 체조의 응용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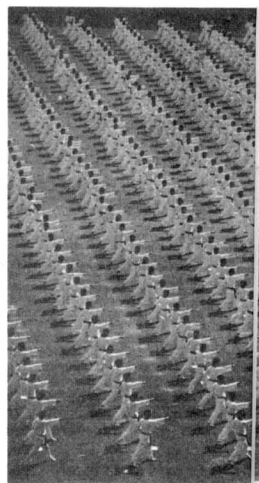
Dr. Kim's



김문용 총재는 필리핀 마르코스(Marcos) 대통령을 예방하여 국제스포츠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1984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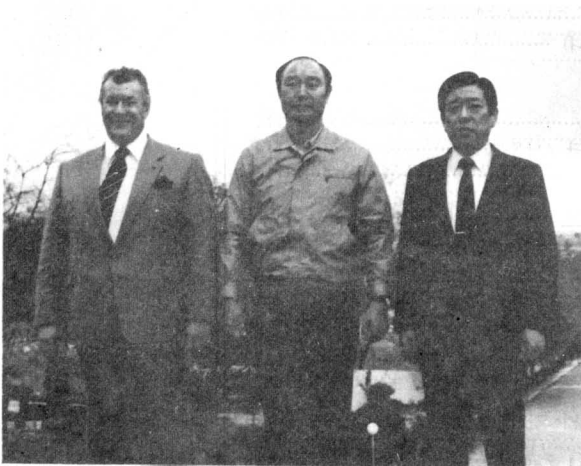
DR. Kim Shake hand With H.E Marcos, President of philippines.

(DCT 11th. 1984)



'88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식에서, 태권도시범 경기의 모습

Scene of Taekwondo
Demonstration at opening
ceremony of seoul olympic
main stadium.



Hon. Charles Palmer, President, British Olympic Association
Poses with Mr. Chun Kyung Hwan, Secretary General, Headquater of Saemaul
Movement & Dr. Kim, President WTF. (OCT.31th 1984)

김문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영국 올림픽위원장 Charles
palmer 씨와 새마을본
부 전경환 사무총장 (새
마을 본부에서)

1984년 10월 31일

동정

movements



김운용 총재

GAISF 초대 부회장당선

1984년 10월 17일~19일까지 모
니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총회
에서 개정된 헌장에 따라 초대부회
장에 김운용총재가 만장일치로 당
선되었다.

회장은 국제 조정연맹회장의 Thomas
Keller (스위스) 씨가 연임하게 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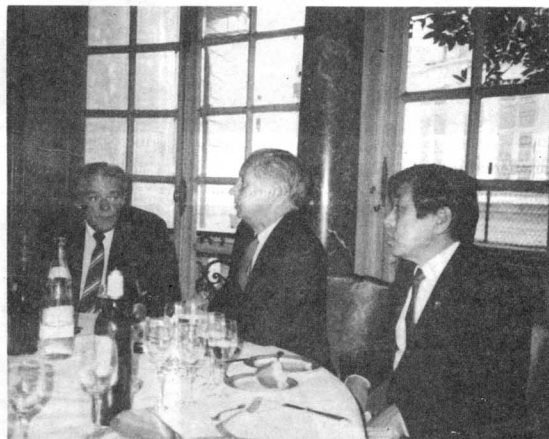
(좌. 토마스 켈러 GAISF 회장 중앙;
시마람치 IOC 위원장, 우. 김운용
총재)



월드게임 (World Games) 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김운용총재
(1984년 10월 16일 모니코 몬테카를로에서)

The 8th General Assembly Meeting of World Games at Monte carlo Monaco

(OCT 16th 1984)



DR. KIM AS GAISF VICE PRESIDENT

Dr. Un Yong Kim was elected Vice President of GAISF unanimously at its 18th General
Assembly Meeting on October 17th-19th in Monte Carlo, Monaco.

Left, Thomas Keller, President, GAISF. Middle, Juan Antonio Samaranch, President, IOC
Light, Dr. Un Yong Kim, President, WTF.



IOC위원들 국기원 방문 (1984. 9. 30)

IOC members visited WTF Headquarters on September 30.

국기원에

Visitor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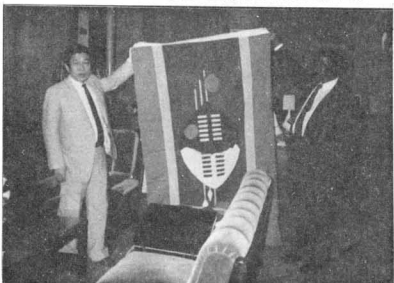
IOC위원 (브라질) Mr. Magulhaes Padiba WTF 총재 예방
Mr. Magulhaes Padiba, IOC member from (1984. 10. 2)

Brazil visited Kukkiwon on October 2nd.



IOC 스포츠 디렉터 "Walter Troger" WTF 총재 예방
Mr. Walter Troger, IOC Sport (1984. 10. 2)

Director paid courtesy call on Dr. Kim, President WTF.



IOC 위원 (스와지랜드) 국기원 방문 (1984. 10. 2)
IOC member from 스와지랜드기 증정

Swaziland presents a flag of Swaziland to Dr. Kim.



IOC 위원 (자메이카) Mr. Jony Bridge 국기원 방문
Mr. Bridge, (1984. 10. 2)

IOC member from Jamaica visited Kukkiwon on October 2nd.

오신손님들

Kukkiwon



영국 올림픽위원장 Charles Palmer 국기원 방문 (1984. 11. 1)

Mr. Charles Palmer, President British Olympic Committee visited Kukkiwon on November 1st.



국제스포츠 기자연맹 위원들 WTF 총재 예방 (1984. 10. 5)

Members of AIPS paid courtesy call on Dr. Kim President WTF.



불라셔 대사 Andre Baeynesa 일행 WTF 총재 예방

H.E. Baeynesa Ambassador of France visited
(1984. 9. 30)
Kukkiwon.



멕시코 선수단 WTF 총재 예방.

Taekwondo delegates from Mexico call on Dr. Kim President W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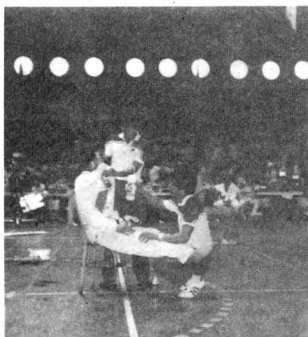
눈으로 보는 이모저모 6년째 위업달성



태극기를 앞세우고 당당히 입장하는 한국
Korea Teams are entering to opening ceremony.



필리핀 K. O. C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김문용총재
Dr. Kim presents a plaque to Hon. Keon, President of Philippine Olympic Committee.



코치와 트레이너의 작전개시
Contestant & coaches in rest hour.



6년째의 위업을 달성한 주역들
Korean Teams and officials with the winner's Trophy.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자국의 금메달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Hon.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encourages to the contestant.



우승한 이준명 웰터급선수
Welter's winner Mr. Lee Jun Myung.



아시안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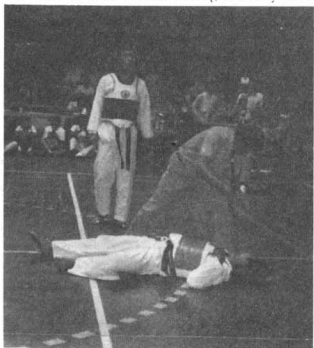
The 6th Asian T. K. D.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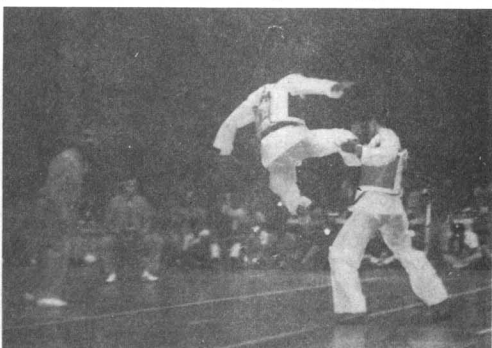
이삼주 아시아 연맹회장의 대회사
Dr. Lee Seng Ju,
President of ATU address a congratulatory message.



정관섭 단장이 승리한 권기문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Korea Team leader encourages to contestant.



김종석선수의 위력, 키운타... K.O 승
Knock down at competition.



김재구선수의 점프 앞돌려치기... K.O 승
Scene of sparring.



정음환 애국가 소리와 함께 게양되는 태극기
Raising the winner's national play.



단체 6년패의 위업달성 김문용 총재가 정관섭 단장에게 시상.
Dr. Kim gives the winner Trophy to the Korea team leader.

제 65 회 전국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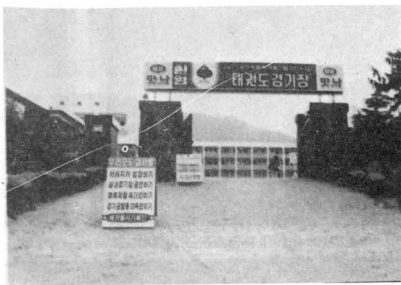
The 65th NATIONAL Athletic Meeting

1984. 10. 11~16

/ 대구직할시



대구협회 초청 민찬에서 체전을 위한 건배
Dr. Kim and guests at reception.



태권도 경기장 경원고 정문
Taekwondo Championship was held at Kyung Won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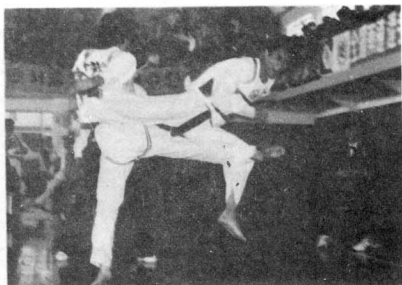
대표자 회의 각시도 전두이사
Representative meeting.



재미동포 참가한 선수와 임원
Participants from U.S.A.



재 홍콩 교민회에서 출전한 선수
Contestant from Hong Kong.



아차구의 순간 (점프 뒤돌아 움차기)
Scene of fighting.



임상의 격의차 (좌) 전남 박창우 전무 전남 박현중 코치 (중앙) 서울 임춘길 총무이사 서울 박창덕 코치
Holds up the Winner's Cup.
(우) 충남 이진수 전무 충남 박상도 코치



4 연패의 위업 달성을 위한 코치와 선수의 모습
Contestant & coach from Seoul team.



노익장을 과시한 정승화 선수 / 제주에 금메달을 선사하는 순간
Win, Jeju Contestant.



대구직할시 태권도 협회 임원과 우수선수들
Tae Gu Teams poses with officials.